

SSU:NIVERSE
전공안내서

D  ISCOVER 
THE  FIELDS
THAT SHAPE
TOMORROW
DISCOVER
THE  FIELDS
THAT  SHAPE
TOMORROW 

송실대학교

DISCOVER THE FIELDS THAT SHAPE TOMORROW

관심은 출발점이고, 선택은 앞으로를 결정합니다.

전공은 배움의 이름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송실은 그 방향을 현실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문대학 **10**

- 기독교학과 12
- 국어국문학과 14
- 영어영문학과 16
- 독어독문학과 18
- 불어불문학과 20
- 중어중문학과 22
- 일어일문학과 24
- 철학과 26
- 사학과 28
-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30
-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32
- 스포츠학부 34

법과대학 **36**

- 법학과 38
- 국제법무학과 40

사회과학대학 **42**

- 사회복지학부 44
- 행정학부 46
- 정치외교학과 48
- 정보사회학과 50
- 언론홍보학과 52
- 평생교육학과 54

경제통상대학 **56**

- 경제학과 58
- 글로벌통상학과 60
- 금융경제학과 62
- 국제무역학과 64

경영대학 **66**

- 경영학부 68
- 회계학과 70
- 벤처중소기업학과 72
- 금융학부 74

자연과학대학 **76**

- 수학과 78
- 물리학과 80
- 화학과 82
-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84
- 의생명시스템학부 86

공과대학 **88**

- 화학공학과 90
- 신소재공학과 92
- 전기공학부 94
- 기계공학부 96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98
- 건축학부 100

IT대학 **102**

- 컴퓨터학부 104
- 지능전자공학부 106
- 글로벌미디어학부 108
- 디지털미디어학과 110

AI대학 **112**

- AI소프트웨어학부 114
- 정보보호학과 116

베어드학부대학 **118**

- 자유전공학부 118

차세대반도체학과 **120**

캠퍼스 맵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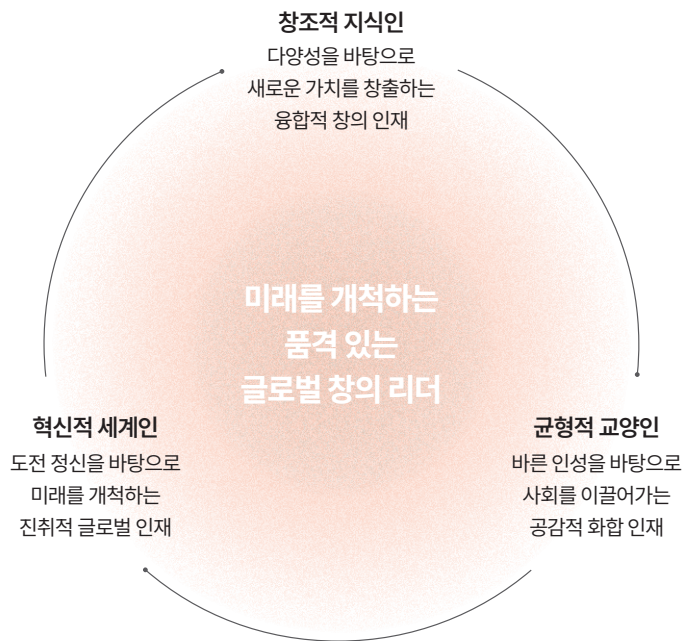
교육이념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진리와 봉사

송실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인재상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건학이념에 따라 모든 학생은 소정의 기독교 과목과
채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목표



기독교적 인성교육

기독교 가치체계와 세계관의
함양을 위한 기독교적
인성교육 실시



융합적 첨단교육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적 첨단교육 실시



봉사적 실천교육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봉사적
실천교육 실시



도전적 세계시민교육

민족 발전과 평화 통일 및
인류의 번영을 선도하는
도전적 세계시민교육 실시



길은, 걸어가는 사람을 닮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따라가고,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송실은 언제나 시대보다 한 걸음 앞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해 왔습니다.
처음이라는 용기로 역사를 만들고, 도전이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수많은 사람의 꿈이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발걸음이 더해질 차례입니다.
송실에서, 당신만의 길을 시작해 보세요.



Way Maker,
나만의 길을 개척하다



더 많은 지식보다 더 깊은 질문이,
더 빠른 답보다 더 넓은 시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송실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키워갑니다.
배움은 그렇게 미래를 먼저 만나는 일이 됩니다.

인문대학

COLLEGE OF HUMANITIES

민족의 정통성 창달과 세계화 선도의 주역

송실대학교 인문대학은 1954년 송실이 서울에서 재건되었을 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단과대학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문대학은 송실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자유인을 양성하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창달하며 세계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배출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개 학과(부)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 정통한 교수진과 함께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예창작전공 #영화예술전공 #스포츠학부

송실의 사관(士官)학과,
열정!

기독교학과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기독교학과는 '진리와 봉사'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송실대학교의 대표 사관학과다. 기독교 진리를 기반으로 인생과 사회를 바라보고 봉사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데 필요한 자질과 학문을 연마하고 있다. 또한 교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독교학과가 자랑하는 독특하고도 활기찬 공동체 문화는 대학 생활을 실천적이고 보람찬 경험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학과 설립	1998년
입학 정원	25명
전임 교원	5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docs.ssu.ac.kr
tel.	02-820-0070

유시온 동문이 경험한

기독교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신학을 넘어선 통합적·융합적 커리큘럼
- ✓ 학생 주도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유연한 교육 시스템
- ✓ 관계 중심의 교육 문화와 인격적 멘토링

기독교학과는 '물음표'이다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나 좁은 진로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과에서 얻은 건강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는 틀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제 전공을 저만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된 길

저는 막연히 소위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삶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심을 정립하기 위해 기독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거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저만의 답도 조금씩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게 기독교학과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며, '사람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만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학과 인재상】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에 입각한 학문을 배우는 인재
- 균형과 깊이를 갖춘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인재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전 영역에 걸쳐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고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인재
- 기독교적 소양을 갖추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영어성경강독, 기독교학서론, 기독교 사회학개론, 기독교 상담심리학, 문화 속 신학읽기
- 2학년** 인문학적 성서 이해, 조직신학, 신약학이해, 구약학이해, 발달심리와 기독교상담, 기독교교육상담,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 한국교회사, 인간·신화·사회
- 3학년** 헬라어, 히브리어, 성서해석학, 창조신앙과 자연과학의 대화, 성격과 적응, 기독교사회학과 문화사회학, 결혼과 가족관계, 기독교사상과 실천의 역사, 기독교윤리
- 4학년** 성서윤리, 신약신학, 구약신학, 신학영어강독, 서양교회사, 성과 사랑의 심리학, 기독교고전세미나, 기독교와 포스트모던 사회학

크리에이터 UN FAO 커뮤니케이션팀 유시온

기독교학과
18학번



흔들림 속에 찾은 나의 목소리

저는 후회 없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자 치열하게 움직였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막연한 생각에 머무르기보다 복수전공과 교환학생을 비롯해 다채로운 활동에 주도적으로 도전하며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더 필사적으로 움직였던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불안에 머무르기보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배우는 선택을 해온 덕분에, 현재는 다양한 위치에서 저만의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필요한 배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과 혐오,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며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을 느끼며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학과는 바로 그 내적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학과에서 고민하고 세운 삶의 가치관은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전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독서, 영어 I,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심리학, 종교학, 논술

진로선택 심화 국어, 고전 읽기

[동아리 및 소모임]

- 학회: 기독교신학회, 心's(기독교심리상담학회), Hash(인문예술사학회)
- 소모임: FC DOCS(축구), BLOOM(댄스), SANTA DOCS(등산), 기독교사회(사회복지), 독스공방(뜨개질), 독스필름(사진), 아리가독(문화 체험)

[학과 특색 프로그램]

- 군종장교 응시 자격
-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 자격: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를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개설

[졸업 후 진로]

진학(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법·신학 및 목회 분야, 상담사, 사회복지사, NGO, 기독교 언론 및 출판,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일반 기업 등

[교수 연구 분야]

성서학, 기독교신학 및 철학, 기독교사회학, 기독교상담심리학

[FAQ]

- Q. 기독교학과에 지원하려면 교회에서 활동한 내용이 많아야 하나요?
- A. 기독교학과에서의 공부는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보다는 학교에서 얼마나 인문학적 소양을 길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문화 속의
한국인

국어국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세계가 한국 문화와 한글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다.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우리의 전통과 얼이 담긴 말과 글을
연구해 우리 민족 문화의 풍요로운 터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전문인을 양성한다. 국어학을 비롯한 일반 언어학을 실생활에
접목해 광고카피 등에 활용하는 강의, 문단 현장에서 작가 또는
평론가로 활동하는 교수님의 현대문학 강의, 고전문학 작품의
현대적 계승과 실생활 응용에 관한 강의 등 학생들을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다.

학과 설립	1980년
입학 정원	27명
전임 교원	6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korlan.ssu.ac.kr
tel.	02-820-0320

송상덕 동문이 경험한

국어국문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유한 교수진
- ✓ 소수 인원의 장점, 끈끈한 학우애
- ✓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커리큘럼

국어국문학과는 '바다'다

국어국문학과 공부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심오한 세계를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학의 심연으로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의 배움은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갖게 해 주며, 이는 삶의 무수한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문학의 길 위에서 성장하는 나

저는 현재 송실대학교 강사로 문학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의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 주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으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고, 학부 시절에 문학사, 시론 등을 공부하며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심도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고전부터 현대까지 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를 이어 갔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학과 인재상]

- 수동적 이해력보다 비판적 사고로 한 단계 더 생각할 수 있는 인재
- 세계 문화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독창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국어연구의 기초, 문학이란 무엇인가, 전공학문의 기초, 전공글쓰기, 한국문학의 이해
- 2학년 어문법론, 국어음운론, 구비문학의 이해, 문학, 놀이, 상상력, 현대소설론, 국어문장구성의 원리, 고전시가론, 국어의미론, 현대시론, 현대명문읽기
- 3학년 고전소설론, 국어의 역사,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고전문학사, 현대시와 미의식, 국어와 인지정보, 한문학의 세계, 중세어 자료와 해석, 현대문학사, 문예사조론
- 4학년 고전문학과 콘텐츠, 담화와 텍스트, 현대소설강독, 고전산문강독, 한국어, 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 현대희곡과 시나리오, 현대문학비평과 실제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사회·문화, 한문Ⅰ, 논술
진로선택 심화 국어, 고전 읽기, 한문Ⅱ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송상덕
국어국문학과
08학번

최고의 교육 환경과 돈독한 학우애

국어국문학과는 인문학 분야의 최고 학과로 우수한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자랑합니다. 탁월한 연구 업적을 보유하신 교수님들로부터 최신 학문 동향을 배울 수 있죠. 학생 수가 많지 않아 학우 간 유대감도 매우 깊습니다. 세미나, 학회, 학술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값진 추억을 쌓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라면? 열린 마음으로 생각 나눌 것

작가들은 특정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그 말을 해야만 하기에 문학을 창작합니다. 그렇다면 문학을 읽는 것은 작가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는 일과 같습니다. 문학을 공부하며 사회적 갈등, 빈부격차, 우울감과 자살 등의 문제의식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질문하고, 해법을 모색하며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는 자세야말로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동아리 및 소모임]

현대문학학회, 언어학회, 민속문화학회, 한국어문화교육콘텐츠학회

[학과 특색 프로그램]

연 1회 학술답사, 작가초청강연회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교사, 방송작가, 시인, 소설가, 기자, PD, 편집자, 연구원 등

[교수 연구 분야]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국어통사론, 국어음운론, 국어의미론, 한국어교육

[FAQ]

Q.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

A. 국어국문학과뿐 아니라 모든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독서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뿐 아니라 지원하는 전공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국어국문학과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유한한 수단으로 무한을 꿈꾸는
지식, 지혜, 그리고 통찰력

영어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는 1954년 서울캠퍼스 재건 이후 현재까지
숭실대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학과다. 영미문학,
영어학, 영어교육을 전공한 국제적인 수준의 교수진 7명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어 인재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장학금 외에도 교수장학금과 동문회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영어권 해외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과 활동을 제공한다.

학과 설립	1954년
입학 정원	66명
전임 교원	7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englan.ssu.ac.kr
tel.	02-820-0330

박형빈 동문이 경험한

영어영문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교수진의 세심한 진로 상담
- ✓ 해외를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지원
- ✓ 다채로운 소모임과 학과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영어영문학과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이다

바쁘게 세상을 취재하다 보면 내가 왜 글을 쓰는지, 무엇을 위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운 질문과 문장들이 다시 저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균형과 열정으로 채운 대학 시절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면서도, 학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했었지만, 군 전역 후 3학년이던 2017년 제가 학과에 소모임 '문학회'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선후배 및 동기들과 함께 문학 작품을 주제로
토론하고 해석을 공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과 소모임인
원어연극부 활동도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비록 배우로 연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스태프로서 하나의 완성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땀 흘려
준비했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졸업을 앞두고는 입사 준비를 위해 학교
언론고시반에서 공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학과 인재상]

- 글로벌 시대의 공통어인 영어 및 영어 어문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적 인재
- 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교류와 문화횡단 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
- 언어예술 및 문화 콘텐츠 창작 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문학의 세계, 영어학개론, 영국문학의 이해, 영어의 이해, 영문정독연습
- 2학년** 미국문학의 이해, 영어발음법, 영문법의 이해, 문학비평, 19세기 영미시, Essential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영어어휘분석, 런던과 도시문학, 해석과 번역, 미국낭만주의와 사실주의, Essential Writing and Editing Skills
- 3학년** 영어교육론, 기후환경소설, 빅데이터 영어학, 현대미국소설, 영어문장분석, 미국소설특강, 유토피아, 현대 영미시, 영미 문학의 뿌리: 성경 읽기, Advanced Essay Composition, Advanced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 4학년** 영어담화분석, 르네상스와 셰익스피어, 영어와 사회, Business English, 창의적문제해결(캡스톤디자인), 영어의미분석, 미국학 특강, 영미아동청소년문학, 영어 커리어 디자인

연합뉴스
기자

박형빈

영어영문학과
13학번

문장 속에서 기자로 자라다

영어영문학과에서의 시간은 제가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기자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와 맥락을 깊이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에서 이러한 훈련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계에는 다양한 전공 출신의 기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저는 인문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언어를 다루고 세상을 해석해 본 경험이 큰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어영문학과 졸업생들은 언론뿐 아니라 교육, 문화, 기획,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덕분에 더 유연하고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실에서 키운 시선과 목소리

영어영문학과는 '송실'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읽는 눈과 목소리를 키우는 곳입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선후배 및 동기들과의 교류 속에서 사고의 깊이를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겁니다. 문학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응원합니다.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영어 I,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 II,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진로선택 진로영어,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 읽기

[동아리 및 소모임]

원어연극공연 소모임, 영미소설학회, 고전 읽기 모임, 밴드 소모임

[학과 특색 프로그램]

영어권 국가 탐방, 동문 초청 커리어 토크,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대학총장, 영화전문저널 편집장, 블록체인 전문매체 대표이사, 장관 특보, 대기업 상무이사, 방송국 프로듀서, 아나운서, 영화감독 등 다수

[취득 가능 자격증]

교직과정 이수 시 영어과 2급 정교사 자격증

[졸업 후 진로]

교육자, 외교관, 번역가, 방송·언론인, 공연기획자, 공무원, 외국계 기업, 금융권, 항공사, 기업의 국제 부문 담당, NGO, 대학원 진학 등

[교수 연구 분야]

- 어학: 영어통사론, 비교통사론, 생성언어학 이론, 음운론, 음성학, 제2언어습득, 신경언어학, 응용언어학, 영어평가, 영어교육, 이중언어교육
- 문학: 현대 미국 소설, 베트남 전쟁, 미국 서부극(Western), 전쟁문학, 젠더, 미국문화, 르네상스 영문학과 문화, 셰익스피어, 공동체, 생태학, 교육, 불평등의 문제, 미국학, 문학과 경영, 기업문화, 미국소설(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역사(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경영학(조직행동론), 19세기 영국소설, 현대 영국소설, 대중소설, 남성성, 공간, 기후변화

[FAQ]

Q. 영어 성적이 뛰어난 편이 아니어도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할 수 있나요?

A. 영어 구사 능력은 중요하지만, 영어영문학과는 단순히 영어 교육에만 초점을 둔 학과가 아닙니다. 영문학과 인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는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권 지역 전문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인재

독어독문학과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1980년에 설립된 독어독문학과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서 국제적 영향력이 큰 독일과 한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인재, 독일어권 지역 전문가,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독일어 학습과 독어권의 지역 전문 지식을 집중적으로 배양하며, 독어학, 독문학, 독일 사회 및 문화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공역량 강화 로드맵을 개발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춰 인문학적 지식, 독일어 구사 능력,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80년
입학 정원	27명
전임 교원	5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gerlan.ssu.ac.kr
tel.	02-820-0350

정황용 동문이 경험한

독어독문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 ✓ 학생회장 활동으로 리더십과 팀워크 역량 개발
- ✓ 독일어 능력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 습득

독어독문학과는 '기회의 문'이다

독어독문학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마인드셋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리더십과 팀워크를 배웠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들이 지금 맡은 직무(HRBP)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독어독문학과에서 HRBP까지, 글로벌 인재로의 여정

저는 독어독문학과 10학번으로, 졸업 후 한국웨스트에서 Human Resource Business Partner(HRBP)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기업이며, 공압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경영진과 협력해 글로벌 & 로컬 인사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와 직원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HR 관점에서 제안과 솔루션을 제시해 기업의 비즈니스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며 다양한 사고방식과 인간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고, 이는 HR 업무에서 직원들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큰 자산이

[학과 인재상]

-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인재
- 독일어 구사 능력과 독일어권 전문 지식을 갖춘 독일어권 지역 전문가
- 유럽연합 및 국제사회 발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기초독회화1·2, 집중독일어1·2, 독일명작의 이해
- 2학년 초급독회화1·2, 중급독문법, 독작문, ZD독일어-B1, 독문학개론, 독일동화와 민담, 독어학입문, 세계언어 속의 독일어, 독일지역학
- 3학년 중급독회화1·2, 시사독일어, 독문학비평, 독일소설, 독일명사의 이해, 독일드라마, 독일의 언어와 문화, 번역의 이론 및 실제, 복구신화와 문화콘텐츠
- 4학년 ZD독일어-B2, 괴테와 파우스트, 현대독문학, 독일아동문학번역, 독일영화와 문화, 응용독어학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영어 I,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독일어 I
진로선택 독일어 II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어 능력을 개발하고 교환학생으로 독일에서 생활하며 쌓은 경험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이 HRBP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개발할 기회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개발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문학적 지식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 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독어독문학은 커뮤니케이션,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문화적 이해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문입니다. 졸업생들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길 바랍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우리 학과에서 익힌 학습 능력과 열정을 발판 삼아 계속해서 전진한다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웨스트 HRBP 정황용

독어독문학과
10학번

【 동아리 및 소모임 】

독일 교환학생들과의 탄뎀 프로그램(T.A.S.), 독일문학 및 영화감상 소모임(A.D.T.), 독일 현대문학 소모임(Große Leute), 원어연극 동아리(Die Bühne)

【 학과 특색 프로그램 】

독일어국제공인자격증 시험 준비 특강

【 취득 가능 자격증 】

Goethe Zertifikat(주한독일문화원),
Telc(어학원), TestDaF(TestDaF 연구소)

【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 2016년 독일문화원 주최 'Hallo, Deutschland!' 경연대회 1위
- 2016년, 2018~2020년, 2023년 한국장학재단 인문 100년 장학금 수주
- 2021년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 주관 제45차 모의유엔총회 은상 수상
- 2022년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교환학생 프로그램 장학생 선정
- 2021~2024년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학부생 등록금 장학생 선정
- 2024년 한국독어독문학회 불릭움블릭 대학생 소논문 공모전 수상
- 2024년 오스트리아 관광청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에서 우수기자(1위)로 선정

【 졸업 후 진로 】

독일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 독일 진출 국내 기업, 무역 통상 분야, 국제기구, 진학(대학원, 유학), 번역가, 출판, 언론, 방송, 문화콘텐츠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항공사 및 여행사, 공기업, 교육공무원 등

【 교수 연구 분야 】

18세기 독문학, 세기전환기 독문학, 현대독문학, 비교문학, 통사론, 언어와 문화, 번역학, 언어교수학, 문화학, 독일어권 지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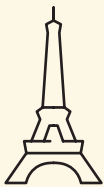
【 FAQ 】

- Q.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할 수 있나요?
- A.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하는지, 어떤 점에서 본인이 독어독문학과에 적합한 인재인지,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관심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 주면 좋습니다.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 지역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어문학과 문화예술의 심화와 응용

불어불문학과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와 프랑스어권의 언어, 문학,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프랑코포니 문학과 언어를 통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을 아우르며 다양한 삶의 양태와 가치관을 교류하는 장을 조성한다. 그리고 프랑스 문학, 정치, 경제, 외교, 시사 문제 등의 실용적인 학습을 통해 고급 수준의 어학 능력과 문화적 안목을 함양한다. 불어불문학과는 다양한 과목을 통해 학제 간 융합과 전공 심화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예술과 문학의 교차학문적 연구, 프랑스어권의 역사와 문화 비평, 유럽의 일상 연구, 소설·연극·시 등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과 비평은 지금 그리고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학과 설립	1980년
입학 정원	26명
전임 교원	6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france.ssu.ac.kr
tel.	02-820-0360

신미영 동문이 경험한

불어불문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프랑스 연극 전공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 및 실습
- ✓ 연례행사를 통한 동문 네트워킹
- ✓ 프랑스 원어 연극팀 활동

불어불문학과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전공을 선택한 초반에는 프랑스어로 된 뉴스 번역에 막막함을 느끼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불어 동사변형 외우기를 잘하지 못해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다양한 시각을 키워 주는 커리큘럼과 선배들의 지원으로 인해 프랑스어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에서 꿈을 펼치다

저는 졸업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 France에서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프랑스 고등교육 홍보, 유학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영사면접, 프랑스 국립대학 입학 전형 및 면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다른 학과로 전공을 변경할 생각도 있었지만, 1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어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프랑스 문학, 언어학, 사회, 문화,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여러 나라에 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학과 인재상]

- 학문적·실천적·능동적인 종합 전문 인재
- 이론적 교육과 실용적 학습이 조화된 인재
- 시대에 발맞추는 어문학 교육을 받은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프랑스 명작의 이해, 프랑스어 문법과 읽기, 프랑스어실습1·2, 프랑스어 문법과 활용, 프랑스 역사와 문화
- 2학년** 프랑스생활회화1·2, 멀티미디어프랑스어, 중급프랑스어문법1·2, 프랑스 시와 상송, 프랑스 문학과 예술, 프랑스문학사, 프랑스어작문1
- 3학년** 프랑스소설, 프랑스회화B1-1, 프랑스어작문2, 프랑스연극, 고급프랑스어작문, 프랑스회화B1-2, 프랑스상상력, 프랑스어권문학세미나, 캡스톤디자인, 프랑스어와 언어학
- 4학년** 초현실주의와 현대시, 프랑스문학비평, 프랑스문학과 번역, 프랑스영화와 시사, 프랑스작가론, 시사프랑스어, 프랑스어권현대사회읽기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수업, 프랑스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사회 현안, 예술 작품 등을 다루는 수업을 통해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졸업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활용하는 진로를 택하게 되었고,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 줄 열쇠

프랑스어는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언어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 국제기구 등에서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요리, 럭셔리 매니지먼트, 물류,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거나 불어불문학을 전공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실력을 키우고, 관심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삼아 학업에 매진한다면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환 및 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 속 적응력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 가길 바랍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담당관

신미영

불어불문학과
1학년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영어I,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프랑스어I

진로선택 프랑스어II

[동아리 및 소모임]

L'attirance(원어연극 소모임), Parler(초보 프랑스어 회화 소모임), 프랑스문화탐방 소모임, DELF 자격증 준비 소모임, Café Conte(프랑스 동화 읽기), FRANSSU(번역출판)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원어연극 상연: 매년 가을 프랑스어 연극 및 뮤지컬 상연. 프랑스어대사를 직접 외우고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어 실력을 높이며, 선배가 연출하고 후배가 연기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과 화합하고 결정하는 능력 함양
- 학·석·박사 및 타 학과 연계 학술대회: 매년 2회(하계/동계) 개최하는 학술대회. 문학에 대한 학술적인 토의를 통해 타 학과와 융합
- 졸업생 선배와의 만남: 매년 다양한 진로로 진출한 졸업생 선배를 초청해 강연 프로그램 진행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2018년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 장학금 수주
- 2019년 한국장학재단 연구장학금 수주
- 2020년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 장학금 수주
- 2021년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 장학금 수주
- 2022년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 장학금 수주
- 2024년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 장학금 수주
- 2025년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 장학금 수주

[취득 가능 자격증]

DELF/DALF(알리앙스 프랑스즈 주관), TCF(프랑스 국제교육연구센터 CIEP 주관), 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주관)

[졸업 후 진로]

통역사 및 번역가, 프랑스어권 국내외 기업, 항공사, 대사관, 캠퍼스프랑스, 소믈리에, 예술 관련 사무국, 작가, 국제 기구, 출판사, 국립 예술 기관 공연 기획, 언론매체, 광고업계, 교수, 해외 영업, 진학(대학원 및 유학) 등

[교수 연구 분야]

프랑스 소설 및 프랑스 문학비평, 프랑스 현대 시문학 및 문예학, 프랑스어권 소설 및 문학, 문화 상상력, 프랑스 연극, 프랑스 언어학, 화용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중어중문학과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중국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중추적 위상과 다원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지정학적 인접국으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중어중문학과는 역동적인 세계 무대에서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로서, 미래 지향적 교류를 선도할 전문 역량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을 연마하고, 중국 사회와 문화적 맥락을 폭넓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시각을 배양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감각을 균형 있게 체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학과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93년
입학 정원	25명
전임 교원	6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chilan.ssu.ac.kr
tel.	02-820-0390

김정수 동문이 경험한

중어중문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도서관을 누비며 전공 서적 탐독
- ✓ 훌륭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
- ✓ 학문의 길에 매진하게 만든 커리큘럼

중어중문학과는 '박차'다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저에게 '박차'와 같은 존재입니다. 박차는 달리는 말이 더 빨리 달리도록 자극하기 위해 승마 구두 뒤꿈치에 다는 톱니 모양의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힘을 쓸 때 '박차를 가하다'라고 하지요. 우리 학과는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제 마음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학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며, 이는 제가 학문의 길을 가는 데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중문학과에서 교수로, 송실이 키워 준 학문의 열정

저는 중어중문학과 93학번으로, 현재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문을 좋아하고 잘해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실제로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의 언어, 문학,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부에서 고전부터 현대 소설, 현대 시, 고전 소설 등을 배우고 섭렵하면서 점차 현대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학과 인재상]

- 실사구시에 기반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배움을 실천하고 나눌 줄 아는 전인적 지성인
- '기초-심화-적용' 단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중국어권 지역에서 활동할 전문인
- 동아시아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국제적 교양인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기초중어Ⅰ·Ⅱ, 초급중어회화작문Ⅰ·Ⅱ, 중국문화의지평
- 2학년 중급중어강독, 중급중어회화, 중급중어작문, 중국어문법의기초, 중국어학의이해, 성어로배우는문언문, HSK중국어, 중국문화의지평, 중국서정문학의세계, 중국고전과현대생활
- 3학년 고급중어강독, 고급중어회화, 중국어문형과실용구문, 중국현대문학의세계, 중국서사문학의세계, 중국소설과스토리텔링, 인물로배우는중국문학사, 중국현대문화의세계, 한자로보는중국문화, 중국지역학개론
- 4학년 중한번역실습1, 중한번역실습2, 시청각중국어, 영상으로보는중국, 중국어로보는사회, 경제통상중국어, 중국의문화산업과미디어, 중국지역조사실습

중국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하며, 동시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죠. 이런 시기에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모하는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편견 없이 배우려는 열린 자세는 중문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정수

중어중문학과
93학번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영어Ⅰ,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중국어Ⅰ, 한문Ⅰ

진로선택 중국어Ⅱ, 한문Ⅱ

[동아리 및 소모임]

- 중화로(중국 문화 탐구 소모임)
- 화영담(중국 영화 감상 소모임)
- HSK소모임(중국어 자격증 준비 소모임)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중국어 번역 경진대회
- 중국어 연설문 발표대회
- 중국 산업·문화 현장 탐방
- 중국 문화콘텐츠 경연대회
- 창의적 문제해결(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 성과 전시회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김정수(93학번) 전북대 전임교수
- 구문규(93학번) 강릉원주대 전임교수
- 민영기(03학번) 금축인터내셔널 대표
- 천주혁(07학번) 구다이글로벌 '조선미녀' 대표

[취득 가능 자격증]

- 교직과정 이수 시 2급 정교사 자격증
- HSK 중국어능력시험(중국 교육부 공인)
- OPIc 중국어(주관: ACTFL)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졸업 후 진로]

교육·연구 분야, 통번역 분야, 국제통상 분야, 방송·문화콘텐츠 분야, 관광·항공 분야

[교수 연구 분야]

중국어학, 중한번역학, 중국문학, 중국문화학, 중국지역학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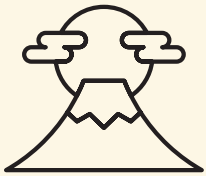
Q. 중어중문학과는 반드시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들만 지원해야 하나요?

A. 입학 전 중국어 실력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학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언어 능력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과 탐구 열정, 낯선 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시각입니다. 중어중문학과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체계적인 외교·통상 및
문화 전문가 교육

일어일문학과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동아시아의 인적·사회적 연대가 더욱더 긴밀해지는 가운데, 일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재가 절실한 시대다. 일어일문학과는 전문적인 일본어 교육을 통해 일본 전문가로서 기반을 마련하며, 한일 교류의 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어 통번역 전문가 및 문화의 글로벌화에 발맞춘 일본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학을 비롯한 일본의 역사, 문화, 문학, 사회, 비즈니스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학과 설립	1994년
입학 정원	31명
전임 교원	5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japanstu.ssu.ac.kr
tel.	02-820-0530

신용철 동문이 경험한

일어일문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환학생 기회
- ✓ 전공 서적이 풍부한 학과 서고와 도서관
- ✓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수진

일어일문학과는 '든든한 후원자'다

송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는 저를 성장시켜 주었고,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주었으며,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강의 기회를 주었고, 교수님들은 등록금 이상의 가치로 학생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학과는 제가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배움이 밑거름이 되다

문자와 언어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레 송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 진학했고, 일본 언어와 문화에 빠져들며 일문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부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온 경험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며 자신감도 얻고, 언어의 진수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더 깊이 연구해 지식을 체계화하고 싶다는 열망에 대학원에 진학했고, 운 좋게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매진하던 학부, 석사, 박사 시절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지금의 저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인재상]

- 기업형 글로벌 인재: 국내 기업 및 국내 진출 일본 기업, 일본 내 글로벌 기업 및 일본 기업,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 미래형 글로벌 인재: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가
- 통번역 글로벌 인재: 일본어 통번역 전문가
- 후학 양성 인재: 언어와 지성을 갖춘 연구·교육 전문가

[주요 커리큘럼]

- 기초 일본어 과목: 초급전공일본어, 시청각일본어, 기본일본어작문, 초급일본어회화, 중급일본어회화, 기초일본어문법, 영상일본어 등
- 일본어학 과목: 일본어문어문법, 일본어학의 이해, 일본어번역연습, 현대일본어문법론, 일본어학특강, 일본어문헌강독 등
- 일본 문학·문화과목: 일본문학사, 일본고전문학과 문학, 일본문학번역과 감상, 일본스크린문학론, 일본문학문화특강 등
- 기업형: 실용일본어작문, 비즈니스실용일본어회화, 일본사회론, 일본대중문화론, 한일커뮤니케이션론 등
- 미래형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가: 영상일본어, 일본문학사, 일본대중문화론, 일본문학번역과 감상, 일본스크린문학론, 일본비즈니스문학특강 등

국립한밭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신웅철

일어일문학과
02학번

든든한 뿌리 같은 학과 경쟁력

체계적으로 짜인 커리큘럼 덕분에 일본어 실력을 균형 있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도서관과 학과 서고인데, 전공 관련 서적이 풍성하게 갖춰져 있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교수님들은 일본어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 애쓰시고,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교수님들 덕분에 동문들은 교직, 학계는 물론 일본계 기업, 항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승실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며 성장하길

승실에는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과 기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과의 상담, 희망도서 신청 등 작은 것부터 경험해 보세요! 두려움 없이 기회를 마음껏 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통번역 전문가:** 일본어학의 이해, 일본어문어문법, 현대일본어문법, 일본어번역연습, 일본어학특강, 일본문학번역과 감상, 한일커뮤니케이션론 등
- **후학 양성형 연구·교육 전문가:** 일본어학의 이해, 일본어문어문법, 현대일본어문법론, 일본어번역연습, 일본어학특강, 일본대중문화론, 일본문학번역과 감상, 일본스크린문학론 등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영어 I,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일본어 I, 한문 I

진로선택 일본어 II, 한문 II

[동아리 및 소모임]

키라키라(JLPT 대비), 페라페라(일본어 회화), 일본문화감상연구회, 오택은(일본문화탐구), 원어연극부(일본어 원어연극)

[학과 특색 프로그램]

교환학생, 학과 장학금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국내 IT/게임회사 취업:** LG디스플레이, 카카오톡엔터프라이즈, 크래프톤(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네오플(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일본 기업의 자회사
- **일본 대기업 취업:** NTT COMMUNICATIONS, AEON FINANCIAL SERVICE, KYOWA HAKKO KIRIN, XYMAX
- **학계:** 상명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연구소 연구원

[취득 가능 자격증]

JLPT·JPT(일본어 능력 시험), TCT(번역능력인증시험), ITT(통역시험), 관광통역안내사

[졸업 후 진로]

국내 기업(무역회사, 항공사, 여행사), 국내 일본계 기업 및 일본 현지 기업, 문화콘텐츠 및 게임 관련 기업, 통역사 및 번역사, 일본 관련 연구소 및 일본어 교육기관, 국내 및 일본 대학원 진학 등

[교수 연구 분야]

- 현대일본어문법연구, 일한 대조연구
- 일본어 사적연구, 한일한문혼독비교연구
- 일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일본어 교육
- 일본고전문학연구, 한일비교문학연구

통찰력, 리더십,
깊은 성찰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학문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분야다.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분야의 학문적 기초로서 수학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철학은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하여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모든 학문의 기반이 된다. 1954년 송실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재건 시기에 설립된 철학과는 본교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학과다. 학생들이 철학적인 전문성을 함께 갖추며, 시대의 흐름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고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54년
입학 정원	27명
전임 교원	5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philo.ssu.ac.kr
tel.	02-820-0370

김재현 동문이 경험한

철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생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 ✓ 철학을 현실과 연결하는 실천 중심 교육
- ✓ 전통과 미래를 함께 배우는 열린 철학과

철학과는 '서론'이다

서론은 한 편의 글 전체를 아우르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부분입니다. 저에게 철학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철학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배웠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공자, 맹자, 주자, 칸트, 니체, 마르크스, 푸코, 정약용 등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처럼 말입니다.

플라톤에서 시작된 꿈

고등학교 시절, 윤리와 사상 수업에서 처음 만난 플라톤 철학은 저에게 큰 흥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정치철학과 윤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책을 읽으며 철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고, 단순히 철학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저만의 철학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철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학과 인재상]

- 철학적 전문성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망하고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바람직한 지성인
- 후학양성 인재: 언어와 지성을 갖춘 연구·교육전문가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철학입문, 문화와 철학, 논리와 사고, 동양의 지혜, 윤리적 문제해결
2학년 서양고대철학, 동양고중세철학, 기호논리학, 철학적글쓰기, 윤리이론, 서양중세철학, 동양근현대철학, 예술철학
3학년 한국철학사, 회람철학특강, 인식론, 문학과철학, 근현대독일철학, 분석철학, 현상학과해석학, 노장사상, 프랑스철학, 미학특강
4학년 동양미학, 영미철학특강, 사회정치철학, 기후철학, 형이상학, 동아시아철학특강, 현대유럽철학특강, AI윤리

[선택교과 가이드]

- 일반선택 수학 I, 영어 I, 세계사,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논리학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고전 읽기, 고전과 윤리

새움소프트 AI 개발자 김재현

철학과 16학번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한 대학생할

1, 2학년 때의 저는 철학에 푹 빠져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 자체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지만, 철학만큼은 너무 재미있어서 교양보다 전공 수업을 더 많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군 전역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그 열정은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힘을 기르는 곳

철학과를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학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은 정답을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하는 힘과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철학과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아리 및 소모임]

송철의 변명(철학과 공식 유튜브 소모임), 필라이트(밴드 소모임), 필독(신우회), 알펜호른(시창작 소모임), FC ARETE(축구 소모임), SWP(영어 원서 독서 소모임)

[학과 특색 프로그램]

서평제, 초성제, 진로취업프로그램, 송실철학특강, 전문학회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2016~2019년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 장학금 장학생

[취득 가능 자격증]

중등교사 2급 자격증

[졸업 후 진로]

교수, 교사, 학자, 연구원, 대학원 진학, 작가, 평론가, 감독, 출판, 예술문화계, 법조인 등

[교수 연구 분야]

심리철학, 과학철학, 현대프랑스철학, 예술철학, 서양고대철학, 기후철학, 동양철학, 한국철학

[FAQ]

Q. 21세기에도 철학이 필요한가요?

A.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동시에 궁극적인 학문입니다. 급변하는 21세기 한국 사회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성공적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철학적 사고와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단순한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인간보다는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과 세계의 본원적 속성 및
현대 세계의 지향점을 성찰할 수 있는
21세기 지식인과 사회적 리더 양성

사학과

DEPARTMENT OF HISTORY



사학과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기 위해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사학과 전공은 역사학 이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와 지식을 탐구한다. 사학과에서는 강의실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 학습 및 외국어 문헌 연구 등을 통해 폭넓은 지식과 어학 실력을 함양할 수 있다. 특히 고고학과 한국 근현대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최병현 한국학술원 회원 등 많은 동문이 학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54년
입학 정원	27명
전임 교원	6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history.ssu.ac.kr
tel.	02-820-0380

조호연 동문이 경험한

사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능력을 키우는 학과
- ✓ 한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육
- ✓ 세계로 뻗어 나가는 연구와 진로의 가능성

사학과는 '동지'이다

사학과는 저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학부 시절의 배움은 일본 유학과 대학원 진학, 그리고 지금의 연구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교수님과 선배배들께서는 늘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학과는 저에게 세상으로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곳인 동시에, 언제나 돌아와 쉴 수 있는 동지와 같은 곳입니다.

과거를 넘어 인간을 탐구하는 역사학의 매력

고등학생 때부터 역사 과목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사를 넘어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역사학을 통해 사회와 인간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사학과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를 폭넓게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고학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과 인재상]

- 전문 연구 및 교수 역량을 갖춘 역사학자
- 인류 문명과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인문학자
- 역사 콘텐츠를 기획, 개발할 수 있는 창조적 전문가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한국사입문, 중국사입문, 서양사입문, 고고학입문, 한국고고학개론
- 2학년**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한국고대사, 한국사강독(한문), 일본사, 한국미술사, 중국고고학개론,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한국중세사
- 3학년** 한국근세사, 역사콘텐츠와 대중문화, 서양근대사, 동양사강독(한자), 문화유산학, 동양근대사, 한국대외관계사, 역사학의 이론과 방법, 서양사강독(영어), 한국역사관의 이해, AI와 디지털역사연구, 창의적문제해결(캡스톤디자인), 한국근대사
- 4학년** 박물관학, 한국현대사, 동양현대사, 서양현대사, 한국독립운동사, 창의적문제해결(캡스톤디자인), 동양미술사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조호연

사학과 10학번

학과 활동 속에서 찾은 또 다른 배움

재학 시절 저는 학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현재의 서양사연구회 전신인 '서양사학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의 전공 학습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 과정을 이수했으며, 당시 새롭게 도입된 '동아시아사' 과목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도 제게 작은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학과가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역량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방대한 정보와 지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시대일수록 무엇이 사실인지,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은 단순히 과거를 암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자료와 관점을 비교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판단을 유보한 채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학적 사고방식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상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면 사학과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숭실대학교 사학과에서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 연구자로 살아가는 데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윤리와 사상, 중국어Ⅰ, 일본어Ⅰ, 한문Ⅰ

진로선택 한문Ⅱ, 고전과 윤리

[동아리 및 소모임]

- 학회: 미술사학회, 서양사학회, 아시아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전근대사학회
- 소모임: 소리여울(밴드), 씨알(글쓰기), 화랑(스포츠)

[학과 특색 프로그램]

춘·추계 정기 학술답사, 해외 학술답사, 국내외 유적 발굴조사 현장 실습,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숭실사학(崇實史學)', 발간, 교직 이수(역사 2급 정교사), 강독 수업을 통한 사료 연구 및 외국어 능력 향상, 동문 튜터와 취업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운영

[취득 가능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 학예사

[졸업 후 진로]

진학(대학원, 유학), 교사,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관(연구원, 학예사, 큐레이터), 언론계, IT 산업, 문화 콘텐츠 분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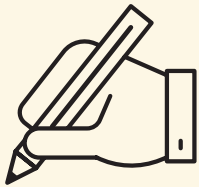
[교수 연구 분야]

동양고대사, 동양고고학, 한국중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한국고고학, 동양미술사, 서양근대사, 서양현대사

열정문창!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MAJOR IN
CREATIVE WRITING



1998년 개설된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은 창작 중심의 전공 수업과 다양한 실습 활동을 지원하며, 동시대 많은 작가, 창작자를 배출해온 수준 높은 문학·예술 창작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작가 중심 교수자의 언어 문학 창작(시, 소설, 희곡, 아동·청소년문학, 비평 등) 교육을 우선으로 문예창작 능력을 향상하고, 영상 콘텐츠 문학 창작(드라마 창작, 영상 시나리오, 그림책 제작실습 등) 교육으로 창작의 영역을 넓히며, 나아가 AI 기술과 예술 매체 교육(게임과서사, AI와매체서사, 현대예술과문학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 창작과 예술 창작 교육을 선도한다. 또한 동시대성과 예술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과목 개발로 뉴미디어 창작 환경에 걸맞은, 현장 중심의 문학·예술 콘텐츠 창작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작 실습 프로그램(문학워크숍, 문학강연회, 문창페스타, 썸머·윈터 캠프 등)을 통해 창작,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문예창작전공실습실을 활용한 창작 스터디 모임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창의적인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98년
입학 정원	25명
전임 교원	4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creativewriting.ssu.ac.kr
tel.	02-820-0043

김소형 동문이 경험한

문예창작전공의 특별함 3가지

- ✓ 창작 언어의 공유와 체계화
- ✓ 창작 과정의 시간 압축 효과
- ✓ '누구와 함께 배우는가'가 만드는 창작의 방향성

문예창작전공은 '작은 상자'이다

바스코 포파(Vasko Popa)의 '작은 상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젖니와 작은 키, 그리고 작은 공허가 들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방과 땅이 있고, 심지어 그 상자가 존재하던 세계마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상자는 결국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엄청나게 작은 전 세계입니다. 그것은 쉽게 넣을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으며,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송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을 하나의 작은 상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자 자체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안에 거대한 세계를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좋아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발견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문예창작학과가 다소 생소한 전공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대학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선한 놀라움으로 다가왔고, 그 계기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만큼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학과 인재상]

- 한국 문학계를 선도하는 창작 인재
-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문학교육과 출판 분야 인재
- 뉴미디어와 AI기술 매체 시대의 디지털 창작 능력을 갖춘 문화예술계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운문작법, 산문작법, 시창작기초, 문장과리듬, 세계문학강독
- 2학년 시론, 소설론, 희곡론, 소설창작기초, AI예술과매체서사, 시창작, 소설창작, 희곡창작, 문예사조
- 3학년 비평론, 비평실습, 영상작품분석, 영상대본창작실습, 아동청소년문학
- 4학년 시·소설세미나, 동시대문학읽기, 게임과 서사, 그림책제작실습, 현대예술과 문학콘텐츠, 출판편집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연극, 한문 I, 논리학, 논술
진로선택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시인 김소형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07학번



도서관에서 머물던 대학 생활

저는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고, 중앙도서관에는 늘 정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코너를 돌면 늘 마주치던 동기나 선배가 있었고, 축제처럼 시끌벅적한 날에도 저는 도서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했고, 가끔은 '여기, 다 내 자리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더 멀리 쓰는 법

제가 좋아하는 시인 메리 올리버의 『시 쓰기 안내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창작 교실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글쓰기에 꼭 필요한 언어를 익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모른다면 서로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도 더디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둘째, 창작 교실의 구성원들은 이 공통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그마치 몇 년의 시간을요. 저 역시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무리 성실한 작가라도 혼자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깨닫는 것보다, 좋은 교육과 함께하는 동료, 훌륭한 스승을 통해 훨씬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정말 유용하고도 놀라운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문예창작 강의를 하며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것도, 결국 제가 받았던 좋은 가르침과 영향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아리 및 소모임]

빠(시), 호두(소설), 에고(영화시나리오), 루키즈(게임시나리오)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정기문학강연회: 기성작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문학적 시야와 창작 방향을 넓히는 강연 프로그램
- 문학 워크숍: 지역을 탐방하며 일정 기간 함께 체류하는 창작 프로그램으로, 작가 강연·작품 발표·합평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써머창작캠프: 등단 작가를 통해 시·소설의 창작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캠프
- 윈터취업캠프: 창작과 현업을 병행하는 작가들을 초청해 문학 전공자의 진로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나누는 캠프
- 숭실 문학 페스타: 한 해의 창작 성과를 발표·낭독·전시·공연으로 선보이는 문학 축제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최근 5년간 학과 우수 인재>

- 2021년: 김멜라(O2학번) 문지문학상 수상, 젊은작가대상 수상, 예소연(11학번) 현대문학 소설부문 수상
- 2022년: 김멜라(O2학번) 이효석문학상 수상, 이홍도(11학번) 두산강경예술상 수상

- 2023년: 김혜린(14학번) 문화일보 시 부문 수상, 예소연(11학번) 문지문학상 수상
- 2024년: 윤단(16학번) 문학과사회 소설 부문 수상
- 2025년: 예소연(11학번) 이상문학상 수상
- 2026년: 김채원(대학원석사) 젊은작가대상 수상

[취득 가능 자격증]

독서논술지도사(한국자격평생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KBS한국어진흥원)

[졸업 후 진로]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드라마 및 영화 시나리오 작가, 게임 스토리텔러 및 기획자, 출판 편집 및 기획자, 카피라이터, 방송 구성작가, 방송 PD, 라디오 작가 등

[교수 연구 분야]

소설 창작, 시 창작, 희곡창작, 문예이론, 매체철학, 스토리텔링, AI 문학, 공연예술

목숨, 깊이, 개성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MAJOR IN
FILM ARTS



2015년 개설된 송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은 내러티브 중심의 현장형 영화 제작 교육을 목표로 한다. 문학, 연극, 무용, 건축, 음악, 회화 등을 하나로 묶어놓은 종합예술체인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학생들은 창작자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예술적이고 산업적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융합적인 비주얼 스토리텔링 능력을 배양하며, 미래지향적인 영화 제작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학과 설립	2015년
입학 정원	38명
전임 교원	3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ssfilm.ssu.ac.kr
tel.	02-828-7180

오우리 동문이 경험한

영화예술전공의 특별함 3가지

- ✓ 제작 중심의 실천형 교육 시스템
- ✓ 크리틱을 통한 밀도 높은 피드백 문화
- ✓ 협업 기반의 현장형 학습 구조

영화예술전공은 '리허설'이다

정답이 없는 영화 제작 현장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실무 중심 커리큘럼의 확신

배우를 지망하는 많은 친구들이 연극영화과를 선택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입시 준비 시절, 독립영화 작업을 짧게나마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매체 연기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영화예술전공은 영화 제작 실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배움을 얻기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인재상]

영화에 목숨을 걸고, 영화의 깊이를 알고, 누구보다 개성이 있는 사람

[주요 커리큘럼]

2·3학년 크리틱 수업은 3명의 교수진이 운영하는 포괄적 영화제작 수업으로 운영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영어Ⅰ,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Ⅱ,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연극, 중국어Ⅰ,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일본어Ⅰ, 한문Ⅰ, 논리학, 논술

진로선택 심화 국어, 고전 읽기, 한문Ⅱ, 영미 문학 읽기, 진로영어, 제2외국어Ⅱ(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영어권 문화

[동아리 및 소모임]

북청사자놀이 소모임, 연기 소모임, 사운드 소모임 등

배우 오우리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17학번



현장으로 확장된 배움

저는 강의실 안에만 머무르기보다 실제 현장에 끊임없이 부딪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과의 특성 역시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외부 작업에 도전하며 배운 것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실패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고, 동료들과 함께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연기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직접 써보고 영화 제작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영화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장을 완성하는 협업의 힘

우리 학과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특히 크리틱(Critique) 영화 제작 수업은 하나의 작은 영화 현장이자 사회와도 같았습니다. 교수님과 동료들의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의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강점과 저만의 색깔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협업 경험은 졸업 후 협업에서도 큰 자산이 되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영화 색깔을 찾는 선택

자신이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학과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진짜 '내 것'을 찾아가고 싶다면 분명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학과 특색 프로그램]

- 학생회, 교수진, 조교가 매주 운영하는 학과운영회의를 통해 중요한 학과 문제 논의
-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기마다 장비 교육 진행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2020년 제73회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 초청
- 2022년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왓차가 주목한 단편상 수상
- 2023년 제15회 대안단편영화제 KT&G 금관상 수상
- 2023년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선재상, 왓차단편상 수상
- 2023년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본선 단편경쟁 부문, 새로운 선택 부문 진출
- 2023년 MBC 연기대상 신인상 수상
- 2024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문 진출
- 2025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진출
- 2025년 미장센단편영화제 진출 및 배우상 수상
- 2025년, 2026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진출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눈컴퍼니, 사람엔터테인먼트, 에이엠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
- 왓차(WATCHA)에서 송실대 영화예술전공(SSFilm) 단편영화 서비스

[졸업 후 진로]

영화감독, PD, 촬영감독, 연기자, 영화 관련 제작사 투자사, 방송국 등

[교수 연구 분야]

영화 연출, 제작, 시나리오

[FAQ]

Q. 연출을 전공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연기를 해야 하나요?

A. 네, 송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에서는 연기와 연출을 통합적으로 교육합니다. 연기 전공 학생들도 글쓰기와 연출을 배우고, 연출 전공 학생들도 연기를 해야 합니다. 영화예술 분야는 연기와 연출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전문 스포츠지도자 육성

스포츠학부

SCHOOL OF
SPORTS



스포츠학부는 1998년에 개설된 생활체육학과를 모태로 하여, 2015년 스포츠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스포츠학부는 생활체육전공, 스포츠사이언스전공, 스포츠마케팅 융합 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생활체육과 스포츠과학의 발전 및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비교과과정의 전문실기지도자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스포츠 및 레저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98년
입학 정원	49명
전임 교원	7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sports.ssu.ac.kr
tel.	02-820-0045

황덕현 동문이 경험한

스포츠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 취득 관련 지원
- ✓ 6학기 동안 근로장학생으로 활동
- ✓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교수진과 선배들의 조언과 가르침

스포츠학부는 '진실의 방'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 수업, 교육, 자격증, 대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들은 어느새 저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듯, 스포츠학부에서도 강력한 의지와 명확한 목표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수진의 지도, 배움의 기회가 가득한 곳

스포츠학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다방면 경험과 자격증 취득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커리큘럼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스포츠학부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인격적·사회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과 인재상]

-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과학화, 정보화, 대중화의 전문화된 스포츠 인재
- 웰빙시대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갈 인재
- 체육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의 융합적사고와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건강과 리듬운동, 체육학개론, 스포츠원리와 체험, 기초체력과 스포츠과학, 인체해부학, 수영1·2, 웨이트트레이닝1·2
- 2학년**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측정평가,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정책 및 법, GX프로그램1·2, 수영3·4, 계절스포츠지도자론, 스포츠심리학, 생애체육론, 스포츠생리학, 스포츠마사지 및 테이핑
- 3학년** 공통: 구기스포츠1·2, 뉴스포츠1·2, 스포츠실무교육1, 트레이닝방법론, 미디어스포츠, 스포츠영양학
생활체육: 생활체육이론과 실제, 응용스포츠심리학, 스포츠마케팅, 유소년스포츠론
스포츠 사이언스: AT이론 및 실제, 운동역학, 스포츠융합개론, 운동기술분석, 운동처방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클럽팀**황덕현**스포츠학부
13학번

학생들의 자기 계발을 위해 폭넓은 경험과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학부의 큰 장점입니다. 학부의 지원 아래 저는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축구, 보디빌딩), 인명구조요원, 스킨스쿠버 오픈워터, 스포츠마사지, 스포츠테이핑, 스키 레벨1·티칭1, 스포츠안전관리사 2급, 수상스키 3급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과 선배들의 조언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학부에서 펼쳐갈 무한한 가능성

스포츠학부에 진학한다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운동과 학업에서 우수한 실력을 입증한 인재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적극적인 행사 참여와 즐기는 마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본인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여러분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4학년 공통: 골프1·2, 스포츠지도자 윤리 및 리더십, 생활스포츠, 스포츠심무교육2
생활체육: 여가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론, 특수체육론, 생활체육지도론, 운동과 정신건강, 스포츠문화발달사
스포츠 사이언스: 스포츠상해 진단 및 평가, 건강과학세미나, 스포츠상해재활, 스포츠사이언스연구법

[동아리 및 소모임]

- 테라: 축구 실기지도 역량 강화, 축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및 KFA 심판 자격증 취득 대비
- T.I.B: 농구 실기지도 역량 강화, 농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대비
- 라온: 배드민턴 실기지도 역량 강화, 배드민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대비
- 슈핏: 보디빌딩 실기지도 역량 강화, 보디빌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대비
- 위너스: 치어리딩 실기지도 역량 강화, 치어리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대비 및 축구단 경기 공연 진행

[학과 특색 프로그램]

- 하계훈련: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등 수상스포츠 실기지도 능력 및 현장 향상, 단체생활을 통한 리더십 및 팔로우십 도모

- 동계훈련: 동계 종목인 스키, 스노보드 실기지도 능력 및 현장 경험 향상, 단체 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Power Man & Power Woman 선발전: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순발력, 민첩성, 근력, 근지구력 등 체력 요소 및 운동 역량을 측정하는 우수 스포츠지도자 선발전
- 워크숍: 생활체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생활체육 현장의 학생 진로지도 탐색 및 학부 운영 방안 논의

[졸업 후 진로]

체육 관련 지도자, 스포츠시설 관리 및 운영, 운동처방사, 체력 담당 코치, 운동영상사, 스포츠 심리사,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광고선전가, 스포츠 이벤트 관리자, 스포츠 시설을 관리자, 스포츠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스포츠 사진작가, 체육 행정가 등

[교수 연구 분야]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마케팅, 스포츠경영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체육 측정평가, 체육통계, 운동생리학, 노인체육, 트레이닝방법론, 유소년발육발달, 수영, 댄스스포츠, 계절스포츠

법과대학

COLLEGE OF LAW

진리의 탐구와 굴하지 않는 양심으로 정의를 실천

법과대학은 평양 송실대학 설립 당시부터 법학 강의를 시작했으며, 1954년 서울에서 재건될 때 함께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법과대학은 법학과와 국제법무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법조계와 행정계를 아울러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으며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더욱 많은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법과대학 학생들은 국내외 실무 경험을 겸비한 교수진의 지도하에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해외로 뻗어나갈 능력도 탄탄하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회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현시대의 문제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키우면서 국내 유수의 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어 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 속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취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법과대학에서는 변호사뿐 아니라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 직종과 공무원, 공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도 법과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배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학과 #국제법무학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정의와 인권

법학과

DEPARTMENT OF LAW



법학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법을 연구하고, 법을 통해 사회와 인간을 이해한다. 국제적 안목, 법적 사고능력(리걸 마인드 Legal Mind),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률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심층적인 법학 지식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법학과는 분야별 최고의 연구 능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교수진 및 우수한 재학생이 함께 학문적 탐구와 전문 지식 습득을 추구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54년
입학 정원	55명
전임 교원	10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law.ssu.ac.kr
tel.	02-820-0470

법무법인 하진
대표변호사

하영록

법학과 08학번

하영록 동문이 경험한

법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법조인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학문적 기반
- ✓ 같은 꿈을 가진 동료와 평생 이어지는 네트워크
- ✓ 동문·실무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진로 지원

법학과는 '주춧돌'이다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며 변호사가 되기 위한 토대를 다질 수 있었고, 한 명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에 재학하던 시절은 제게 참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을 배우는 즐거움이 이끈 선택

고등학교 시절 선택과목으로 '법과 사회'를 접하게 되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사, 검사, 판사와 같은 법조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뚜렷한 목표나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흥미를 느끼는 학과를 떠올릴 때마다 법학과가 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대학 생활의 방식

개인적으로는 대학 생활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제 모습을 지켜본 친구들은 오히려 제가 다소 재미없게 대학을 다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첫 학기에 법학을 공부하면서 학문 자체에 큰 흥미를 느꼈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재학 시절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언제나 학과 공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법학열람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스터디 활동을 비롯해 독서토론 모임, 민사법학회, 봉사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여러 대외활동에도 틈나는 대로 도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흥미를 느끼고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라면 대부분 시도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간 하나하나가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학과 공부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과도 깊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들은 졸업 이후에도 이어져, 현재는 모두 변호사로서 각자의 길을 걸으며 여전히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과 인재상]

- 법치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재
- 정의 실현에의 의지와 학문적 역량을 가지고 실무자 및 연구자로 성장할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민법총칙, 헌법1, 형법총론, 법학글쓰기세미나, 채권법각론
- 2학년** 상법총칙보합법, 행정법1, 헌법2, 물권법, 채권법총론, 회사법,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법논리학, 민사소송법1
- 3학년** 노동법1, 노동법2, 행정구제법, 자본시장ESG법, 디지털금융거래법, 친족상속법, 국제법1, 국제법2, 민사소송법2, 헌법소송법, 형사법연습
- 4학년** 경제법, 공법연습, 법제사, 지식재산권법, 행정법2, 법철학, 민사법연습, 국제경제법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영어1, 영어독해와 작문,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논술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동아리 및 소모임]

기업법학회, 형사법학회, 국제법학회, 지적재산권연구회, 로직(언론사), 로우링, 법사랑(축구), 리얼(농구), 핫스윙즈(야구), 불법하음(밴드)

[학과 특색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Law-Ring)을 통한 로스쿨 진학 특강, 공무원·노무사 시험대비 특강 및 국내외 취업 대비 특강, 각 분야 선배들의 진로지도 및 교류지원, 법원 및 검찰청과 헌법재판소 견학, 법조인 특강 등 국제 학술 세미나, 각종 학회 모의재판 지원

[취득 가능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로스쿨 진학 이후 법조직역(판사, 검사, 변호사) 진출,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시험 합격 후 전문가로서 활동
- 취업: 대기업, 중견기업 법무팀 취직

[졸업 후 진로]

국내외 로스쿨 진학을 통한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법조인,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각종 공공기업 및 공공기관, 법무사·노무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법 전공 관련 연구소,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교수 연구 분야]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법철학, 법제사,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FAQ]

Q. 법학과에 입학하면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가요?

A. 법조직역 진출에 있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의 기초를 탄탄히 갖춘 법학과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야말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지 않은 주요 대학의 법학과 가운데 특히 숭실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은 4년간의 내실 있는 강의와 학교 차원의 많은 지원하에 주요 로스쿨로 진학한 후 뛰어난 역량과 위상을 널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법학과 졸업생들이 국내 로스쿨 진학 후 학업 성취의 측면에서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서나 모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계속해서 로클럭,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국외법의
글로벌한 어울림

국제법무학과

DEPARTMENT OF
GLOBAL LAW



국제법무학과는 세계 법률 환경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되었다. 국제법무학과는 국내의 주요 법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법학, 국제 관련 법학을 교육한다. 강의 방식은 일방적 강의식 교수법을 넘어서며, 영미법 교육의 원어 강의와 판례를 기초로 양방향 교수법인 소크라테스식 문답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이 국내외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 시험 준비에 유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학과 설립	2011년
입학 정원	33명
전임 교원	8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lawyer.ssu.ac.kr
tel.	02-820-048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기획

한민수

국제법무학과
11학번

한민수 동문이 경험한

국제법무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국내외 실무를 경험한 교수진에게 배우는 살아있는 법학
- ✓ 세계를 무대로 배우는 비교법 교육
- ✓ 법조인을 넘어 다양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교육

국제법무학과는 '허브'이다

다양한 학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학문적 특성이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하나의 전공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이해하는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이끈 첫걸음

평소 법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 내용을 더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시야를 넓히고,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호기심이 만든 성장의 발자취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데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방학마다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인턴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공 수업에서 얻기 어려운 실무 경험과 새로운 시각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법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무역학과 국제정치 등 다른 전공 수업도 수강하며 학문의 경계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연수 당시 깊은 인상을 받았던 헤이그에는 이후 교환학생으로 다시 방문해 더욱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교내 모의재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과 팀을 꾸려 국제 모의재판에 참가하는 등 배운 내용을 실제 경험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가능성

국제법무학과는 장래 희망이 이미 명확하게 정해진 학생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싶은 학생에게 더욱 잘 맞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배움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스스로 도전하는 자세만 있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습니다. 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고민으로 시작을 미루기보다 먼저 경험해 보고,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학과 인재상]

국내법, 영미법, 국제법을 두루 학습하여 탁월한 국제적 법무 능력과 기독교적 봉사정신에 터 잡아 세계적 법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글로벌 리걸(legal) 리더

[주요 커리큘럼]

1학년 한국법사와 가족

2학년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형법특강, 계약법특강, Comparative Contract, Comparative Real Property, Comparative Criminal Law, Comparative Corporation, 분쟁해결과 법, 형사절차법, International Organization & Treaty, AI와 법제도

3학년 Comparative Torts, Comparative Civil Procedure,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Legal Argument & Writing, 민사소송법, Comparative Evidence, Internet Law, Global Perspectives on Philosophy of Law, EU법, 민사집행법

4학년 Intellectual Property Law, Antitrust Law, 동아시아법, 국제법 특강, Int'l Business Transaction, Law on the WTO & FTA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영어 I,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 II,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논술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실용영어

[동아리 및 소모임]

국제법학회, 형사법학회, 법경제학회, 기업법학회, 지식재산권연구회, LAWGIC(언론사), 법사랑(축구), REAL(농구), 헛스윙즈(야구)

[학과 특색 프로그램]

- 1학년: 국제환경리더십 연수(몽골)
- 2학년: 법률영어 어학연수(괌), 국제법률기구 연수(유럽)
- 3~4학년: 해외법률 인턴십, 국제인권 연수(일본)
- 전 학년: 스텝스 국제환경모의재판 대회(EARR)

[취득 가능 자격증]

미국·호주 변호사, 한국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변리사 등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국내 및 미국 변호사 다수 배출
- 취업: 세계 20위권 내 최상위 로펌 등
- 진학: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외 로스쿨(미국 NYU, Cornell Univ., UC Hastings, Pennsylvania State Univ. Law School) 등

[졸업 후 진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외 로스쿨 진학, 국내외 기업 국제법무, 국제기구, 한국 및 외국 법무 업무, 공무원 및 공기업 국제 관계 업무 등

[교수 연구 분야]

Contract, Property, Int'l Business Transaction, Criminal Law, Procedure, Antitrust Law, 민법, 상법, Int'l Law, Int'l Investment Law, 행정법, 법철학, 법사회학, Law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e, Corporations, Securities Regu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 Treaty, Comparative Security Law, 과학기술과 법, 인권법, 민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상법, 노동법, 공법, 법제사 등

[FAQ]

Q. 법학과와 국제법무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두 학과 모두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중 국제법무학과에서는 국내법 분야는 물론 국제법, 영미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글로벌 법률 전문가 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국제법무학과에 진학하면 국제모의재판에 참여하거나 학년별 인턴십 및 해외 연수 등에 참여할 기회가 많으며, 국내의 로스쿨 진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의 요람

사회과학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발전을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근간으로, 이론과 실천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열정적인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전달하며, 이는 학교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봉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 분야 간 학습 교류를 실현함으로써 21세기 통합 학문의 특성을 잘 드러냅니다. 송실의 사회과학대학은 인간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부 #행정학부 #정치외교학과 #정보사회학과
#언론홍보학과 #평생교육학과

인류번영과 국가, 사회 및 교회의 복지를
이끌어 가는 사회복지 지도자 양성

사회복지학부

SCHOOL OF SOCIAL WELFARE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와 국외 사회복지 분야의 수많은 리더를 교육하고 배출해왔다. 이러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최상위권 학부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행정 분야를 통합하여 복지 분야의 세부 전공영역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진을 통하여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론뿐만 아니라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 이론과 실무 기술 등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인재
-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가진 인재
-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인재
-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
-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성, 정직성뿐만 아니라 정보화 및 국제화 시대의 적응 능력을 갖춘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 2학년** 아동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현장의 이해,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치경제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역사
- 3학년** 노인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의료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중독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장론, 상담실기,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실무실습, 장애인복지론, 교정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4학년** 사회복지행정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현장실습,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서비스정책, 사회복지세미나, 집단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와모교, 창의적문제해결(캡스톤디자인)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확률과 통계,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철학, 심리학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 및 소모임]

피플소시오(사회심리극), 애사(아동·청소년 분야), 밀알(장애인 분야), 사회사업연구학회(사회문제토론), 나비효과(도박문제예방), 신우회(기독교), 소셜일레븐(축구), 은빛나래(노인복지분야)

[학과 특색 프로그램]

-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실습(미국, 일본) 및 외국대학과의 교류
- 전문연구분야 인력 양성: 학술연구 동아리의 구성 및 사회복지 학술제를 개최 (학술연구 동아리 구성, 송실사회복지연구발간)
- 복지투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의 특성과 현황을 이해하고, 예비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
- 워크숍: 매년 재학생들과 동문들의 만남
-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지원
- 안정태장학금, 동문장학금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2급(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졸업 후 진로]

- 정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 복지기관 및 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등
- 국제기구 및 NGO: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유니세프, 굿피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Save the children, KOICA(한국국제협력단), 대한적십자사 등

사회복지학부는 '틀'이다

사람과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을 형성해 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가장 닮은 전공

열심히 일할수록 내 삶만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은 이러한 저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에 가장 잘 맞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보며 커리큘럼과 전공 과목들을 살펴본 것인데, 소개된 과목 하나하나가 모두 흥미롭게 느껴져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입학한 이후에도 그 기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공 수업만큼은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학교에 간 날에도 졸지 않고 말뚱말뚱한 눈으로 수업에 집중할 정도로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도전으로 가득했던 대학 시절

대학 생활 내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냈습니다. 학과에서는 봉사모임 '애사', 학술연구모임 '화요포럼', 신우회, 교수님과 함께하는 독서토론포럼 등에 참여했고, 교내에서는 중앙 밴드동아리에서 키보드를 연주하고 사격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선교봉사에도 참여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기업사회공헌 전문지 기자단 활동을 했고, 자원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정리해 보니 대학 시절에만 5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했더군요. 특히 '광산지역사회사업활동(광활)'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방학 한 달 동안 강원도 폐광지역에 머물며 지역 아동들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광활'에는 소박한 생활습관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역 어르신의 초대를 받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매 끼니를 쌀과 김치만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김 한 장이나 멸치볶음 한 접시가 반찬으로 추가되는 날이면 그 어느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광활'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초심을 다지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나 학점 관리에만 매달리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평범한 스펙으로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었고, 이제는 석사 과정을 위해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만큼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가장 따뜻한 전문성

"열심히 일할수록 내 삶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사회복지학을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 전공 선택에 대해 묻는다면 늘 "다시 대학에 가더라도 같은 전공을 선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회복지학은 저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에 깊이 맞닿아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경제학을 부전공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와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함께 공부했을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복지인의 길을 걸어갈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기타 분야: 학교, 교육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병원, 교정시설 및 보호기관, 기업복지 및 재단, 사회복지관련협회(사회복지사협회 등), 모금지원단체(공동모금회) 등

[교수 연구 분야]

청소년복지, 교정복지, 사회복지행정, 아동복지, 가족치료,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사례관리, 여성복지, 사회서비스, 정신 건강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예산편성

최다은

사회복지학부
12학번

최다은 동문이 경험한

사회복지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는 인권·권리 기반 관점 형성
- ✓ 협력과 당사자 중심성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 철학
- ✓ 국제개발협력 진로와 직결되는 실무형 교육과정

학과 설립	1970년
입학 정원	41명
전임 교원	10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mysoongsil.ssu.ac.kr
tel.	02-820-0500

공공부문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 능력과
규범적 판단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행정학부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1981년 출발한 송실대학교 행정학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행정 체계와 공공정책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학부는 전통적인 행정학 분야의 교육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행정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키우며, 미래 사회의 전문 행정가와 정책 전문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 통일지향적 공공성을 지닌 융합적 인재
- 창의성과 소통 능력을 지닌 글로벌 인재
- 지능 정부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을 지닌 혁신형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행정학개론, 정치학개론, 경제학개론, 정책학원론, 행정법원론
- 2학년** 행정이론, 공공데이터분석과 통계, 행정학연구방법론
- 3학년** 지방행정론, 정책커뮤니케이션, 기획론, 미래도시혁신과 관리, 정부와 국가발전, 정책집행의 전략적접근, 정책평가론, 디지털시대집단지성과 공동생산을 위한 협력적거버넌스
- 4학년** 산업기술정책,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이론과 실제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정치와 법, 사회·문화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 및 소모임]

모의국무회의, 모의정책갈등조정회의

[학과 특색 프로그램]

- **행정실무 워크숍**: 정부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공직자의 리더십과 정책현장의 실재를 학습
- **행정기관 방문**: 주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행정 일선의 활동을 이해하고 현장을 경험

[취득 가능 자격증]

행정사, 노무사, 법무사 등

[졸업 후 진로]

각종 고시 및 공무원 시험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각종 협회 및 공기업, 일반 기업체, 국내외 금융기관, 언론기관, 국제기구, NGO, 사회적기업,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 등 다방면으로 진출

[교수 연구 분야]

행정학, 정책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FAQ]

Q. 행정학부가 경찰공무원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적합한가요?

A. 경찰공무원 시험의 과목에 행정학 과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최근 공무원 시험 방식의 개편과 함께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행정학의 이론과 실제 역량이 요구되는데, 행정학부의 교과과정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갖추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 전공자는 채용 이후의 공무원 실무에서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타 전공자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어 경력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학부는 경찰공무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공이 될 것입니다.

행정학부는 '디딤돌'이다

저는 앞으로도 행정학과 정책학을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할 계획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단순히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론과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학부는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든든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행정학인가?'에 대한 나의 대답

행정학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학문이며, 다양한 진로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유연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경영학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꼈고,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과목은 <산업기술정책>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루한 이론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경제학과 국가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학부를 졸업한 많은 분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진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행정학부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학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학부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배운 경험은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이후의 진로 설정에도 분명한 이점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학문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학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닿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행정학은 분명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분야든 이론을 다룰 때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되고 행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학은 매우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넓은 시야를 갖고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저는 행정학부 진학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충남아산경찰서
수사과

유현석

행정학부 15학번

유현석 동문이 경험한

행정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순수하고 친절한 사람들과 쌓은 추억
- ✓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실무 역량 강화
- ✓ 학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의 노력

학과 설립	1981년
입학 정원	61명
전임 교원	9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pubad.ssu.ac.kr
tel.	02-820-0510



통일, 개발 협력,
글로벌리더십, 세계시민

정치외교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인간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정치사상, 국가 간 갈등과 평화에 관한 국제정치, 비교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비교정치, 한국 정치와 통일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다. 이론과 실재를 사례와 실습으로 균형 있게 공부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이터 분석력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
- 사회와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있는 인재
-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소통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배양한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한국정치의 이해, 정치학의 이해(2026학년도에는 현대정치의이해라는 교과목으로 개설되었으나, 2027학년도에는 정치학의 이해로 개설됨), 외교와 정치, Politics and History, 정치와 경제
- 2학년** 국제정치의 이해, 비교정치, 현대정치사상, 북한의 정치와 경제, 비교정치경제, 데이터와 정치학 I (2026학년도 2학기 교과목 변경 적용, 기존 교과목 명은 정치학연구방법), 세계외교사, 정치와 문화, Comparative Foreign Policy, 중국정치의 이해
- 3학년** 글로벌협력과 발전, 데이터와 정치학 II (2026학년도 1학기에는 데이터와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교과목 개설, 이후 2학기부터는 변경된 교과목으로 개설), Understanding Democracy,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국제정치경제(2026학년도 1학기에는 4학년 교과목으로 개설, 이후 이수시기를 3학년으로 변경) 유럽정치의 이해, 한반도분단과 국제정치(교과목 폐지 및 개설), 권위주의와 정치, 원조와 아프리카, 정당과선거
- 4학년** 동아시아정치사상, 의회정치론(2026학년도 1학기에는 Legislative politics로 개설됨, 이후에는 변경된 교과목으로 개설) 시민사회론, 현대정치특강, 전쟁과 평화, 동아시아국제정치, 미국정치의 이해(2026학년도 2학기 교과목 변경), 세계화와 국민국가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영어 회화, 영어 I, 세계지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 및 소모임]

정외사랑(스피치), 산맥(모의국회), HBS(정치외교학과 방송국),
The 리더(독서 토론), World Affairs(국제 시사영어 토론), Side-off(축구)

[학과 특색 프로그램]

해외 현장학습 지원, 국회 및 판문점 방문, 대외활동 지원(모의 UN 총회,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 KOICA 대학(원)생 개발협력논문공모, 대학생국방안보포럼 등), 문수언 장학금, 취업 멘토링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2023년 제28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의 우수상 수상
- 2023년 국회의원연수원 미래정치지도자의회연수과정 최우수팀 선정 (분임토의 부문)
- 2025학년도 송실대학교-몽골국립대, MOU 체결

[졸업 후 진로]

기업(기획, 홍보, 마케팅 등), 언론(신문사, 방송사 등), 정당(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국제기구, NGO, KOICA,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전문자격시험(노무사, 관세사), 대학원 진학(로스쿨, 해외 유학 등)

[교수 연구 분야]

한국정치, 북한정치, 비교정치, 국제안보, 국제정치경제, 개발협력, 통계 데이터 분석, 정당 및 의회

정치외교학과는 '오래된 연애편지'이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몰입했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감정이 조금은 퇴색된 채 기억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당시의 고민과 열정이 지금도 사고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진심의 흔적입니다.

시각을 키운 학문

정치외교학과에서의 교육 경험은 제가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암기 위주가 아니라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어, 쟁점을 정리하고, 논거를 구성하는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같은 과목을 통해 사회 제도와 권력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았고, 이러한 학문적 틀은 지금도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과에는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학문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선후배 간의 교류도 활발해서 진로와 공부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와 제도를 다룬 학문적 기반 위에서 사람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게 되었고, 그 시각은 지금도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러 갈래의 길

정치외교학은 단지 정치인이나 외교관을 꿈꾸는 사람만을 위한 학문은 아닙니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진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 있고, 무언가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며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단순히 진로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정치외교학과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함승용

정치외교학과
08학번

함승용 동문이 경험한

정치외교학과 **특별함 3가지**

- ✓ 생각을 열고 논리를 단련하는 학과 수업과 토론 문화
- ✓ 사고를 확장시켜 준 독서토론 소모임 '더리더' 활동
- ✓ 정치와 현실을 연결하는 흥미롭고 실전적인 경험들

학과 설립	1983년
입학 정원	31명
전임 교원	5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politics.ssu.ac.kr
tel.	02-820-0520

정보사회, 인터넷, 소셜미디어,
사회조사 분석과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정보사회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는 정보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학적 이론과 실질적인 정책 제언 및 분석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동시에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정보사회학과는 개인, 구조, 공동체, 국제사회의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정보 사회의 특수한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과 인재상]

- 정보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이터 분석가
- 사회학적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제언 및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 개인, 구조, 공동체, 국제사회의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 현상과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사회학개론, 정보와 사회, 네트워크사회와 경제
- 2학년** 사회학의 이론과 관점, 사회통계1·2,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질적방법론 (과목 신설 및 사회네트워크분석 3학년 2학기교로 변경)
- 3학년** 정보사회정책,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과학기술과 사회변동, 사이버문화론, 사이버범죄학, 사회네트워크분석(2학년부터 3학년으로 변경)
- 4학년** 기술활용과 사회규범, 사회조사분석, 사회발전연구(네트워크와 국제사회 과목명 변경), 사이버사회심리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확률과 통계,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보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 및 소모임]

- 학회: 정보사회학회(이슈 토론회 및 캠페인 활동 진행)
- 소모임: Something Good(정보사회학과 밴드), 신우회(기독교), FC INSO(축구)

[학과 특색 프로그램]

학과 워크숍, 기업 견학, 사이버 문화제, 전문가 및 동문 초청 강연, 소모임 활동, 사회조사분석가 양성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2019년 한국경제신문 한경 아카데미 주최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분석 보고서
경진대회 대상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졸업 후 진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 정책기관, 포털 등 IT
관련 서비스 기업, 언론·홍보 분야, 사회 조사 기업, 일반기업체, 국제기구,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등

[교수 연구 분야]

정보사회학, 과학기술과 사회변동, 사이버문화, 뉴미디어 정보사회, 사이버범죄,
조사방법과 통계, 조직과 정보체계, 사회네트워크분석, 인터넷과 사회운동,
정보내용평가 등

[FAQ]

Q. 정보사회학과가 다른 대학의 사회학과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정보사회학과는 기본적으로 사회학 이론에 근거를 두지만, 정보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와 의미를 실무적인 면에서 함께 분석합니다. 정보사회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사회학과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정보사회학과는 '포수'다

야구에서 포수는 경기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사회학과는 제가 의미 있고 올바른 대학 생활을 하도록 리드해 준 포수였습니다. 그런 만큼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알려 주고, 많은 도움을 줬던 정보사회학과를 포수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두산베어스 마케터로 성장하게 해 준 정보사회학과

저는 두산베어스 프로야구단 마케팅기획실에서 상품화 사업, 브랜딩, 홈경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학과에서 배운 '사회학적 상상력'은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공 수업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는 협업이 중요한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과 행사인 '사이버문화제 PT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은 마케터로서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학문을 배우다

재학시절 뉴미디어, ICT 등 정보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용 실습실을 보유한 점도 신입생 관점에서 신기했습니다. 정보사회학과에서는 전통적인 사회학은 물론, 사회통계, 정보사회, 뉴미디어 등 본인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수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목에서 배운 내용은 사회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든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라

정보사회학과라는 전공 자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 수업을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사회학과만큼 실생활에 유용하고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전공도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본 전공 학생에게 필요한 자세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매일 접하는 수많은 사회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과 창의력을 발휘해 심도 있게 관찰한다면, 좋은 성적은 물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산베어스 프로야구단 마케팅기획실 전영재

정보사회학과
13학번

전영재 동문이 경험한

정보사회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다양한 뉴미디어, IT, 소셜커머스 관련 기업 견학
(카카오, SOOP, 넥슨 등)
- ✓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 '홈커밍데이'
- ✓ 편리한 과제 수행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학과 전용 실습실

학과 설립	1998년
입학 정원	25명
전임 교원	7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inso.ssu.ac.kr
tel.	02-820-0047



최초의 역사를 향한
거침없는 비상

언론홍보학과

DEPARTMENT OF JOURNALISM, PUBLIC RELATIONS & ADVERTISING

송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는 언론 분야와 미디어 산업,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국가, 기업, 시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언론과 홍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미디어와 관련된 사회의 새로운 현상 및 대중의 심리 등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송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강의 커리큘럼과 영상 제작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과 인재상]

- 급변하는 영상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필요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갖춘 인재
- 뉴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재
- 인간애와 인류애를 바탕으로 국가,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
-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소통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배양한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매스미디어의 이해, 연구조사방법론,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1, 미디어제작의 이해
- 2학년** 방송학개론, 광고론, 뉴스의 이해, 소셜미디어론, PR론, 영상제작연출론1, PR크리에이티브론, 광고기획론, 미디어제작질문론,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영상제작연출론2
- 3학년** 탐사보도론, PR매니지먼트, 미디어창의성론, 중급영상연출론, 광고크리에이티브론, 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2, 모바일커뮤니케이션, 미디어비즈니스론, 고급영상연출론
- 4학년** 미디어비평, 미디어심리학, 미디어플래닝론, 미디어테크놀로지론, PR세미나, 미디어효과론, 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3

[선택교과 가이드]

- 일반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논리학, 논술
-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심화 국어, 실용 영어

[동아리 및 소모임]

자몽(기사 작성), 호흡곤란(축구)

[학과 특색 프로그램]

언홍제(학과 축제), 교환학생 프로그램(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연계)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KBS 방송국 PD, 한국광고공사 PD, YTN 기자, 경향신문 기자, 뉴스원 기자 등

[졸업 후 진로]

언론정보사, 사회조사분석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방송통신산업기사, 국제광고인자격증, 브랜드관리사, 광고, PR, 저널리즘, 이벤트, 영상 프로덕션, 방송국PD, 아나운서, 일반 기업 마케팅 및 홍보 분야, 광고 대행사 등

[교수 연구 분야]

방송비평, 방송과 문화적 현상, 뉴미디어 산업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 이론, 미디어 심리학, 뉴미디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뉴스 생산전략, 디지털테크놀로지, 미디어 비즈니스, 조직-공중 간 관계성 연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조직커뮤니케이션, multi-level analysis, 영상제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 이론 및 브랜드 경험

[FAQ]

Q.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은 언론홍보학과에 가야 하는지 글로벌미디어학부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A. 언론홍보학과가 언론 분야를 비롯해 미디어 산업, 나아가 일반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글로벌미디어학부는 IT대학 소속 학부로 IT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분야의 진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홍보학과는 '불판'이다

불판은 뜨겁게 달궈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충분히 달궈졌다고 생각될 즈음, 원하는 재료를 올려 구우면 됩니다. 고기를 올리고 고구마를 굽듯이, 방송을 선택하고 광고를 익혀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진 것을 모두 쏟아냈다고 느껴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 보세요. 교수님이어도 좋고, 선배나 후배, 동기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기꺼이 달려와 새로운 불을 지퍼 줄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배움의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행운을 뜨거운 설렘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숯불만 충분히 뜨겁다면 어떤 두께의 불판도 금세 달궈지듯, 여러분 역시 자신만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향한 과감한 진로 전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한 편입니다. 과학중점고등학교 이공계열 학급에 입학해 3년간 재학했지만, 고등학교 생활 내내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쌓아 온 성적과 앞으로의 진로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기로 마음먹었고, 수능을 약 100일 앞둔 시점에 그동안 준비해 온 이과 진로를 내려놓고 문과 계열로 교차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논술이나 면접 전형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설명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각오 역시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 아래 언론홍보학과를 비롯한 신문방송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등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집보다 학교가 더 가까웠던 시간

학과 수업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대학 생활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듣다가도 시나리오를 쓰고, 선후배·동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과제 마감만큼이나 웹진에 기고할 칼럼의 원고 마감일을 중요하게 여기던 부원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학과 축구 소모임에서 공을 찼고, 밤에는 학교 밴드 합주실에서 노래했습니다. 집보다 캠퍼스가 더 익숙했고, 학과방은 어느새 제 안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부지런히 경험하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학을 살아냈던 나날이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진화하는 배움

미디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기에 배워야 할 것들도,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할 것들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이 언론홍보학과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펜촉이 총칼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시절에는 '신문'이라는 이름 아래 시대를 읽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종이 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보와 권력의 중심이 라디오와 TV로 이동하던 시기에는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이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학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언론홍보학과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함께 성장하며 살아 있는 배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학우들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생동감 있는 배움을 찾고자 한다면 언론홍보학과는 분명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용호 동문이 경험한

언론홍보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이론이 아니라 적용으로 완성되는 전공 교육
- ✓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작동하는 학과 구조
- ✓ 현업을 미리 경험하는 미디어 실전 훈련장

YTN
디지털뉴스 PD
전용호

언론홍보학과
14학번

학과 설립	1999년
입학 정원	25명
전임 교원	6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masscom.ssu.ac.kr
tel.	02-820-0306



평생교육의 힘

평생교육학과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는 1998년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평생교육학 선도 학과다. 우리나라 평생교육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평생교육학의 리딩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교육과 HRD 분야의 이론과 실재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 갈 평생교육 및 HRD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는 현재 평생교육학 전공과 HRD 전공으로 국내 최대의 학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HRD 분야에서 교육프로그램 기획, 개발, 시행, 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재
- 평생교육 및 HRD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개발해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메타-하이콘셉트형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송실인과 평생교육, 평생교육강론, 평생교육의 이해와 커리어개발, 삶과 교육의 이해, 평생교육프리젠테이션기법
- 2학년**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자의 리더십, 성인학습자의 인간발달과 조직심리 (평생교육과 교육심리 교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 지역사회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자기주도학습과 교수학습체제개발, 평생교육제도와 정책의 기초적 이해, 창의성개발과 평생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다문화교육, AI시대의 경력코칭과 미래 역량(미래사회와 직업탐색 교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
- 3학년** 성인발달과 학습심리(2027년부터 과목 폐지), AI활용 문제해결 프로젝트(2027년부터 과목 신설), 자기주도학습연구개발세미나, 평생교육방법론, HRD와 코칭, 평생교육복지론, 기업교육론, 노인교육개론, 평생학습을 위한 AI 활용과 프로그램개발, 경력개발과 조직개발, 평생교육경영론, 캡스톤디자인(평생학습자의 생애설계)
- 4학년** 사이버교육론, 평생교육실습, 교육조사연구, 미래사회평생교육트렌드, 성인학습 및 상담, 기업교육의 요구분석, 조직문화와 변화관리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확률과 통계,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논리학, 심리학
진로선택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 및 소모임]

PDF(공모전 소모임), SES(교육 봉사 소모임), 공처(구기종목 소모임)

[학과 특색 프로그램]

- 평생교육인 역량강화 워크숍(평생교육 현장 실태 파악 및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 전략 탐색)
- 평생교육학과의 날(학·석·박사 전 동문이 'Same Boat' 정신으로 뭉쳐,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 21세기 평생교육학의 리더'라는 학과의 원대한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화합의 장)
- 평생교육학과 취업콘서트(전문가 및 석·박사 선배들의 진로 및 취업 멘토링)

[취득 가능 자격증]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졸업 후 진로]

평생교육 기관(기업체 인력개발원, 공무원 연수원, 문화센터,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언론기관 평생학습센터, 시민사회단체 평생학습시설 등), 삼성, 현대, LG, SK, 한화 등 각종 대기업 및 개별기업교육 컨설팅 회사, 평생교육학 및 일반 교육학 연구 등

[교수 연구 분야]

평생교육정책 및 경영, 리더십, 평생교육심리, 성인 창의성 개발, HRD, 노인교육, 자기주도학습, 평생교육테크놀로지, 평생직업교육훈련, 성인학습, 인적자원 및 조직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정책평가, 평생교육학연구방법론, 부모학

평생교육학과는 '베이스캠프'다

진로 방향을 찾지 못했던 시절, 평생교육학과로의 전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학과에서 얻은 소중한 배움과 경험은 인생의 도전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학과는 다양한 학습 경험으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베이스캠프처럼,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도적인 학습 방식, 교육 스타트업의 밑거름

저는 학부 및 석사 과정을 통해 학문적 배경을 쌓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진로교육 콘텐츠 스타트업 (주)어나더컴퍼니그룹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70여 명의 강사와 함께 한 해에만 국내 청소년 약 30만 명을 만나 그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평생교육학과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 덕분입니다. 평생교육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뜨겁게 의견과 피드백을 나누는 프로젝트형 수업이 자주 진행됩니다. 커리큘럼은 단순히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학습하고 이를 발표하며 토론하는 등 지식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적인 학습 방식 덕분에 교육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결국 교육콘텐츠 스타트업 창업까지 이어졌습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오픈마인드, 지속적인 진로 탐색

평생교육학과를 선택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로 꼽힙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매력적인 곳이 분명하지만, 두 가지의 마인드가 있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자세와 오픈마인드입니다. 평생교육학과는 다양한 프로젝트형 수업과 활동이 많아 후배, 선배, 동기와 함께 공부하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오픈마인드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협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째,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계속 탐색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진로 스펙트럼이 매우 폭넓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적성에 맞는 분야와 교육 대상을 스스로 탐색하며 진로를 뚝뚝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나더컴퍼니그룹
대표

승영걸

평생교육학과
07학번

[FAQ]

Q. 평생교육학과와 일반 교육학과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송실대학교의 평생교육학과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학과로 평생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식 자산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학과는 기본적인 교육학을 기반으로 평생교육(성인교육)에 초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실행, 관리,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 교육학과와 달리 교직 이수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승영걸 동문이 경험한

평생교육학과만의 특별함 3가지

- ✓ 선배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취업콘서트
- ✓ "We are in the Same Boat"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하는 동문들
- ✓ 교수님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교내 연구원 활동

학과 설립	1998년
입학 정원	25명
전임 교원	5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lifelongedu.ssu.ac.kr
tel.	02-820-0041



경제통상대학

COLLEGE OF ECONOMICS & INTERNATIONAL COMMERCE

글로벌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특성화

세계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전문가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통상대학은 '글로벌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특성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대학의 교육과정은 영어 및 지역 언어 능력 함양, 이론과 실무 접목을 위한 팀 강의, 컴퓨터 및 IT 기술 능력 향상, 이론과 사례 연구, 현장 및 실무의 균형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수진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정규 교과 과정 및 다양한 산학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취업의 질로 결실 맺고 있으며, 교내외 단과대학 및 학과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통상대학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 진리를 탐구하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글로벌통상학과 #금융경제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제이론 및
실무 전문가 양성

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송실대학교 경제학과는 1954년 송실대학교의 서울 재건 시 함께 설립되었다. 교수 연구 부문 국내 상위 10%로 평가받는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유능한 경제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연구와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경제학과는 글로벌 실무형 경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복수전공, 연계전공 제도를 도입해 경제학 전공 과정의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경시대회, 자격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지도교수제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54년
입학 정원	72명
전임 교원	15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eco.ssu.ac.kr
tel.	02-820-0550

송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연재

경제학과 07학번

장연재 동문이 경험한

경제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학부 단계부터 이어지는 연구자 성장 기반
- ✓ 이론과 실증분석을 결합한 교육과정
- ✓ 학부·대학원 연계형 심화 학습 환경

경제학과는 '발판'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만든 선택

고등학생 때부터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업은 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지,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사회 현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막연한 해석이 아니라, 이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분석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공부가 만든 방향성

처음부터 뚜렷한 진로가 정해져 있었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업을 들으면서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계량경제학처럼 현실의 시장과 기업 행동을 분석하는 과목들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에는 전공 공부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으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디에 적용해볼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 너머의 현실을 읽는 숭실대 경제학과

경제학과는 세상을 숫자와 이론으로 차갑게만 바라보는 전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나은 선택과 정책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매우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특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는 전통적인 경제학 교육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의 흐름에 맞춰 학생들이 실용적인 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등 경제학의 핵심 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물론,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현실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는 AI 특성화 학과로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실증분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학은 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경제학적 사고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인재상]

경제학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국가, 기업, 사회에 봉사하고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경제원론, 경제수학, 회계원리, 국민경제의 이해, 국제통상개론
- 2학년 경제통계와데이터분석, 미시경제학, 경영학의 이해, 디지털경제와 화폐금융, 비교경제제도론,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금융경제학, 경제학커리어
- 3학년 노동경제학, 산업조직과 공정거래, 빅데이터로 이해하는 공공경제학, 기업경제학, AI·빅데이터기반경제이슈분석, 전략과 게임의 경제학, 조세정책론, 에너지경제학, AI와 인사경제학, 금융공학의 이해
- 4학년 부동산경제학, 금융경제실무특강, 경제학철사, 경제학특강, 창의적문제해결(캡스톤디자인), 한국경제론, 성경과 경제학, 국제금융론, 기업경제예측론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경제, 실용경제, 사회·문화, 미적분, 확률과 통계, 정치와 법, 논술
진로선택 경제수학, 사회문제 탐구, 영어권 문화

[동아리 및 소모임]

이코노미터(한국은행통화정책경시대회 등 경제 관련 공모전),
MRI(기업 분석 및 주식 투자), 아델포스(농구), 아레스(축구), 신우회(기독교)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융합전공: '순환경제·친환경화학소재' 운영
- 글로벌 에너지·금융 AI 전략 챌린지: 현지 조사 결과를 AI 모델링으로 결합하여 학술적·실무적 가치를 지닌 전략 연구보고서를 도출
- AI·BIG DATA 실증분석 경진대회: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에너지 분야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향상

- 취업연계형 인턴십 기회 제공: 협약 기관에서 금융실무 교육 이수, 취업연계형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미국 인턴십 및 단기 어학연수 기회 제공
- 기업·기관연계세미나 및 전공 특강: 금융 및 경제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최신 동향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산업 이해도를 제고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공인자격증 다수 합격

[취득 가능 자격증]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보험계리사(금융감독원), 감정평가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협회)

[졸업 후 진로]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 경제 및 에너지 계열 공공기관,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교수 연구 분야]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개방경제변동, 에너지경제, 기업경제, 게임이론, 금융경제, 노동경제, 계량경제, 공공경제, 조세정책, 한국경제, 경제정책, 금융공학, 금융경제실무

[FAQ]

Q.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A. 경제 뉴스를 찾아보거나 경제 과목을 즐겁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경제학과가 잘 맞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래프, 수식, 통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수리적인 능력과 논리력이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성장, 빈곤, 분배 등 경제 문제에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합리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통상 및
글로벌 무역의 리더

글로벌통상학과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화 및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글로벌통상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통상학과에서는 글로벌통상 분야의 이론과 사례 연구 및 현장 실무 학습을 균형 있게 교육하며 최고 수준의 통상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 능력 함양, 팀 티칭을 통한 이론과 실무 접목, 디지털무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IT 기술 능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국제 경제, 국제 경영, 국제 상무, 국제 통상법률 분야의 다양한 교과목과 GTLP, GTEP 같은 경험 지향적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통상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69년
입학 정원	72명
전임 교원	16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gtrade.ssu.ac.kr
tel.	02-820-0570

삼성전자
전략마케팅팀
해외영업

한수진

글로벌통상학과
17학번

한수진 동문이 경험한

글로벌통상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오스트리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 현장실습 인턴으로 실무 경험
- ✓ GTEP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컨택 및 전시회 참가

글로벌통상학과는 '기회'다

무역, 마케팅, 경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하고 본인의 진로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통상학과를 졸업하면 제조업, 금융, 물류는 물론 전문직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고 그에 맞는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통상학과, 해외영업으로 커리어 견인

현재 삼성전자 전략마케팅팀 해외영업팀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에어컨 법인 매출을 관리하며, 세부적으로는 해외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판매, 손익, 공급, 전략, 마케팅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해외영업 직무는 본사에서 해외법인과 가장 가까이 협업하는 직무이며, 본사 유관부서와 해외법인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역에 관한 관심으로 글로벌통상학과를 선택했지만, 해당 학과에서 무역, 마케팅, 경영, 경제 등을 전반적으로 경험하면서 해외영업/마케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생활 중에는 교환학생, IT 기업 해외사업관리 인턴, GTEP 등 학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즐기세요

학교를 충분히 활용하고 즐기세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활동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대외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이러한 경험이 모두 쌓여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전공 학생으로서 열정을 품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의 사소한 경험 하나도 나중에 값진 경험으로 쓰일 수 있으니 열정을 갖고 대학 생활을 즐기길 바랍니다.

[학과 인재상]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무역 전문가·글로벌통상 전문가의 꿈과 열정이 있는 학생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경영학의 이해, 통계학, 국제통상개론, 회계원리, 경제원론
2학년 국제상무론, 국제통상법, 무역경영론, 미시경제이론, 관세론, 지역무역협정론, 무역계약론, 중국지역통상론, 국제물류와 무역, 무역전시론, 국제통상협상론, 거시경제이론, 중국시장전략, 글로벌통상인의 기독교적 가치
3학년 국제결제와 신용장, 유럽지역통상론, 글로벌마케팅, 국제운송론, 국제거시경제이론, 국제무역론, 국제통상영어, 국제시장조사론, 무역보험론, 일본지역통상론
4학년 중국지역투자실무, 국제거래관습, 국제통상정책론, 전자무역과 무역법규, 국제금융론, 국제거래분쟁론, 국제통상세미나, 해외직접투자론, 인공지능과 디지털소비자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미적분, 영어 I,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실용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진로선택 경제수학, 사회문제 탐구,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동아리 및 소모임]

관세사반(관세사 시험 준비반), KOTRA 취업준비반, 스타(학술-스터디), 이시스(야구 관람)

[학과 특색 프로그램]

- GTLP(Global Trade Leadership Program): 해외수출입 실무 기초강의, 글로벌아이템 해외시장개척 멘토링, 국제무역 체험 경진대회, 실전형 이커머스 강의 및 멘토링
- ESG 프로그램: ESG기획 및 콘텐츠 제작 특강, ESG마케팅 및 콘텐츠제작 컨설팅
- 수출입시뮬레이션 무역역시전 및 서식작성 경진대회
- 국제비즈니스 협상 경진대회
- 해외거점시장 개척 경진대회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2020년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정)
- 2021년 제15기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대상 수상(한국무역협회)
- 2022년 송실대 선도 특성화학과 선정
- 2022년 16기 GTEP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한국무역협회)
- 2022년 국제 e비즈니스학회 청년혁신상 수상(국제 e비즈니스 학회)
- 2023년 17기 GTEP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한국무역협회)
- 2023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HACKATHON 대회 최우수상 수상(고용노동부)
- 2023 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비즈니스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 2024년 'GTEP 청년무역대상' 전자상거래부문 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협회)
- 2025년 'GTEP 청년무역대상' 수출마케팅 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협회 주최)
- 2025년 '2025년도 ChatGPT 등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장려상 2편 수상(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주관)

[취득 가능 자격증]

관세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검정시험 1급, CDCS(국제공인신용장전문가 Certified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

[졸업 후 진로]

수출입 무역 분야, 해외 영업, 해외 마케팅 분야, 무역 유관 공공기관, 금융권, 관세사 등

[교수 연구 분야]

국제무역, 국제무역계약, 국제결제, 국제운송, 국제물류, 국제무역보험, 국제상거래법, 국제경제, 국제금융, 국제투자, 무역경영, 국제마케팅,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중국경제

[FAQ]

Q. 글로벌통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A. 글로벌 무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자신의 글로벌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외국어 활용 능력, 무역 및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재직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금융경제 전문가 양성

금융경제학과

DEPARTMENT OF
FINANCIAL
ECONOMICS



2013년에 설립된 금융경제학과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금융 전문가들을 산학융합 교수진으로 초빙하여 강의실 이론 수업에 실무 교육을 강화한 입체적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들의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국제금융기관 견학, 해외 문화 체험, 장학금 등을 지원 중이다. 송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선취업 후진학 학과다.

학과 설립	1954년
모집 인원	53명
전임 교원	12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ecofinance.ssu.ac.kr
tel.	02-828-7343



[학과 인재상]

금융경제 이론과 실무의 융합과 심화를 원하는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경제원론 1·2, 퓨처리더코스, 북&시네마경제학, 경제수학
- 2학년** 금융제도와 법, 경제통계, 회계원리, 미시경제학, 주식투자론, 금융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시장
- 3학년** 기업평가의 이해, 국제금융론, 기업금융과 투자전략, 채권투자론, 파생상품론, 금융세법과 조세, 금융계량경제학, 가치투자의 이해, 부동산/SOC투자실무, 금융경제실무특강
- 4학년** 투자심리와 행동경제학, 사모펀드 개요 및 실무, 노동경제학, 금융경제세미나, 경제학 특강, 국제무역론, 해외투자자와 외환리스크관리

[동아리 및 소모임]

보드보드(보드), SBC(독서), 투자연구회(경제)

[학과 특색 프로그램]

해외금융기관 견학 및 문화체험 경진대회, 모의주식투자대회, 미국 인턴십, 캐나다 어학연수, 한국거래소 견학, 은행·보험·증권·일반 기업체 분야별 멘토링제, 글로벌금융시장조사PT 발표대회, 학과 발전기금 장학금 (생활지원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금융자격증 준비 장학금), 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취득 가능 자격증]

투자자금융(투자자산운용사) 재무설계(자산관리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회계·세무(기업회계, 세무사, 전산세무) 등

[졸업 후 진로]

자산운용사·증권회사·보험회사·은행 등 금융권, 일반 기업체, 회계사·세무사·금융자산관리사 등 전문자격증, 대학원·유학

[교수 연구 분야]

금융시장, 주식/채권투자, 부동산/SOC투자, 파생상품, 대체투자, 기업금융, 금융공학, 거시금융, 국제금융, 국제무역, 에너지, 환경, 공공경제, 금융계량, 노동경제, 산업 조직, 게임이론 등

[FAQ]

Q. 금융경제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 할까요?

A. 경제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금융 이론과 금융실무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경제학과는 학생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금융경제 이론과 실무 융합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제무역 및 투자 전문가 육성

국제무역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학과는 반세기에 걸친 국제무역 분야의 교육 경험과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학과다. 이론과 실무가 병행된 강의를 제공하며, 특히 현직자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야간 및 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국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최고의 실무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충분한 학업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학과 설립	2013년
모집 인원	53명
전임 교원	9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itrans.ssu.ac.kr
tel.	02-820-7366

[학과 인재상]

국제무역 이론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응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경제원론, 국제통상개론, 국제상무의 이해, 회계원리, 경영학의 이해, 법과무역의 이해
- 2학년** 수출입통관과 관세, 글로벌경영의 이해, 국제물류관리론, 해외금융시장의 이해, 국제통상법, 지역무역협정론, 국제계약실무, 중급경제학, 무역관습론, 중국통상론
- 3학년** 국제결제론, 국제금융이론, 국제마케팅, 국제운송실무, 중국투자론, 통상정책론, 국제비즈니스영어, 무역리스크와 보험, 국제무역이론, 해외시장조사론
- 4학년** 국제통상세미나, 국제전자무역, 국제거시경제이론, ESG경영전략, 국제거래분쟁해결론, 글로벌SCM, 해외직접투자론, 아태지역통상론

[동아리 및 소모임]

LK종합상사(스터디 소모임)

[학과 특색 프로그램]

- 해외 국제무역체험경진대회(1학년), 해외 산업시찰(2학년), 국제무역문화체험(4학년) 등 학년별로 다양한 비교과과정 운영
- 외국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취득 가능 자격증]

관세사,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무역영어검정시험, 금융자산관리사, 물류관리사 등

[졸업 후 진로]

무역 관련 민간기업 및 공기업, 금융기관, 관세법인 등

[교수 연구 분야]

무역계약, 국제결제, 관세법, 국제거래분쟁, 국제물류, 국제무역, 국제금융, 해외직접투자, 무역마케팅, 시장조사, 중국지역 통상 및 투자, 국제통상관계법, 자유무역협정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글로벌 리더 육성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최고 수준의 특성화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영학부는 글로벌화된 기업 세계에서 실용 학풍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철저적 지식, 창조적 사고, 사회적 책임, 리더십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Track과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계학과는 강화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공인회계사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벤처중소기업학과는 경영학의 기본 과정과 함께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체계적인 교육으로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경영자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학부는 균형 잡힌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금융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회계학과 #벤처중소기업학과 #금융학부

경영전문가,
혁신적 마인드

경영학부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성진

경영학부 06학번

송실대학교 경영학부는 1959년 국내 대학 중 두 번째로 설립된 학부다. 그간 각 분야에서 경영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 중인 5천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기업의 성공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조직 전체가 통합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때 가능하다. 이에 송실대학교 경영학부는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관리,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전공으로 세분된 실용 학문을 추구하며, 실무와 연계된 강의를 통해 국내 최고의 경영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59년
입학 정원	118명
전임 교원	22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biz.ssu.ac.kr
tel.	02-820-0560

경영학부는 '전환점'이다

많은 대학생이 그렇듯 저 역시 학부 시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늘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던 그때 IT와 컴퓨터 공학을 융합한 경영정보시스템 수업을 듣게 되었고, 흥미를 갖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의 수요가 높아진 만큼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의 터전이 된 경영학부

졸업 후 경영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미국 박사과정 유학길에 올랐고, 박사 졸업 후 뉴욕에 있는 아이오나 대학교(Iona University)에서 교수로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서 데이터 분석, 정보 보안과 경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을 후배들에게 공유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과거에 경영학부가 막연했던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면, 현재는 평생 몸담을 터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과 인재상】

혁신적 마인드, 경영 전문 지식,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경영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

【주요 커리큘럼】

Financial Management: 전공 경영학의 여러 분야 중 자본 시장의 영역에 초점을 둔 전공으로 재무(finance)와 회계(accounting)의 제반 지식을 기초로 한다.

HR & Marketing: 전공 경영학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에 초점을 둔 전공이다. 인사조직(management of organization & human resource)과 마케팅(marketing)을 근간으로 한다.

OM & MIS: 전공 경영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운영관리(OM)과 경영정보시스템(MIS)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전통적인 기반의 생산-물류-유통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한다.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제, 실용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심리학, 논술

진로선택 기하, 경제수학

【동아리 및 소모임】

광미인(광고), 情의 참거름(학술 토론), 올웨이즈(영화, 연극관람), M.B.A(농구), UFC(축구), 호연지기(여행), ACE(광고, 마케팅), SCG(컨설팅), SFA(금융), SQLLAB(서비스 품질)

【학과 특색 프로그램】

공모전 지원(팀 구성에 따라 금액 지원), 인턴십, 직무 스펙 역량 강화(영업, 기획, 마케팅, 비즈니스 협상, 인사관리 등 경영 분야 직무 교육과 실습), 취업 대비 과정(특강, 졸업예정자그룹 컨설팅), 전문가 특강, 선후배 멘토링, 경영학부 경진대회분야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향상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매년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 및 대기업으로 많이 진출 중이고, CPA 합격자 역시 다수 배출 중입니다. 최근 로스쿨로의 진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 가능 자격증】

공인노무사, CFA, 보험계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AICPA, 감정평가사, 관세사, CFP, 사회조사분석사, 상업 2급 정교사 등

【졸업 후 진로】

전문 경영인(공기업,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기업 및 금융권 관리직, 자격 취득 (국제공인생산재고관리자, 품질경영기사, 물류 관리자, 국제공인구매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공인노무사,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교수 연구 분야】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조직,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경영정보시스템

【FAQ】

Q. 경영대학 내 타학과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타학과는 회계, 금융, 벤처 등 경영학의 세부 전공으로 특성화되어 있지만, 경영학부는 경영학 전체를 아울러 학생들의 진로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학부입니다. 따라서 소속 교수님들의 전공도 재무/금융, 마케팅, 인사관리, 운영/생산관리, MIS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탄탄한 커리큘럼이 돋보이는 인재의 요람

송실대학교 경영학부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실력 있고 열정 있는 교수진을 자랑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기업이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는 커리큘럼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전문 분야의 교수진 확충과 연구 분야 확장 역시 현재진행형인 만큼 이곳에서 경영학을 공부한다면 경영 전문인력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기울일 것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들은 경영 전략과 방법론을 혁신하고 발전시켜야 하므로 경영학은 앞으로 더욱 심화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특히 경영정보시스템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학도들은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경영과 IT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두 분야 모두 잘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유성진 동문이 경험한

경영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열정적이고 실력을 갖춘 교수진
- ✓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커리큘럼
- ✓ 창업과 유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국내 최고의 회계와
세무 리더 양성

회계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제60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김명진

회계학과 19학번

회계학과는 지식 기반의 전문가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송실대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학과다. 회계학과의 비전은
송실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봉사'를 실천하고 이론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회계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자격증 획득 트랙,
공무원 트랙, 일반 기업 취업 트랙에 적합한 지도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반, 취업 컨설팅, 전문가 특강, 방학 특강,
멘토링 제도, 시험 설명회, 트리플 크라운 장학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과 설립	1981년
입학 정원	47명
전임 교원	9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accounting.ssu.ac.kr
tel.	02-820-0548

회계학과는 '역전 만루홈런'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저는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학과에 진학하고
회계사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면서 제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만약 회계학과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회계사라는 꿈을 꾸지도 못했을 것이고, '회계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계학과는 평범했던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회계학과는 단순한 전공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을 바꿔 준 '역전 만루홈런'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정과 전문성을 보고 선택한 길

회계학과를 지원할 당시만 해도 송실대학교 회계학과는 지금처럼 널리 알려진
학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수학을 좋아해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처음에는 그 방향으로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진로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외동이다 보니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졌고, 그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회계사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회계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중요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인재상]

- 회계 전문가로서 장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
- 성실성, 리더십 그리고 봉사 정신이 있는 학생

[주요 커리큘럼]

1학년 회계원리, 재무회계

2학년 중급회계1·2,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법원리, 세법개론1

3학년 세법개론2, 회계감사, 재무제표분석, 고급회계, 회계학연습, 원가관리회계연습, 비영리회계, 세무회계

4학년 전산회계, 전산세무, 금융회계, 재무회계세미나, 관리회계세미나, 세무회계세미나, 회계데이터분석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제, 실용경제
진로선택 기하, 경제수학

[동아리 및 소모임]

- Accounter(취업): 취업 준비 및 자격증 취득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

[학과 특색 프로그램]

-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세무공무원 시험 설명회: 고시반 운영진과 현직 선배가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시험제도와 로드맵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 회계경진대회: 회계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
- 취업컨설팅: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특강 및 1:1 컨설팅 프로그램
- 회계전문가 초빙 특강
- 멘토링 제도: 학과 선배와 후배 간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최근 3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대학교 순위 11위권

[취득 가능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국가공인자격증(전산회계, 전산세무, FAT, TAT) 1·2급

[졸업 후 진로]

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공기업, 금융기업, 일반 기업

[교수 연구 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관리회계

회계사 준비가 만든 또 다른 변화

저는 회계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내성적인 성격이 강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대부분도 회계사 시험 준비 과정에서 만나게 된 인연들일 정도로, 제 인간관계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전역 후 바로 회계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 '현의제 실장'을 맡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러 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명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즐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고 느낍니다.

송실대 회계학과에서 배우는 '기업의 언어'

회계는 처음 접하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학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계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계는 결국 '기업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듯, 기업은 회계를 통해 자신의 경영 상태를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단순히 자격증 시험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회계학과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학과 안에는 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와 목표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실대학교 회계학과에서 여러분만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진 동문이 경험한

회계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회계사 시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실전형 커리큘럼
- ✓ 성취를 자극하는 장학 및 학습 동기 시스템
- ✓ 전문직·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진로 연계 시스템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글로벌 실무 전문가

벤처중소 기업학과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베이킹몬 대표·
SPC삼립 상무
정부중

벤처중소기업학과
09학번



벤처중소기업학과는 1995년 국내 대학 최초로 개설된 창업 관련 학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설립되었다. 중소기업학과에서는 경영학, 회계학 분야 이론을 토대로 벤처기업 경영에 필요한 차별화된 경영 이론과 경영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을 학습한다. 교과과정은 경영 이론보다 응용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중심, 실용 중심적이다. 학생들은 글로벌시장 체험,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인턴십, 취업 선배 멘토링, CEO 특강 등의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학과 설립	1995년
입학 정원	56명
전임 교원	10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ensb.ssu.ac.kr
tel.	02-820-0590

벤처중소기업학과는 '기업가 정신'이다

벤처중소기업학과에는 Entrepreneurship(기업가 정신) 수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기업가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는데,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벤처중소기업학과 학생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지닌 자아로 이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흐름과는 다른 길, 창업의 꿈

저는 과거에 남성의류 쇼핑몰 '주봉샵'을 운영했고, 이어서 베이커리 식자재 플랫폼 '베이킹몬'을 창업했습니다. 해당 회사를 SPC그룹 삼립에 매각한 뒤에는 삼립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베이킹몬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전공을 선택할 당시에는 성적에 맞춰 학과를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과에서 성공하려면 경영학과를 나와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한다는 사회적

[학과 인재상]

- 기업이 정신을 갖춘 글로벌 인재
-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 실용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경영학의 이해, 경제원론, 회계원리, 경영수리와 통계, 재무회계
- 2학년** 마케팅, 조직행동론, Entrepreneurship, 창업과 Business Analytics, 소비자행동론, 자연어 처리 모델의 이해 및 적용
- 3학년** 창업아이템개발, 소매경영, 창업성장전략, 기술경영, 스타트업비즈니스모델개발론, 빅데이터와 Business Intelligence, 서비스경영, 벤처중소기업경영사례연구, Social&SME마케팅, 벤처경영전략
- 4학년** 벤처중소기업경영분석, 벤처캐피탈과 창업금융, 중소기업시장조사론, 벤처중소기업브랜드전략, AI데이터사이언스와 경영, 글로벌창업과 해외진출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제, 실용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심리학, 논술

진로선택 기하, 경제수학

[동아리 및 소모임]

시너지(창업 동아리):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창달을 통해 유능한 창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

[학과 특색 프로그램]

창업워크숍(사업계획서경진대회): 예비 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과 사업성 진단 등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전공지식 취득, 참여정신 함양,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분위기에 동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더 멋지게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로 벤처중소기업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선후배, 동기 중에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았고, 주기적인 창업경진대회와 창업동아리 등 주변 분위기 역시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도전의 길을 갈 것

예비 후배 여러분, 무리한 비교는 삼가길 바랍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에 열등감이 있었지만, 이를 긍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승화시켜 작은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향해 매진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길을 걸어주세요. 우리 후배님들 모두 파이팅하시길!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기업 '열정대학' 대표(유덕수 동문)
- 장애물이 곧 길이다 '파쿠르제너레이션' 대표(김지호 동문)
- 2020년 제6회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 2020년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 미니IR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장관상 수상

[졸업 후 진로]

금융권, 기획 및 마케팅 분야,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과 관련된 학계, 정책 참여, 연구기관, 전문연구원, 교수

[교수 연구 분야]

기업가정신, 마케팅, 창업/벤처경영, 유통, 프랜차이즈, 인공지능(AI), 전략경영, 국제경영, Business Analytics, Big Data, 응용미시계량, 정책효과분석, 계량경제사, 기술혁신전략, 벤처금융전략

[FAQ]

Q. 경영학부와 벤처중소기업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처음에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 많지만, 경영학부에서는 경영학 분야 중 마케팅과 재무회계 같은 세부 전공을 선택해 더 전문적인 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벤처중소기업학과는 창업과 관련된 전문 과목과 중소기업론에 특화되어 창업을 위한 지식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정부중 동문이 경험한

벤처중소기업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창업경진대회
- ✓ 창업동아리 '시너지'
- ✓ 학과 수업에서 체득한 기업가 정신

글로벌 금융,
디지털 금융

금융학부

SCHOOL OF
FINANCE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 전임

이호기

금융학부 12학번



송실대학교의 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2010년에 설립된 금융학부는 기독교적 인성 교육을 토대로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문적 역량, 실무 능력, 윤리의식을 겸비한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의 리더로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금융이론뿐만 아니라 CFA, FRM, CFP 등과 같은 자격증과 연계된 실용적인 내용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다. 세부 전공으로 글로벌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운영 중이다.

학과 설립	2010년
입학 정원	51명
전임 교원	8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finance.ssu.ac.kr
tel.	02-828-7385

금융학부는 '안전 자산'이다

급변하는 취업 시장과 치열한 사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탄탄한 실무 역량과 경쟁력을 길러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과에서 배운 전공 지식은 물론, 비교과 프로그램과 동아리·학생회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 그리고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는 현업에서 어려운 업무를 마주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처럼, 금융학부에서의 교육과 다양한 경험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믿음직한 기반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관심에서 확신으로, 금융학부를 선택한 이유

학창 시절부터 막연하게나마 경영·금융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당시, 송실대학교 금융학부가 특성화 학과라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학과보다 금융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금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인재상]

- 금융시장에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윤리적 덕성을 갖춘 학생
- 과학적 분석과 탐구에 지적 호기심이 강한 학생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조성과 사회적 소통을 결합할 수 있는 융합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

[주요 커리큘럼]

1학년 경제원론, 금융수학, 금융통계학, 재무회계

2학년 투자론, 재무관리, 금융시장론, 파생상품론, 금융프로그래밍 1·2

3학년 기업재무, 기업윤리, 자산관리, 국제금융시장론, 채권분석론, 블록체인기술의 이해, 금융애널리틱스, 금융머신러닝, 금융시계열분석

4학년 보험론, 금융사례연구, 금융특강1·2, 금융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응용, 데이터기반투자전략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 II, 경제, 정보, 독서

진로선택 경제 수학

[동아리 및 소모임]

Vips(기업가치평가분석), 하루살이(버킷리스트 실천), 금뽀(밴드), FBI(농구), SOF(축구), PAPERS(퀀트투자), QXIQ(산업·기업분석, 투자)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인텐시브 외국어 프로그램 1:** 영어 단기 어학연수
(하계방학 중 4주, 1학년 대상, 캐나다)
- **인텐시브 외국어 프로그램 2:** 중국어 방과 후 프로그램, 단기 어학연수
(하계방학 중 4주, 재학생 대상, 중국)
- **해외봉사 프로그램:** 동계방학 중 2주,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 대상

- **디지털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 Python, SQL 등(하계 및 동계방학 중 2주)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캠프, 전공 영어 프로그램, 금융 및 데이터분석 자격증 취득 지원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매일경제 대학(원)생 경제논문 현상공모 우수상
- 금융투자협회 K-OTC 애널리스트 최우수상
- KRX 전국대학생 증권 파생 경시대회 최우수상

[취득 가능 자격증]

CFA, FRM, CFP, CPA, 세무사, 보험계리사, ADSP 등

[졸업 후 진로]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및 금융 유관회사), 금융 공기업,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전문직(회계사, 세무사), 기업 및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교수 연구 분야]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경제, 금융공학, 금융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 머신러닝, 블록체인

[FAQ]

Q. 금융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업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금융학부에서는 융합적 사고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훌륭한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전공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시장경제·IT정보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으로서 금융업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에 대한 관심과 열정입니다. 교과·비교과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 등을 통해 금융인의 꿈을 키워온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동아리와 학생회, 또 하나의 성장 교과서

학업에도 충실했지만, 공부만 하는 학생이라기보다 학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금융학부 투자동아리인 'VIPs'에서도 잠시 활동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시 경험한 기업 리서치와 투자 분석 활동은 현재 주식 운용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러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해 본 경험은 취업 준비 과정은 물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강의실 안에서의 배움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강한 금융인을 만드는 힘

금융권은 트렌드의 변화가 빠르고 경쟁 또한 치열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얼마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느냐에 따라 현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깊이는 크게 달라집니다. 숏설대학교 금융학부는 여러분이 금융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뿌리이자 견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효기 동문이 경험한

금융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교육
- ✓ 금융과 데이터·프로그래밍의 융합 역량 강화
- ✓ 취업을 넘어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는 커리큘럼

자연과학대학

COLLEGE OF NATURAL SCIENCES

기초과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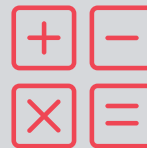
자연과학대학은 수리 및 논리적인 사고 함양으로 자연현상의 근본 원리와 변화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전문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인류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의 원리, 응용 및 융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자연과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학문적 가치가 높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기초과학과 첨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의생명시스템학부

창의성,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수학과

DEPARTMENT OF MATHEMATICS



수학과는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을 전공한 교수진이 주요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160여 명의 수학과 학생들은 전공 수업은 물론 최신 설비를 갖춘 전산실습실, 응용수학연습실, 세미나실에서 튜터링, 스터디그룹,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미국 Towson University 등 해외 대학과의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중등 2급 정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 과정도 운영 중이다. 수학과는 수학을 기초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키워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미적분학, 프로그래밍 및 실습, 통계학, 물리 및 실험, 화학 및 실험
- 2학년 선형대수, 해석개론, 미분방정식, 기하학, 벡터해석, 정수론, 집합론
- 3학년 수리인공지능, 수치해석, 다변수해석학, 복소수함수론, 위상수학, 미분기하학, 응용수학개론
- 4학년 현대대수, 수리통계학, 수리모델링, 금융수학, 최적화개론, 응용수학특강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진로선택 기하, 수학과제 탐구, 실용수학

【동아리 및 소모임】

- 시그마: 주기적으로 모여 축구 활동 및 친목 활동을 하는 소모임
- 힐링: 봉사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모임
- 리치스: 선후배 간 농구 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소모임

【학과 특색 프로그램】

창의력교육학교기업 현장실습, 원어민 교수 영어 교실,
컴퓨터 실습실 및 응용수학 연습실 운영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전국 대학생 수학경시대회 은상·동상 수상
- 교육부장관 기부대상
- 한국 수학교육학회 공로상(창의력수학교실을 통한 교육기부)

【취득 가능 자격증】

중등교사 2급 자격증

【졸업 후 진로】

교수·교사, 연구원, 일반기업, 정보보안, 빅데이터 및 컴퓨터 관련 기업,
금융(은행, 보험, 증권) 관련 업체, 전문자격증(보험계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진학(대학원, 유학) 등

【교수 연구 분야】

동역학, 복소해석학, 생물수학, 감염병 확산 모델링, 최적화이론, 정수론,
디오판토스기하, 암호학, 편미분방정식, 사교위상수학

【FAQ】

Q. 수학과는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나요?

A. 수학과에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점차 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학교과에만 몰입한 학생보다는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 특히 인문학적 역량도 갖춘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학 교과 외에도 폭넓은 학과 공부와 함께 다양하고 집중적인 비교과 활동을 주도한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정주영 동문이 경험한

수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수학의 원리를 접할 수 있는 창의력수학교실
보조교사 활동
- ✓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 선배 초청 홈커밍데이
- ✓ 외국인 교수님의 영어 지도로 대학원 진학에 도움

학과 설립	1979년
입학 정원	33명
전임 교원	8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math.ssu.ac.kr
tel.	02-820-0410

수학과는 '성장의 발판'이다

송실대학교 수학과는 저에게 있어 더 큰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성장의 발판'입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입학했지만, 학과에서 심화 수학을 학습하며 수학 그 자체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기, 선후배,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으로 수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었죠. 수학과에서의 성장과 성취를 통해 목표를 재설정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송실대학교
수학과 교수
정주영
수학과 06학번

수학자·수학 전문가로 우뚝 서다

현재 저는 송실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적화이론, 행렬이론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이 수학교사여서 송실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교직 이수 과정에서 심화 수학을 배우고,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와 동기들과의 토론을 통해 수학에 대한 열정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았고, 2017년 응용수학 최적화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순간을 놓치지 말 것

수학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며 한 번쯤 반짝이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잊지 말고, 수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수학과는 단순히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새로운 관점을 기르는 곳입니다. 수학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과 경험들이 앞으로의 길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양자 시대를 선도할
창의융합 인재

물리학과

DEPARTMENT OF PHYSICS



물리학은 자연에서 관찰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 단순한 규칙을 찾아 합리적인 모형을 세우고, 이론과 실험을 통해 논리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학문이다. 송실대학교 물리학과에서는 물리학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반도체, 프로그래밍, AI 관련 교과목 등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AX특성화(양자)를 통해 다가오는 퀀텀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학과 인재상 】

- 물리학의 핵심 개념을 습득한 창의 인재
- 독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실용 인재

【 주요 커리큘럼 】

- 1학년** 물리 및 실험, 기초물리응용, 미적분학, 화학 및 실험
- 2학년** 현대물리, 현대물리실험, 역학, 수리물리, 전자기학, 물리계측실험, 파동과 스펙트럼, 물리코딩방법론
- 3학년** 양자역학, 반도체물리, 통계물리, 양자컴퓨팅입문, 핵 및 천체물리, 전자소재물리, 광학, 광학실험
- 4학년** 고체물리, 입자물리 및 우주론, 차세대반도체, 양자정보물리, 고급실험, 졸업논문AX프로젝트, 물리학을위한AI, 양자·AI 프런티어세미나

【 선택교과 가이드 】

일반선택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Ⅰ, 지구과학Ⅰ
진로선택 물리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융합과학

【 동아리 및 소모임 】

파인만양성소(학술), 신우회(기독교), RPM(축구), 슬기로운 물리 잡학사전(학술)

【 학과 특색 프로그램 】

- 양자 특성화 교과 및 프로그램 운영
- 차세대반도체 연계전공 운영(차세대반도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참여)
- AI 반도체 융합전공 운영(인공지능반도체 융합인력양성 사업 참여)
- 양자나노 융합전공 운영
- 학부 연구생 제도 운영(졸업논문 연계)
- 튜터링 및 스터디 그룹 지원
- 송실 Q-물리 이야기 시행(학부양자AI해커톤, 학부 연구성과 및 대학원생 연구 발표회)
- 양자 계절 학교 시행(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튜토리얼)
- 대학중점연구소 동계/하계 학부생 인턴십(우주물리연구소 / 기초과학융합연구소 / G-LAMP)
- 기타 특성화 학과로서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 2021년 대학중점연구소 선정(우주물리연구소, 소장: 물리학과 천명기 교수, 연간 7억 7천만 원 최대 9년간)
- 2021년 대학중점연구소 선정(기초과학융합연구소, 소장: 물리학과 이윤상 교수, 연간 12억 1천만 원 최대 9년간)
- 2022년 학부연구생(이여진, 4학년) SCIE 등재 저널(Applied Physics Express)에 제1저자로 논문발표
- 2023년 학부연구생(김재원, 오승현) SCIE 등재 저널(Applied Physics Express)에 공동 제1저자로 논문발표
- 2024년 학부연구생(이예담) SCOPUS 등재 저널(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에 제1저자로 논문발표
- 2025년 교육부 선정 첨단학과
- 2026년 AX특성화 학과 선정(주제: 양자)

【 취득 가능 자격증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4년제 대학교 물리학 관련 학과 재학중 교직과목 이수 시), 변리사,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전자계산기사·반도체설계기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디지털제어산업기사·반도체설계산업기사, 방사선동위원소 취급면허, 원자력발전기술사·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열관리기사, 비파괴기사

【 졸업 후 진로 】

국책·기업체 연구소, 첨단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환경, 금융, 국방 등), 진학(대학원, 해외 유학), 교직(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전문 자격시험(변리사 등)

【 교수 연구 분야 】

반도체 소자 및 응용, 입자물리, 우주천체 및 핵물리, 고체분광학, 광학, 방사광가속기 및 X-선, 초전도체, 나노중시물리, 표면/계면/박막물리, 통계물리, 전산물리, 원자물리

김국태 동문이 경험한

물리학과와 특별함 3가지

- ✓ 기초와 최신 연구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커리큘럼
- ✓ 실질적인 연구 경험이 가능한 학부연구생 제도 및 연구 지원
- ✓ 확장된 연구·진로 환경과 산학 연계

학과 설립	1980년
입학 정원	44명
전임 교원	12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physics.ssu.ac.kr
tel.	02-820-0420

물리학과는 '나침반'이다

물리학과에서 쌓은 지식과 연구 경험은 제가 연구자로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방식은 지금도 연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상 속 본질을 찾고자 한 선택

원래 중학교 때까지의 꿈은 고생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접한 뒤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복잡해 보이는 다양한 자연 현상이 몇 가지 기본 법칙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지적 흥미에 이끌려 물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을 넘어 성숙으로 이어진 대학 생활

저는 대학 시절,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 공부에 집중하며 학교생활을 보냈습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했으며,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동료들과 함께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봉사활동과 농촌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대학 시절의 다양한 경험은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물리학의 가치

AI, 양자컴퓨터, 우주산업 등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역시 자연이 허용하는 법칙과 한계 안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근본 지식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숭실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그 가능성을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

포항 가속기 연구소
XFEL 선임연구원

김국태

물리학과 11학번



AX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교육

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화학은 재료, 화공, 전자, 기계, 의약학 등 첨단 산업 전반의 근간이 되는 주요 과학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다. 송실대학교 화학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최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화학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최첨단 실험장비를 활용한 몰입형 실습을 통해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체득한다. 특히, AI 전환(AI)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및 친환경 화학소재 등과 연계된 다각적인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기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맞춤형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 AX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과학 인재: 첨단 산업 전반의 근간이 되는 화학 전 분야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능력을 바탕으로, AI 전환 기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최신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과학자
- 신산업을 개척하는 첨단 창의융합 인재: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화학소재, 바이오헬스 등 다각적인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요구를 주도하는 창의적 통섭형 인재
- 실무 중심의 몰입형 전문 인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최첨단 실험장비를 활용한 고도화된 몰입형 실습을 통해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체득하고, 현장 실무와 연구계에서 기술 혁신을 실천하는 전문가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미적분학, 일반물리 및 실험, 일반화학 및 실험, 생화학
2학년 물리화학, 유기화학 및 실험, 분석화학 및 실험, 환경화학, 바이오신약화학
3학년 무기화학, 나노재료AI전산실험, 분자설계 및 합성, 분자구조분석, 기초생화학, 대사생화학, 생화학실험, 기초전기화학, 생물리화학, 물리화학실험
4학년 양자나노분광응용, 기기분석, 의약화학, 단백질생화학, AI기반단백질공학, 나노재료화학, 화학특강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Ⅰ
 진로선택 화학Ⅱ, 융합과학, 과학사

[동아리 및 소모임]

오비탈(학술), 신우회(기독교)

[학과 특색 프로그램]

- AX 특성화 교과 및 프로그램 운영
- 차세대반도체 및 인공지능반도체 융합전공 운영
- 양자나노 융합전공 운영
- 순환경제·친환경화학소재 융합전공 운영
- 학부 연구생 제도 운영(졸업논문 연계)
- 튜터링 및 스터디 그룹 지원
- 하계/동계 학부생 인턴십 운영
- 동문초청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취득 가능 자격증]

- 화공분야: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정밀화학기사, 화공기사, 화학류제조기사
- 환경 및 신소재 분야: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졸업 후 진로]

- 첨단산업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첨단 화학 소재 및 에너지 관련 기업
- 바이오 및 의약분야: 제약회사,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업, 바이오 신소재 연구
- 전문연구기관: 국가 연구소 연구원, 정부 산하 과학기술 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
-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원 진학, 대학교수, 중등교원 및 교육사업 종사자

[교수 연구 분야]

- 바이오·의약 및 생명화학: 의약화학, 화학생물학, 구조생화학, 단백질 구조 및 공학
- 첨단 나노·소재화학: 나노화학, 나노다공성 소재, 나노형광체, 나노센서, 바이오-나노과학
- 물리·에너지 및 분석화학: 분광학, 전기화학, 에너지소재, 생물리화학, 질량분석, 레이저-표면반응
- 미래 융합 및 환경 안전: 바이오센서, 환경유해인자 특성

[FAQ]

Q.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화학과는 물질의 구조, 성질, 변화를 분자 및 원자 수준에서 탐구하여 새로운 신물질을 창조하는 '기초 원천 과학'을 연구합니다. 반면, 화학공학과는 화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공정과 장비를 설계하는 '공학'에 초점을 맞춥니다. 송실대 화학과는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물질 자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 과학자를 양성합니다.

Q. AI 전환(AI) 시대를 선도한다고 하셨는데, 코딩이나 컴퓨터 언어를 잘해야 하나요?

A. 입학 전부터 프로그래밍을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학과는 화학 전 분야의 탄탄한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최신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화학 연구에 어떻게 접목(AI)하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산업에 적응할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인 생명과학부(생명과학 분야)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학문 모두 바이오 분야를 다루지만, 단위(스케일)와 접근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명과학이 세포나 유전체, 질병 메커니즘 등 생명체 시스템 전반의 생명 현상 자체를 관찰하고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화학과는 생명과학의 근간이 되는 분자, 단백질, 신약물질 등 미시적인 화학 결합과 소재를 직접 설계하고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즉,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근본 원리를 규명하고 새로운 바이오 신소재나 신약을 직접 창조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화학과가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김건룡 동문이 경험한

화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기초에서 응용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커리큘럼
- ✓ 직군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 선후배 간 활발한 소통

학과 설립	1981년
입학 정원	44명
전임 교원	10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chem.ssu.ac.kr
tel.	02-820-0430

화학과는 '가능성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다

화학과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학과입니다. 화학과의 커리큘럼은 교사, 약사, 제약, 화장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현대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동기와 선후배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 원하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화학과에서 시작된 연구원의 꿈

저는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서 배터리 파우치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LiBP(Li-ion Battery Pouch)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학과에서의 경험은 제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등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해 화학의 폭넓은 분야를 접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학부 2학년 때부터 전공 공부에 매진해 좋은 성적을 받았고, 화학 공부 자체를 즐기게 되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조교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과 선배들과의 소통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교수님들 또한 졸업생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후배들의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채로운 커리큘럼과 돈독한 공동체

화학과의 자랑거리는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커리큘럼과 돈독한 공동체입니다. 전기화학, 생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 기초 화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를 배울 수 있어 폭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배들은 후배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님들은 재학생과 졸업생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직장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조력자이자 친구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 바로 화학과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라!

화학과는 다양한 개성을 품은 학과입니다.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만,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화학과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항상 궁금해하고 찾아보는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고, 열정까지 있다면 대학원 진학과 이후 원하는 직군에서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원**김건룡**화학과
14학번

과학자, 보험계리사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통계학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학문이다. 반면, 정보통계학은 통계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응용 분야에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학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수리학은 보험, 금융, 인구학과 관련된 수리적 이론 및 분석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는 정보통계와 보험수리 분야를 결합한 국내 유일의 학과다. 충실한 커리큘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재학생은 전공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전문 인재
-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연금, 재보험 등 보험과 관련된 수리적 이론과 분석 방법론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재

【동아리 및 소모임】

랜덤(Random, 축구), 칼리프(농구)

【학과 특색 프로그램】

빅데이터 융합전공과정, AI모빌리티 융합전공과정, 빅데이터 분석 관련 특강, 국내보험계리사 자격증 고시반, 보험계리분야 전문가 특강,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보험계리실무를 위한 EXCEL 특강, 계리소프트웨어(Prophet)를 이용한 강의, 기초과학융합연구소 학부생 인턴십과정, STAR 전공 튜터링 프로그램, STAR 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빅데이터분석 관련 자격증 취득, 보험계리사 자격증 취득, 보험업계 재직 졸업생 지속적 증가

【취득 가능 자격증】

- 빅데이터 관련: 빅데이터분석기사, 사회조사분석사, SAS, ADP(데이터분석 전문가),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 전문가, SQL 개발자, DAP(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DAsP(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COS Pro(Python, C/C++, Java언어), 빅데이터 전문가(R 언어)
- 보험수리 관련: 보험계리사, SOA(미국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졸업 후 진로】

정부기관(통계청, 식약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금융감독원 등), 보험 및 금융 관련기관(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등), 연구기관(대학, 병원, 각종연구소, 조사전문기관 등), 의료 및 관련기관(병원, 제약회사, 헬스케어 관련 업체 등), 보험 분야 전문기관 및 컨설팅 회사

【교수 연구 분야】

- 정보통계: 빅데이터분석, 의학통계, 생물정보, 비선형모형, 생존분석, 범주형자료분석, 베이즈안분석, 경영과학
- 보험수리: 보험수리, 금융공학, 계리모형, 연금수리, 건강보험, 리스크관리, 보험재무

【FAQ】

Q. 미적분을 이수하지 않아도 학과에 적응하는 데 문제 없나요?

A. 질문에 대한 답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수리적인 능력과 흥미, 특히 미적분은 통계학과 보험수리를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적분을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태운 동문이 경험한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특별함 3가지

- ✓ 단계적으로 설계된 체계적 커리큘럼
- ✓ 진로 맞춤형 전공 선택 구조
- ✓ 실무 연계 및 선배 네트워크 기반 지원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ACTUARIAL SCIENCE



학과 설립	1988년
입학 정원	41명
전임 교원	9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stat.ssu.ac.kr
tel.	02-820-0440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는 '꿈의 출발점'이다

이곳에서 처음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도움과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통해 발견한 흥미

처음에는 통계라는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 때문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통계를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이 재미있다고 느껴 자연스럽게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의 변화와 성장

장래희망이 뚜렷하지 않았던 1학년 때는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보험계리사라는 꿈을 갖게 된 이후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보험 관련 지식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만큼 성장하는 학과

최근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목표로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확고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학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해상
장기상품개발파트

김태운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19학번



Digital Biology
바이오헬스케어

의생명 시스템학부

송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생명정보학과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최근 질병 치료를 위해 개인의 유전 정보에 기반한 정밀의료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명과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송실대학교 생명정보학과는 2010년 의생명시스템학부로 승격되었다. 의생명시스템학부는 생명과학과 생명정보학 분야의 세부 전공을 운영하며, 가장 균형 잡힌 생명과학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적인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지식을 고루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일반생물 및 실험, 물리 및 실험, 화학 및 실험, 생명정보개론, 바이오컴퓨팅 및 실험
- 2학년** 미생물학 및 실험, 생명유기화학, 알고리즘, 의생명공학, 생물물리학, R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생화학1, 단백질화학 및 실험, 바이오세포실험, 응용미생물학, 화합물빅데이터, 합성생물학개론, 오믹스
- 3학년** 생물통계, 생화학2, 구조생물학, 분자생물학, 화학정보학, 유전체학개론, 산업미생물학, 세포생물학, 네트워크생물학, 바이오의약, NGS데이터분석
- 4학년** 유전학, 면역학, 의생명시스템론, 바이오인공지능, 메타제노믹스, 세포치료, 시스템생물학, 바이오시스템설계, 컴퓨터기반신약개발, 후성유전학, 면역질환, 비교유전체학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화학Ⅰ, 생명과학Ⅰ, 생활과 윤리, 환경
진로선택 화학Ⅱ, 생명과학Ⅱ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소개】

- **첨단바이오의약(Advanced Biopharmaceutical Microdegree):**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 **AI활용 신약개발(AI Aided Drug Discovery Microdegree):**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개발과정 및 이론들을 이해하고 AI와 기계학습 알고리즘, Computer Simulation 등을 활용한 실험을 통하여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운다.

【동아리 및 소모임】

신우회(기독교), 바이오하자드(농구), 바이러스(축구), Bee Happy(환경, 양봉), MediUp(창업, 발명)

【학과 특색 프로그램】

교수 연구 참여 실험실 인턴, 기업체 견학, 논문지도 교수제,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장학금(현용장학금)

【취득 가능 자격증】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품질경영기사(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졸업 후 진로】

생명과학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바이오벤처기업, 진단신약 개발, 제약회사, 식품 및 화장품 관련 기업, 환경 기업, IT 기업, 진학(대학원 및 유학) 등

【교수 연구 분야】

면역학, 생명정보학, 구조생물학, 진균학, 나노의약, 생물물리학, 통계유전학, 분자생물학, 화학정보학, 신약설계

【FAQ】

- Q. 의생명시스템학부가 다른 대학의 생명과학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A. 의생명시스템학부의 모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송실대학교 생명정보학과입니다. 다른 대학의 생명과학과가 생명과학기술 교육에 초점을 둔다면, 송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는 생명과학기술과 정보기술 지식을 갖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김준일 동문이 경험한

의생명시스템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국내 최초의 생명정보학과로서 학계와 업계에 큰 영향력
- ✓ 생물학과 컴퓨터학을 융합한 경쟁력 있는 융합학문
- ✓ 교수진과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인맥

SCHOOL OF SYSTEMS BIOMEDICAL SCIENCE



학과 설립	2001년
입학 정원	51명
전임 교원	11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bioinfo.ssu.ac.kr
tel.	02-820-0450

의생명시스템학부는 '이정표'다

의생명시스템학부는 제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학부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융합학문에 도전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러 학문을 융합해 적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쌓은 인맥이 업계와 학계에서 나아갈 길을 보여 주었으며, 해외에서 박사후연구원 생활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택, 시대를 이끄는 학문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과 개인 맞춤형 유전체의학 시대를 이끌어야 할 학문으로 생명정보학을 가르치는 학과를 송실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개설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물학과 컴퓨터학을 동시에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 두 가지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두 학문을 모두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고, 두 분야를 함께 활용해야 하는 업무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5년에 생명정보학과 (의생명시스템학부의 전신)를 졸업하고, 현재는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국내 최초의 생명정보학과라는 명성에 걸맞게 생명정보학과 유전체학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졸업생 금창원 동문(01학번)은 개인유전체 검사를 통한 희귀질환을 아이템으로 하는 '쓰리빌리언'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저 또한 학계에서 여러 교수님을 만나거나 업계 대표님들을 뵈 땐 송실대학교 졸업생들을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자주 듣곤 합니다. 우리 학과가 경쟁력 있는 융합학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학문으로 미래를 개척하라

우리 학과는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어 취업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융합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이 시대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학문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익숙해진다면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생명정보학은 데이터사이언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학과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생물학 지식까지 갖춘다면 '도메인 지식'을 가진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
김준일

의생명시스템학부
01학번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새로운 미래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송실대학교 공과대학은 국내 최초 전자계산학과 설립을 시작으로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미래를 열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과대학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연구와 도전 정신을 강조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기술 혁신에 부응해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NT(나노기술),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기술), 융합 교육



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송실대학교 화학공학과는 본교 공과대학 창설과 함께 시작되어 5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화학제품 및 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과 장치 등을 개발하는 화학 기술 창조를 위한 기초 학문을 교육함으로써, 화학공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를 양성해 왔다. 더불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NT(나노기술),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ET(환경기술)를 접목한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 화학공학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SK하이닉스
양산기술
엔지니어

박진아

화학공학과
19학번

[학과 인재상]

- 스스로 창의적 연구 및 응용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 화학공학에 대한 전문지식, 화학공정에 대한 해석 및 설계 능력을 갖춘 인재
-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인재
- 기독교적 가치관과 봉사 정신을 갖춘 공학 인재

[주요 커리큘럼]

화공열역학, 화공유체역학, 반응공학, 촉매공학, 공정제어, 분리공정, 이동현상, 석유 및 정밀화학, 반도체공학, 생물화학공학, 환경공학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 I, 화학
진로선택 기하, 화학 II, 공학일반, 융합과학

[동아리 및 소모임]

취업소모임(Accounter): 취업준비 및 자격증 취득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

[학과 특색 프로그램]

- 현장 견학(산업시찰 및 공장견학)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환경부 주최 물환경정책 기술 공모전 대상 수상
-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경진대회 입상
- 한국화학공학회 창의설계경진대회 은상 수상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화공기사, 생물공학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화학분석기사, 폐기물처리기사, 가스기사, 화학류제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박진아 동문이 경험한

화학공학과와 특별할 3가지

- ✓ 연구와 교육에 모두 탁월한 교수진의 열정적인 지도
- ✓ 화학공학 연구실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 경험 확대
- ✓ 다양한 산업(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으로의 진출 가능성

[졸업 후 진로]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반도체, 정보/전자, 에너지/환경, 고분자, 촉매, 배터리, 정밀화학,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의약/화장품, 제약/식품분야 엔지니어

[교수 연구 분야]

- 공정모델링 및 모사, 공정설계, 공정조업, 공정관리 연구
- 티타늄 나노 튜브를 이용한 연료감응 태양전지 연구
- 천연화장품 소재, 대체시험법 등의 뷰티공학 연구
- 대기오염물질(PFCs, VOCs, NOx) 처리 기술 연구
- 고효율 저비용 에너지 소자 및 나노 소재 연구
- 차세대 이차전지 소자 및 소재 연구
- 제약물질의 결정화 설계
-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
-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생체모방 소재 개발 및 응용 연구
- 전기화학소재/촉매 합성 및 분석
- 기능성 고분자 정밀 합성 및 응용 연구
- 수소, 탄화수소, 온실기체 등의 에너지 효율적 분리 및 흡착을 위한 다공성 나노 소재 개발 및 엔지니어링
- 정보전자용 고분자 첨단소재 및 전자소자 연구
- 저에너지 수소 저장 및 직접 공기 포집 플랫폼 개발

[FAQ]

Q.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화학과는 전통적인 화학 분야에서 원자 및 분자의 성질, 구조, 그리고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주로 이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화학공학과는 석유, 석유화학, 화장품, 제약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는 '나침반'이다

그 이유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원리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주었기 때문입니다. 화학공학은 단순 계산이나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역학, 반응공학, 유체역학 등 다양한 전공과목을 배우며 어떤 문제든 중심을 잃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화학공학은 사고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같은 학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수업이 열어준 반도체의 세계

화학공학과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은 진로를 탐색하고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반도체공학' 전공과목을 수강하면서 반도체 공정 내의 화학 반응, 박막 증착, 식각 등과 같은 기술들이 화학공학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후 화학공학도로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정을 개선하고, 성과를 내면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화학공학은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 만큼, 다양한 전공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으로

화학공학과는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로 선택의 폭이 넓고,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개인이 성장할 가능성도 큼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한 과목씩 따라가다 보면, 분명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학을 고민 중이라면 꼭 화학공학에 도전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학과 설립	1968년
입학 정원	91명
전임 교원	14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chemeng.ssu.ac.kr
tel.	02-820-0610

첨단 신소재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신소재공학과는 1967년 섬유공학과로 출발하여,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를 거쳐 오늘날의 신소재공학과로 발전해 왔다. 반세기 이상 첨단 소재연구와 인재 양성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신소재공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 학과는 첨단 소재 연구 및 친환경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수진과 학생 간의 협력적 연구 문화를 조성하여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삼성전기
MLCC 개발팀
프로

허태환

신소재공학과 07학번
신소재공학과 박사 졸업
(신소재공학 전공)
(2022년)

[학과 인재상]

- 신소재공학 분야의 최신 학문과 실무 중심의 응용 기술을 교육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탄탄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리와 봉사 실천을 통한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 및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춘 지도자 양성
- 신소재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래 지향적 글로벌 인재 양성

[주요 커리큘럼]

1학년 물리2, 재료과학, 창의설계

2학년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고급공학수학, 통계학, 재료역학, 고분자공학, 재료결정학

3학년 고체물리, 금속공학, 세라믹공학, 계면과학, 재료상변태, 유기신소재합성, 유기소재구조와 물성, 고분자프로세싱, 신소재스마트센서, 기기분석, 에너지소재, 반도체공학, 신소재공학실험

4학년 반도체공정, 스마트웨어러블, 유기전자소재, 정보디스플레이공학, 고분자복합소재, 친환경소재, 나노소재, 섬유공학, 바이오소재, AI전산재료과학, 종합설계, 졸업논문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Ⅱ

진로선택 기하, 화학Ⅱ, 공학일반, 융합과학

[동아리 및 소모임]

USP(축구), SSWH(야구), 신우회(기독교), DPS(농구), 소재픽(신소재기자단)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콜로퀴엄(1·2학기)
- 산업 시찰(산업체 견학 프로그램)
- 피자잇데이(학생과 교수의 대화 시간)
- 신소재의 날(학술교류회)
- 취업설명회(우수 동문 초청 세미나)
- 학위 수여식(학과 주관)

허태환 동문이 경험한

신소재공학과의 특별함 3가지

- ✓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잘 짜인 커리큘럼과 국내 최고 수준의 분석 장비
- ✓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열정을 쏟는 젊은 교수진
- ✓ 소모임을 통한 선후배와의 활발한 교류

- 각 연구 분야 실험실 운영 및 학부연구생 제도
- 졸업논문 지도교수제
- 융합전공(인공지능반도체, 에너지공학, 스마트자동차, 순환경제·친환경화학소재)
- 사무식, 진로·취업프로그램, 사진공모전, 멘티-멘토 프로그램

【졸업 후 진로】

신소재공학은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친환경 고분자, 섬유, 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신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신소재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소재공학 전공자는 산업, 연구, 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갖게 된다. 졸업 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친환경 소재, 고분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소 및 정부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또한, 신소재공학의 전문성을 살려 벤처 창업을 통해 기업가로 성장하는 길도 열려 있다.

【졸업생 주요 진출 현황】

- **기업체**: 삼성, LG, 현대/기아, 한화, 두산, 효성, 코오롱, 도레이, 이랜드, 롯데, 아모그린텍, 동우화인켐, 벅텍스, 한세실업, 신원그룹, 한솔섬유, 세아상영, 휴비스, 일신방직, 대한방직,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상아프론테크 등
- **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화학연구원, 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 원자력연구원, 전기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교수 연구 분야】

스마트웨어러블, 나노탄소소재, 나노하이브리드소재, 열경화성액정복합재료, 지능형초분자나노재료, 스마트의류, 에너지·극한환경소재전산설계, 기능성나노전자재료, 무기나노재료, 광전소재 및 소자, 고분자나노소재, 반도체박막공정

【FAQ】

Q. 신소재공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 할까요?

A. 수학, 과학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이러한 기초 학문을 토대로 융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창조적으로 학습하며 개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학문을 갖추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이 도전하면 좋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인생의 이정표'다

송실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저에게 이정표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초반에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신소재공학과에 들어와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잘 짜인 커리큘럼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진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문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아낌없이 나눠 주셨고, 덕분에 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실무 역량의 산실

현재 삼성전기 MLCC 개발팀 외부전극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학부-대학원으로 이어진 커리큘럼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잘 짜인 커리큘럼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재료에 대한 지식이 복합 재료를 다루는 업무에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시찰 프로그램과 학기마다 진행하는 콜로퀴엄도 인상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시찰을 통해 선배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볼 수 있었고 콜로퀴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 실제 산업에서 어떤식으로 활용되는지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학과의 첨단 분석 장비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학부연구생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며 분석 능력을 길렀고, 이는 기업 업무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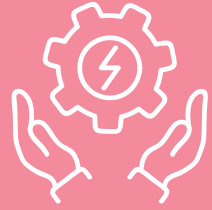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일상에서 마주치는 재료들을 보며 늘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세요. 이런 자세로 공부에 임한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과의 첨단 분석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훌륭한 교수님들과 소통하며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겠죠. 미래의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학과 설립	1968년
입학 정원	88명
전임 교원	12명
교과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materials.ssu.ac.kr
tel.	02-820-0620

단일 전기공학 분야
국내 최대 규모

전기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송실대학교 전기공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인 전기에너지와 전기 정보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한다. 전기공학부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기공학 응용 분야를 아우르는 이론과 실습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논문 작성, 공모전 참여 등 실천 경험을 쌓는 기회도 제공한다.

HD한국조선해양 전동화센터
선박전동화 연구실
책임연구원

강남숙

전기공학부
08학번



[학과 인재상]

- 탄소중립 및 지능형 전력계통과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인재
- 능동적이며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

[주요 커리큘럼]

1학년 공학수학, 공학물리, 기초프로그래밍

2학년 고급공학수학, 회로이론, 디지털시스템, 전자기학, 전자공학, 전자장해석, 회로망해석, 전기전자기초설계, 기초전기전자실험, 에너지변환공학

3학년 전자회로, 전자기기, 전력공학, 제어공학, 전력전자, 전력계통공학, 전기전자요소설계, 수치해석, 신호 및 시스템, 디스플레이원리, 디스플레이재료, 전기전자재료, 고전압방전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머신러닝기초

4학년 현대제어, 마이크로컨트롤러, 디스플레이공학, 공학경영, 전기전자종합설계, 인공지능개론, 전기자동차공학, 전력IT 및 배전공학, 메카트로닉스, 초전도응용,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신호처리, 전기공학특강,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 I, 화학 I

진로선택 기하, 물리학 II, 융합과학, 공학일반

[동아리 및 소모임]

IMPROVE(학술 소모임): 전공 과목 스터디 진행, 프로그래밍 학습 및 교내외 공모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에너지공학 융합전공트랙: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과 에너지 관련 과목 이수
- 디스플레이 트랙: LG디스플레이와 협약해 장기 인턴십 및 취업 연계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2024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수상

강남속 동문이 경험한

전기공학부의 특별한 3가지

- ✓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 주는 교육 시스템
- ✓ 학생 성장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지원 제도
- ✓ 교수님과 함께 설계하는 진로·연구 성장 경로

[취득 가능 자격증]

전기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공사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공사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졸업 후 진로]

- 전기 에너지 분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 중공업 분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등
- 전자 분야: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 자동차 분야: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 건설회사, 정보통신, 전기계측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 가능

[교수 연구 분야]

전기기기, 비파괴검사, LCD, 제어, 신호처리, 시스템생물학, 기체방전, 조명공학, 디스플레이 구동시스템, 전력경제, 전력시스템 제어, 마이크로웨이브 분석, 플라즈마, 전력전자 및 신재생에너지변환,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초전도전력응용, 전력계통보호, 생체전기, 전자소재최적설계, 전력전자, 신재생에너지, 신호처리,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스마트그리드, 자연모사공학, e-모빌리티, 최적화 알고리즘, Computation 알고리즘, 마이크로그리드

[FAQ]

Q. 전기공학과와 지능전자공학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기공학부는 발전, 송배전 시스템 및 회로설계, 제어공학과 관련된 학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관련 전문분야를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하지만 전기공학의 응용 분야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장되면서 응용 분야 측면에서 지능전자공학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부는 '황금 닻'이다

전기공학부에서 쌓은 탄탄한 기초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은 사회라는 거친 바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특히 현재 친환경 선박 전동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기공학부는, 제 인생과 커리어가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바다 위에서 단단히 붙들어 준 가장 소중한 닻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이끈 성장의 시간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호기심을 원동력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학업에도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강의실 안에서 머물기에는 세상에 흥미로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봉사활동, 환경 동아리, 공모전, 전기공학 관련 외부 교육 등 관심이 생기는 분야라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친환경 선박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결국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자주 실감합니다. 대학 시절 쌓은 전공 지식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른 협업 능력과 도전 정신은 지금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선택

수험생 여러분, 요즘은 수능 점수나 학과의 인지도만을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 전공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과 커리어를 함께할 '나만의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미래 산업을 이끄는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다면, 저는 주저 없이 전기공학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기반은 바로 전기와 전력 기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전기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AI, 로봇, 자율주행,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에 이르기까지 미래 첨단 산업이 발전할수록 전기공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전기공학은 단순히 전기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기반을 설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전기공학부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가 전기공학부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와 땅, 그리고 미래의 하늘을 바꾸어 갈 여러분을 선배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학과 설립	1969년
입학 정원	107명
전임 교원	17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ee.ssu.ac.kr
tel.	02-820-0640

자동차·항공, 전자·반도체, 로봇,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계공학 AX 융복합 교육



기계공학부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은 역학을 바탕으로 기계 시스템의 설계·해석·제작·제어 전 과정을 배우는 융합 학문으로, 인류의 삶과 산업을 혁신해 온 핵심 공학 분야이다. 송실대학교 기계공학부는 인간-기계-AI 협업지능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하는 차세대 공학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전공 이론 교육과 실험·실습, 캡스톤디자인 교육을 통해 미래산업 대응 역량을 함양하고, 물리적 사고력과 디지털 문해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한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제네시스전동화소음진동시험팀
연구원

김원빈

기계공학부
19학번



[학과 인재상]

- 기계공학의 근간인 역학과 첨단 AI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 물리적 사고력과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융복합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재
- 인간-기계-AI 협업지능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 글로벌 소통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공학물리, 공학수학, 공학화학, 인공지능프로그래밍기초, 정역학, 피지컬 AI 설계입문
- 2학년** 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지능형 구조역학, 전산기계제도, 기계공학실험, 고급공학수학, 응용프로그래밍, 기구학
- 3학년** 기계요소설계, AI 기반 스마트 제조공학, 동력추진공학, AI 융합 고등 유체역학, 기계진동학, 피지컬 AI를 위한 메카트로닉스, 열전달, 자동제어, 피지컬 AI 구동기, 재료공학, 수치해석, 나노공학
- 4학년** 피지컬AI캡스톤디자인, 피지컬 AI 마이크로컨트롤러 시스템, 광학시스템공학, 기계설비공학, 디지털 제조, 첨단 자동차공학, 에너지공학, 로봇공학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Ⅰ
진로선택 기하, 물리학Ⅱ, 융합과학, 공학일반

[동아리 및 소모임]

- 소모임: SSARA(자동차 연구회), 천금비(항공기 연구회), ACCA(제어학회)
- 동아리: 공차쇠(축구)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산업체 견학: 제조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문적 이해를 확장하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송실 기계인의 밤: 동문회 및 학과의 단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대화의 자리
- 풀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하고 여흥을 즐기는 축제

김원빈 동문이 경험한

기계공학부의 특별한 3가지

- ✓ 이론이 현업으로 직결되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
- ✓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연구 및 실험 기반 교육
- ✓ 설계-제작-협업까지 이어지는 실습형 인프라 및 동아리 생태계

[취득 가능 자격증]

일반기계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계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기계설비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기계설계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졸업 후 진로]

- **자동차/중공업:**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자동차, 르노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HD현대미포, 현대미포조선, 두산밥캣, 현대위아, 효성중공업, 에스엘,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 **전자/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일진머티리얼즈, 삼성SDI, 삼성전기, DB하이텍, 동부파인셀, 원익 등
- **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삼성E&A, 포스코이앤씨, DL E&C, 동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등
- **건설사:** 삼성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SK건설, 포스코이앤씨, DL E&C, 한화건설 등
- **제조 관련:** 현대모비스, HD현대인프라코어, 한화비전, 만도, 한온시스템, LS케미칼, CJ,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내셔널, LS일렉트릭, 한국타이어 등
- **에너지 산업:**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지빌리티,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한화솔루션, 두산퓨얼셀 등
- **철강/제지:**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 고려제강, 동부제철, BNG스틸, INI스틸, 케피코,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교수 연구 분야]

지능형메카트로닉스, E-모빌리티, 정밀공학, 지능형로봇시스템,
기능성나노소재, 신재생에너지응용, M³ 전달현상, 스마트구조 및 동적시스템,
광학시스템, 마이크로로봇, 지능형소재 및 제조설계

기계공학부는 '소나무'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기초라는 뿌리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경험이 만든 엔지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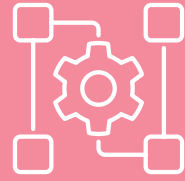
1학년 때부터 기계공학부 축구 소모임 '공차식'에 참여하며 선후배 간의 관계를 형성했고, 3학년부터는 중앙동아리 SSC에서 활동하며 타 학과 학생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3학년 때 공차식 회장을 맡아 유니폼 제작, 인스타그램 개설, 공대소리가 우승 등을 통해 엔데믹 이후 소모임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작자동차연구회 SSARA에서 카울 제작, 모노코크 및 현가장치 설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습니다. 3학년 2학기부터는 진동연구실에서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를 진행하며 진동학, 신호처리 등 기초 이론을 더욱 탄탄히 다졌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에는 글로벌 공학설계 봉사단 SSUVEE에서 언어교육 팀장으로 활동하며 현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팀과 함께 적정기술을 설계하고, 사후 활동 문집 제작까지 담당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회 총무부원, 학과 사무실 근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역할을 병행했습니다.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들이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NVH 개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로서의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계공학, 산업을 관통하는 기반

변화하는 AI 시대일수록 기계공학부의 선택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 학문입니다. 기계공학부에서는 4대역학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 과목을 통해 물리 법칙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릅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초는 미래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기계공학은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자동차, 항공, 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계공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친환경 기술,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 등 미래 산업이 발전할수록 기계공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설립	1969년
입학 정원	91명
전임 교원	12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me.ssu.ac.kr
tel.	02-820-0650

시스템적 사고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산업시스템의 과학적 경영을 주도



산업·정보 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는 산업공학으로 출발해 산업, 연구, 교육 분야 인재를 배출해 왔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산업 전반에 정보 시스템 적용이 활발해지면서, 1998년 산업·정보시스템공학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시스템적 사고방식 함양을 목적으로 최적화된 관점에서의 접근법을 교육하고 있다. 더불어 문제 해결 능력, 데이터와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능력, 정보 시스템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부총학생회장

안가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23학번



[학과 인재상]

- 시스템적 사고방식 및 접근법 습득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 데이터 및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 시스템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최적화 능력을 갖춘 인재
- 의사소통 능력 및 국제적 적응력을 갖춘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프로그래밍, 산업정보시스템공학개론, 확률통계, 공학설계입문
- 2학년 선형대수, 경영정보시스템, 생산시스템관리, 인간공학, 경제성공학, 정보시스템분석 및 설계
- 3학년 OR, 데이터마이닝, 공급사슬관리, 품질경영, 최적화응용, 프로젝트 관리, 스마트작업설계, 실험계획법, 프로세스경영, 시스템시뮬레이션, 제품개발과 경영
- 4학년 전공종합설계 및 논문, 데이터애널리틱스, 인간컴퓨터상호작용, 스마트팩토리설계, 스마트AI시스템, 의사결정모형, 안전공학, 지속가능경영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 I, 화학 I, 경제, 정보
진로선택 기하, 융합과학, 경제수학, 공학일반

[동아리 및 소모임]

U&I(학술), SAFER(학술), IISSUE(산공기자단), IESC(축구), 신우회

[학과 특색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산업공학심화)
- 국내 산업체 견학 프로그램
- IISE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
- 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안가은 학부생이 경험한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의 특별한 3가지

- ✓ 다양한 커리큘럼과 폭넓은 직무 선택
- ✓ 학과 전용 오픈라운지, 전산실 등 최고의 학습 환경
- ✓ 해커톤, 산업시찰, 해외탐방, 자격증 취득비용 등 최고의 지원

【취득 가능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SQLD,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 준전문가&전문가, 품질경영기사,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등

【졸업 후 진로】

제조(자동차, 전자, 기계, 소재 등), IT(정보시스템, 인프라, 서비스, 개발 등), 물류, 금융, 식품, 이커머스, 통신, 컨설팅 등

【교수 연구 분야】

품질경영, 제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최적화, 최적화, 스케줄링, e-비즈니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사회시스템공학, 안전공학, 인간공학, 제품/서비스개발, 지속가능디자인, 경영과학, 정보시스템, 생산시스템공학

【FAQ】

- Q. 산업·정보시스템공학대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 A. 주어진 과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력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고자 하는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는 '설계도'이다

어떤 일이든 더 나은 방식으로 효율화하고 최적화하는 사고방식을 길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공학을 대표하는 '최적화'는 최소 인풋으로 최고 아웃풋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수리 모형화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도출합니다. 시스템 최적화 달성하는 방법을 익히며 최적화된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데이터에 눈뜨다

처음에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최적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데이터 분야에 집중해 탐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생기부도 산업 최적화, 유통 최적화,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로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특성이 산업공학과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선택하게 됐습니다.

학과 전용 공간에서 더 깊은 전공 몰입을

형남공학관 7층은 산업·정보시스템학과 전용층으로, 이곳의 오픈라운지와 전산실습실은 학과의 큰 자랑입니다. 산업·정보시스템학과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스터디룸, 고성능 컴퓨터가 갖춰져 있어 과제나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전산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해커톤, 산업체 현장 방문, 정병희 프로그램(해외 탐방) 등은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체감할 값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전공,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는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경영, IT, 제조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 혹은 효율성과 최적화를 중시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학과 설립	1975년
입학 정원	85명
전임 교원	10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iise.ssu.ac.kr
tel.	02-820-0690

우리 삶이 영위되는
건축 환경의 총체적 조성에 기여

건축학부

SCHOOL OF ARCHITECTURE



송실대학교 건축학부는 국내 최초로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건축 등 세 가지 전공을 한 학부 내에 구성한 교육과정을 갖추었다. 건축학전공은 5년제 건축설계 전문학위 과정으로, 디자인 감각과 기술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건축공학전공은 구조, 재료, 공법, 건설 관리, 시공, 환경 및 에너지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제공한다. 실내건축전공은 인간과 공간에 대한 학제적 교육과 창의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실습으로 프로페셔널 디자이너와 실내건축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송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수광

건축학부 05학번



[학과 인재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습득해
미래지향적인 공간과 환경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주요 커리큘럼]

건축학전공(1~5학년): 기초건축설계1-2, 건축개론, 건축환경물리, 디지털표현1, 건축구조의 이해, 기초공학수학1, 건축설계1-2, 건축구조시스템, 건축사1-2, 건축계획, 건축재생과 재료, 건축설계3-4, 친환경건축, 디지털표현2, 도시 및 지역계획, 건축설비, 건축설계5-6, 도시건축공공공간, 한국건축사, 건축법규 및 계약, 건설관리 및 시공, 건축설계7-8, 졸업설계논문, 건축통합시스템 및 안전, 건축설계실무 및 경영

건축공학전공(1~4학년): 구조역학 및 실습, 강구조, 건축리모델링, 건축IT, 건축시공 및 적산, 건축설비, 건축경제, 건설관리 및 경영, 건축시스템종합설계, 안전성능 및 진단평가, 건축에너지

실내건축전공(1~4학년): 인클루시브디자인스튜디오, 커머셜디자인스튜디오, 퍼블릭&컬처디자인스튜디오, 컨버전스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서스테이너블디자인, 가구계획과 디자인, 컬러디자인, 디자인과 인문학, 디자인과 재료, 공간심리학, 공간스토리텔링과 전시기획, 조명디자인, 휴먼팩터스, 한국공간의 이해, 소셜디자인, 컨스트럭션디테일링, 어드밴스디자인스튜디오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물리학 I, 화학 I, 기술·가정, 미술, 심리학
진로선택 기하, 물리학 II, 융합과학, 공학일반, 미술감상과 비평, 미술창작

[동아리 및 소모임]

건축구조동아리, CM동아리, T.P.A, Fol'm, 세움, 시대정신(학술 소모임), 위드(축구), 신우회(기독교 모임), 인스타(기자단)

[학과 특색 프로그램]

- **국제스튜디오:** 해외 대학과 공동 설계스튜디오를 개최하고 인력과 정보의 교류 통해 건축환경 조성에 대한 시각 배양
- **실무 인턴십 제도:** 국내외 건축설계사무소 인턴십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전 과정 관리

정수광 동문이 경험한

건축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건축을 다학제적으로 이해하는 통합형 교육과정
- ✓ 사람의 삶과 직접 연결된 실용적 건축 교육
- ✓ 학부-대학원-연구로 이어지는 진로 기반 교육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2022년 건축구조경진대회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회장상 수상
- 2023년 공간국제학생건축상 대상 수상
- 2023년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 부울경지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취득 가능 자격증]

- 건축학전공: 건축사, 건축기사 등
- 건축공학전공: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사 등
- 실내건축전공: 실내디자이너,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등

[졸업 후 진로]

- 건축학전공: 건축설계(건축가) 등
- 건축공학전공: 건축엔지니어링,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 실내건축전공: 인테리어디자이너, 실내건축가, 디자인기획, 가구, 색채 전문가 등

[교수 연구 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역사 및 이론비평, 도시계획, 저탄소지속가능건축, 지역재생, 건축시공·건설관리, 건축구조 및 내진설계, 건축환경

[FAQ]

- Q. 입학 후 건축공학에서 실내건축으로 전공을 바꾸거나, 실내건축에서 건축공학으로 전공을 바꿀 수 있나요?
- A.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모집 단위가 분리되어, 전공 변경 시 전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과 신청은 2~3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복학 예정자)을 대상으로 매년 초(1월 초/중순)에 진행됩니다.

건축학부는 '출발점'이다

처음 건축학부에 입학했을 때는 건축이라는 분야를 단순히 집을 짓고 공간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부 과정에서 설계, 구조, 시공, 환경, 설비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건축이 사람의 삶과 사회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부 시절의 배움은 제가 건축환경과 건축설비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단순히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대학원 진학과 연구 활동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다시 숭실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숭실대학교 건축학부는 제 진로가 시작된 곳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아닌, 삶을 바꾸는 건축

제가 건축학부를 선택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TV 프로그램 '러브하우스'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집을 고쳐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건축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사람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고, 자연스럽게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숭실대학교 건축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공간과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 건축

건축학부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전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건축이라고 하면 설계나 시공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건축환경, 구조, 재료, 설비, 에너지, 도시, 안전, 스마트건설 등 매우 폭넓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실제 건물과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건축학부에 진학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특정 진로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과 사람,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배우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건축학부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과 설립	1983년	
입학 정원	건축학·건축공학전공	58명
	실내건축전공	25명
전임 교원	16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soar.ssu.ac.kr	
tel.	02-820-0700	

IT대학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ICT 융합 분야로 특성화된 최고의 단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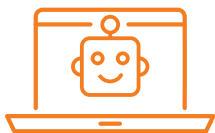
IT대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내 최초의 ICT 특화 단과대학입니다. 지금까지 1만 6,000명 이상의 졸업생이 ICT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매년 우수한 신입생이 입학해 최신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IT대학의 교육 목표는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에서 정보기술과 정보 문화를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풍부한 교양을 갖추며,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기술을 습득한 창의적인 리더와 정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튜터링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공 능력, 외국어 능력, 국제 교류 경험, 인턴 경험, 국내외 봉사 경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본부와 IT대학 주최로 재학생 대상 공모전을 개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본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내 IT 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AI중심대학사업, ERC 사업, BK21 사업, ITRC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연구 성과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IT대학은 인공지능, 5G,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국내 ICT 융합 분야 최고의 단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컴퓨터학부 #지능전자공학부
#글로벌미디어학부 #디지털미디어학과

컴퓨터 시스템 및 고급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한 아키텍처급 고급 인력 양성

컴퓨터학부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학과 인재상]

-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아키텍처급 리더
- 컴퓨터 시스템 및 고급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컴퓨터수학1, 프로그래밍1 및 실습, 컴퓨터학개론, 컴퓨터수학2, 프로그래밍2 및 실습, 컴퓨터시스템기초설계 등
- 2학년** 자료구조, 선형대수, 객체지향프로그래밍, 논리설계, 컴퓨터구조, 알고리즘, 형식언어및오토마타, 사용자인터페이스 등
- 3학년** 프로그래밍언어, 시스템프로그래밍, 리눅스시스템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웹프로그래밍, 컴퓨터비전, 딥러닝 등
- 4학년** 전공종합설계, 컴퓨터그래픽스 및 AI응용, 자연어처리, 데이터베이스응용, 고급인공지능, 컴퓨터비전응용, 모바일네트워크, 컴퓨터공학특강 등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 I, 화학 I, 정보, 논리학
진로선택 기하, 물리학 II, 공학일반

[동아리 및 소모임]

SPLUG(친목), SCCC(문제해결), 하라오름(친목), ACE(축구), OS(친목) 등

[학과 특색 프로그램]

- ICPC 대회 참가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원
- 교내 프로그래밍대회(SCON) 및 소프트웨어공모전 개최
- 국제 유수의 전시회 및 학회 참관 기회 부여

[취득 가능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TOEIC, TOEFL CBT, TEPS 등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는 1970년 아시아 최초,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전자계산학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한 IT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컴퓨터 시스템 및 융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핵심 학문과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컴퓨터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고 고수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국제 수준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동문들이 국내외 대학, 기업 연구소, 정부 기관 등에 진출해 있으며, 학내 여러 평가 지표에서도 선도 학부로 인정받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구글, Quora, 삼성리서치 등 국내외 AI·소프트웨어 기업 및 연구기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강소중소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국내외 유수 대학교 교수, 기업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공무원, 정부기관,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연구소 등 다양한 직군에서 활동

[교수 연구 분야]

AI컴퓨팅,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비전, 의료영상처리,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임베디드시스템, SoC 설계,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시맨틱 웹, 정보보안, 정보통신 등

[FAQ]

Q. 컴퓨터학부와 AI소프트웨어학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컴퓨터학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시스템 전반의 이론 교육, 산업체 수요 기반의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아키텍처급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학부를 선택했다면 해외 어떤 대학에도 뒤지지 않는 강도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 교육을 받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키텍처급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과 설립	1970년
입학 정원	75명
전임 교원	16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cse.ssu.ac.kr
tel.	02-820-0920

구글코리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박찬솔

컴퓨터학부
22학번



컴퓨터학부는 '디딤돌'이다

전공 수업과 프로그래밍 대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터를 좋아하던 학생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실력으로 만드는 곳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뛰어난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부 내 알고리즘 문제 해결 소모임인 SCCC에서 꾸준히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대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깊이 있는 배움, 주도적인 성장

재학 중에는 전공 공부를 비롯해 프로그래밍 대회와 프로젝트 등 컴퓨터공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폭넓고 깊이 있게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내 알고리즘 문제 해결 소모임인 SCCC에서는 회장을 맡아 프로그래밍 대회를 기획·운영하고 스터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전공 수업에도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다양한 전공 과목을 밀도 있게 이수해 6학기 만에 조기졸업을 이루었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경험은 넓게

컴퓨터학부에 진학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전공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와 같은 기초 과목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되어 줍니다. 또한 컴퓨터학부에는 학술 소모임, 프로그래밍 대회,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전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업 안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수업 밖에서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박찬솔 동문이 경험한

컴퓨터학부의 특별한 3가지

- ✓ 실무로 이어지는 탄탄한 전공 교육
- ✓ 정답보다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 ✓ 학생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는 성장 환경

"Global Smart IT Brain"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IT 인재 양성

지능전자공학부

SCHOOL OF ELECTRONIC ENGINEERING



[학과 인재상]

실용적인 전문기술 인력, 창의적인 산업 기술 인력, 새로운 기술 리더,
국제화된 기술 인력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기초공학수학, 물리 및 실험, 전산수학, 기초반도체공정화학, 프로그래밍 및 실험, 공학설계입문
- 2학년** 디지털공학, 물리전자, 공학수학, 회로이론, 전자기학, 신호 및 시스템, 반도체소자, 컴퓨터구조, 선형대수, 고급프로그래밍, 전자공학실험
- 3학년** 디지털신호처리, 고급공학수학, 확률 및 랜덤변수, 데이터통신, 컴퓨터통신망, 전자회로, 전송 및 전파, 초고주파공학, 자료구조, 알고리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시스템설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공정, 머신러닝, 인공지능경망, 통신시스템, 디지털통신, 전자공학실험
- 4학년** 센서공학, 자동차전자 및 반도체, SoC구조및설계, 임베디드시스템, 아날로그집적회로, 디지털집적회로, 디지털FPGA설계, 클라우드융합, AI클라우드, 운영체제, 고급인공신경망, 고급디지털신호처리, 멀티미디어융합기술, 이동통신시스템, 무선공학, 정보보호론

[선택교과 가이드]

심화전공선택 반도체, 피지컬AI, AI인프라, 전파통신

진로선택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텔레콤, KT, LG U+, NHN, 삼성물산, 카카오),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송국)

[동아리 및 소모임]

SSAC(취업), 다윈(취업), MINUTE(취업), FC SITE(축구), KISS(농구), 전자전시회(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로보틱스(로봇개발), 코드홀릭(소프트웨어개발), BlindC(소프트웨어개발)

실용적인 전문 기술 인력, 창의적인 산업 기술 인력, 국제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학부는 학생 대외 활동 성과, 교수진 연구 성과, 외부연구 수주, 특허와 기술 이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7년부터 기존 전자공학전공과 IT융합전공을 통합하여 지능전자공학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방학 중 C프로그래밍, MATLAB, 반도체공정 등 교육 과정을 단기강좌로 제공한다. 학생역량 강화를 위해 소모임, 경진대회, 공모전, 학술대회 참가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학과 특색 프로그램]

국제전자박람회 등 해외 현장 방문, 학업보조조교 운영, 창의적 공학설계 경진대회, IT 실무강좌, IT 교육봉사단, 1:1 전공 도우미, 교수와 1:1 프로젝트, 취업 멘토링, 자기계발·학회·공모전 지원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교내 최우수학과 선정
- 정부지원 대형연구센터 유치(IT융합, IT의료융합, 인터넷인프라 등)
- 숭실대학교 제13대 총장 배출
- 졸업생 중 삼성전자 사장 배출
- 학부교수 중 미국 스탠포드대학 선정 '세계 최상위 2% 과학자' 선정 (2024년)

[취득 가능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클라우드시스템 관리 자격증

[졸업 후 진로]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텔레콤, KT, LG U+, NHN, 삼성물산, 카카오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송국

[교수 연구 분야]

소자 및 집적회로, 초고주파 및 광파, 컴퓨터, 자동차 및 네트워크, 통신 및 신호처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응용,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IoT 등 융합기술

[FAQ]

Q. 지능전자공학부와 AI소프트웨어학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지능전자공학부는 지능형 자율이동체 구현을 위한 첨단 반도체 소자 및 설계, 디지털 시스템, 신호 및 영상 처리, IoT, 정보통신, RF공학, 이동통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분야를 커리큘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I소프트웨어학부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하여 스마트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학과 설립	1969년
입학 정원	218명
전임 교원	43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
homepage	infocom.ssu.ac.kr
tel.	02-820-0630, 0919

승실대학교
지능전자공학부 교수

김철기

지능전자공학부 08학번
(前 전자정보공학부)



지능전자공학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능전자공학부는 전공 수업의 깊이와 넓이 모두를 아우르는 학부입니다. 학부 시절, 과제가 많고 공부량도 상당했지만 그만큼 다양한 길을 경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 친구들은 치열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프로젝트와 공모전, 대회를 통해 나만의 방향성을 찾아갔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었고, 졸업 후에 진짜 실무에서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수님들

학부 시절, 많은 과목을 이수하면서 교수님들의 열정과 진심 어린 지도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석·박사 과정에서 타 대학 학생들과 경쟁하며 배움의 깊이를 실감했고, 학부 때 받았던 교육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3년, 모교에 교수로 부임한 뒤 다시 마주한 교수님들은 여전히 학생 중심의 고민을 멈추지 않고 계셨습니다. 학생 때는 알 수 없었던 학부 회의 자리에서, 교수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늘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노력이 이 학부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이 NO, 나에게 YES

학부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꺼리는 특정 분야가 있었고 저는 오히려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그 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선택하지 않는 이 길이 나를 가장 빛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계기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교수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분야에서 꾸준히 재미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철기 동문이 경험한

지능전자공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이론과 실무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구와 교육 경험
- ✓ 학생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멘토형 교수
- ✓ 융합 기술 중심의 커리큘럼 혁신과 산업 연결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의 만남

글로벌미디어학부

GLOBAL SCHOOL OF MEDIA



[학과 인재상]

- 사람과 가장 가까운 IT 응용 분야에 대한 열정과 탐구 정신을 가진 인재
-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인재
- 창의성, 리더십, 기술의 이해 등에 관심 있는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Art&Technology, 프로그래밍 및 실습1·2, 미디어제작 및 실습, 기초조형 및 실습, 컴퓨터시스템개론, 인공지능수학
- 2학년** 디지털미디어원리, 자료구조, UX/UI디자인, 미디어아트, 데이터사이언스, 컴퓨터그래픽스, 웹프로그래밍, 3D그래픽디자인, 영상편집론, 창의프로젝트1, 인터랙티브미디어, 서비스아키텍처
- 3학년** 피지컬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영상처리, 알고리즘, 그래픽스프로그래밍, 게임프로그래밍, 인공지능, 확장현실디자인, 디지털스토리텔링, HCI, 인터랙티브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기획, 영상특수효과, 컴퓨터구조론, 딥러닝, 창의프로젝트2
- 4학년** 모바일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 기계학습, 컴퓨터비전, 게임개발방법론, 뉴미디어광고, 하이테크마케팅, 매체미학, 디지털사운드, 메타버스, 졸업프로젝트, 창업프로젝트, 피지컬AI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 I, 정보, 음악, 미술
진로선택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동아리 및 소모임]

리얼페이크(가상현실 개발 학술 소모임), 게임웍스(게임 개발 학술 소모임), 디자인솔솔(디자인 학술 소모임), 언타이틀(알고리즘/멘토링 학술 소모임), 윈(밴드 소모임), MFC(축구 소모임), 크로스오버(농구 소모임)

글로벌미디어학부는 2000년 IT 기술과 인문·예술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송실대학교를 대표하는 학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T 기술'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핵심 역량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관련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문·예술' 분야에서는 UX/UI디자인, 뉴미디어아트, 콘텐츠와 관련된 창의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신 기자재로 구성된 교육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통해 문제 해결 및 협업, 리더십 능력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메타버스와 AI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갈 실용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융합적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졸업프로젝트 전시, 졸업생 멘토링 데이 등
- 대학원 연구실과 연계한 학부 연구생 제도
- 융합전공 운영: 문화서비스산업 융합전공, 뉴미디어콘텐츠 융합전공학과 특색 프로그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 사업에 전공 과정으로 참여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20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 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선정
- 2024년 가상융합대학원 선정

[졸업 후 진로]

IT 기업(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라인 등), 게임 개발사(NC소프트, 넷마블 등), 웹/모바일 개발사(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인터랙티브 미디어 제작사(CJ올리브네트웍스, SOOP 등), 광고 기획사(제일기획 등)

[교수 연구 분야]

멀티미디어, 인공지능, 영상디자인, HCI, 컴퓨터게임, 감성인식, 콘텐츠공학,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비전, 영상특수효과, 인터랙티브아트, 피지컬 컴퓨팅, 미디어로보틱스, 하이브리드 마케팅, 미디어광고, 가상증강현실, 메타버스

[FAQ]

Q. '메타버스×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미디어학부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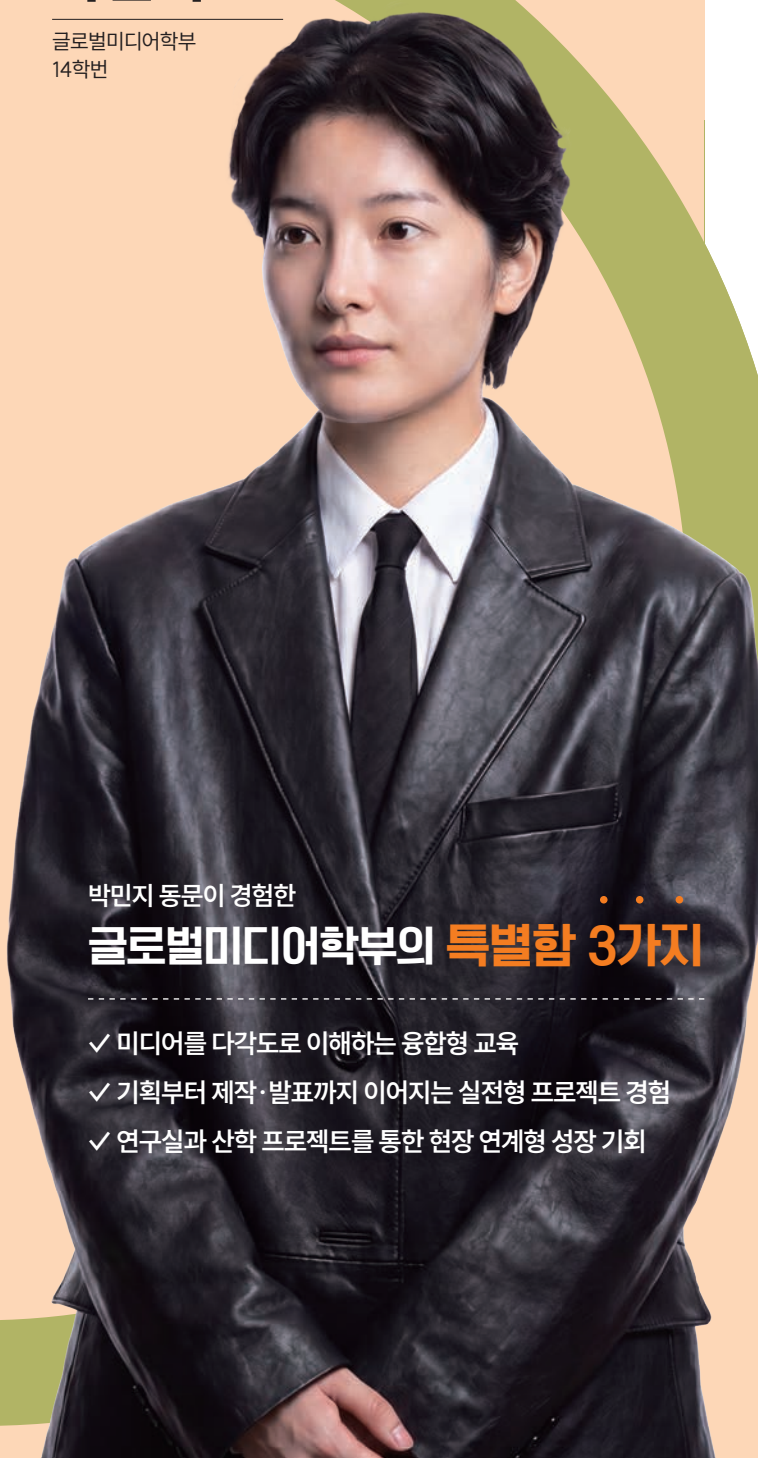
A.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메타버스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다차원적인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창의·융합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글로벌미디어학부가 지향하는 IT 기술과 인문·예술의 창의·융합형 교육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력이 강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계속 개편하고 있습니다.

학과 설립	2000년
입학 정원	77명
전임 교원	10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media.ssu.ac.kr
tel.	02-820-0910

젠틀몬스터 뉴미디어파트
테크니컬 디자인팀 팀장

박민지

글로벌미디어학부
14학번



박민지 동문이 경험한

글로벌미디어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미디어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융합형 교육
- ✓ 기획부터 제작·발표까지 이어지는 실전형 프로젝트 경험
- ✓ 연구실과 산학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 연계형 성장 기회

글로벌미디어학부는 '언어'이다

디자인이든 기술이든 브랜딩이든, 결국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글로벌미디어학부는 그 전달의 방식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니다.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맡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작업의 밑바탕에는 학부에서 익힌 언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넓은 가능성 위에서 찾은 방향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가장 막막했던 것은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이 좋기도 했고, 디자인에도 흥미가 있었으며, 기술적인 분야에도 끌렸지만 어느 하나로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미디어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애매함을 억지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론과 제작, 기술을 함께 다루는 커리큘럼은 당시의 저에게 가장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은 분명 옳았습니다. 만약 한 가지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르는 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배운 협업과 운영

저는 배운 것을 이론으로만 남겨두기보다 직접 만들어보고 실행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완성해 사람들 앞에 선보이고, 그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고, 그것이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크로스디자인랩 연구실에서의 학부생 연구원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실은 제 성향과 잘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과제나 졸업작품이 포트폴리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연구실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예산과 일정, 그리고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얹힌 프로젝트를 학생의 신분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협업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 흥미가 이어져 석사 과정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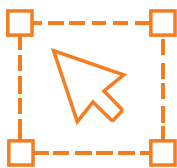
경험이 만드는 시선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보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 분야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계속 바뀌지만,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그것을 콘텐츠로 연결하는 감각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뿐 아니라 전시,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길 권합니다. 보는 시야가 넓어질수록 만드는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학교 안에만 머물지 말고 자주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들이 결국 자신만의 언어가 되고, 자신만의 관점이 됩니다.

혁신적인 IT 실무 지식과 창의력으로
IT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디지털미디어학과

DEPARTMENT OF DIGITAL MEDIA



【학과 인재상】

- 테크놀로지, 디자인, 콘텐츠 등이 융합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자 하는 인재
-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제와 분야에 도전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인재
- 리더십을 바탕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협업을 통한 IT 서비스 사업화에 적극적인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미디어제작, 프로그래밍, 컴퓨터시스템, 미디어엔테크, 피지컬미디어
- 2학년** 확률과통계, UX방법론, 디지털영상, 웹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선형대수, UI디자인, 디지털미디어원리, 고급웹프로그래밍, 3D그래픽디자인
- 3학년** 모바일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컴퓨터그래픽스, 디지털스토리텔링, 데이터사이언스, 게임기획과제작, 캡스톤프로젝트, 인터랙티브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 벤처비즈니스
- 4학년** 핀테크, 운영체제, e-비즈니스, 뉴미디어광고,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확장현실디자인, 사운드아트앤디자인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화법과 작문, 정보
진로선택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공학일반

【학과 특색 프로그램】

해외 졸업연수, 학과 콘텐츠 공모전, IT 프로젝트 및 전시회,
학과 소모임, 수업 튜터링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재직자 다수

【졸업 후 진로】

SW/앱 개발, 콘텐츠 디자인, 빅데이터, IT 서비스 기획, 창업,
대학원 진학, 유학

디지털미디어학과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IT 실무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IT 서비스의 미래를 디자인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SW 공학,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교수진으로 구성된 디지털미디어학과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학생들이 IT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 교과과정을 통해 '차세대 IT 리더'로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동아리 및 소모임】

- **RAWRAW(사진미디어)**: 사진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소통하는 모임
- **Saturday(밴드)**: 야근과 밤샘 과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으로 힐링하는 직장인 밴드 모임
- **송FC(축구)**: 풋살, 축구, 축구 관람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 **송빛파티시얼(제과제빵)**: 제과 및 제빵 기술을 배우고, 팀워크와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모임
- **송송(러닝)**: 러닝을 통해 학업과 직무를 병행하는 구성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임
- **에슈엠데뷔조(댄스)**: 춤 실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여 댄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모임
- **운송이(라켓스포츠)**: 라켓스포츠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모임
- **파급효과(다이빙)**: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해양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모임

【교수 연구 분야】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스, Web3D, 가상/증강현실, 인터랙티브 콘텐츠, 감성인식, 콘텐츠공학, 경영정보시스템

【FAQ】

Q. 재직하면서 대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진 않나요?

A.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능한 교수진이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강의는 언제 진행되나요?

A. 퇴근 시간을 고려해 대부분 주중 강의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며, 주말 강의가 개설됩니다.

Q. 중도 퇴사 시 재학에 어려움이 있나요?

A. 입학 이후 퇴사하더라도 재학 가능합니다.

※ 학부 졸업 후 본교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학과 설립	2015년
모집 인원	41명
전임 교원	10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digitalmedia.ssu.ac.kr
tel.	02-820-0960

IBM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우수연

디지털미디어학과 19학번
(前 미디어경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는 '행운'이다

수업을 통해 전공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좋은 동기, 교수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학생회 활동을 하며 다른 학과 친구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린 자세와 도전정신을 가져라

각자 자신만의 경험과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강점에 전공 지식을 녹여 낸다면 새로운 개념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깊이 파고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는 계속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며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로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는 일

현재 IBM에서 Technology Engine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비즈니스 및 기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PoC, MVP 개발을 통해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내고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미디어경영학과에서 배운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기술과 비즈니스 양쪽을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IT 생태계에 직접적인 임팩트를 주고 싶어 지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도메인을 경험하며,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기술로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적인 영역을 더 추상화해 기술과 비즈니스의 간극을 좁히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목표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수연 동문이 경험한

디지털미디어학과 특별함 3가지

- ✓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공유 기회
- ✓ 더 나은 학과를 만들기 위한 학생회장 활동 경험
- ✓ 입학부터 졸업까지 유지한 전체 수석 성적

AI대학

COLLE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I) 분야에 특화된 국내 최초 AI대학

AI대학은 2026학년도에 신설된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분야에 특화된 단과대학입니다. AI소프트웨어학부에서는 1~2학년 동안 공통 및 기초과목을 이수하며, 3학년 진학 시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인공지능 △AI시스템 4개의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33명의 전임교원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을 담당합니다. 각 전공은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AI대학은 고성능 GPU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AI 연구 전용 실험실 등 최첨단 컴퓨팅 인프라를 갖춘 전용 학습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보보호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송실대학교와 LG유플러스가 협력하여 설립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LG유플러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론 교육을 넘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I소프트웨어학부 #정보보호학과

AI Native Soongsil

시소프트웨어학부

SCHOOL OF AI SOFTWARE

학과 설립	2026년
입학 정원	172명
전임 교원	33명(26년 1학기)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ai.ssu.ac.kr
tel.	02-850-1691

시소프트웨어학부는 '내비게이션에는 안 나오는 지름길'이다

다들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던 길목으로 들어서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삼수에 휴학까지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보다 4~6년 늦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시융합학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길인 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훌륭한 학과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학과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융합 교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

현재 네이버랩스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리,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임베디드, 회로, 응용 S/W, 로봇, 인공지능 등 다방면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기에 자율주행이라는 융합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역시 여러 분야가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학과에서 경험한 다양성이 전문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묵묵히 나아가라

예비 후배 여러분,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값싼 위로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주길 원치 않습니다. 천재나 영재가 아닌 이상 열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구성우 동문이 경험한

시소프트웨어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학교 지원으로 CES 참관 및 실리콘밸리 견학
- ✓ 연구실 인턴 시절에 만든 자율주행차
- ✓ 학과 PC를 모두 관리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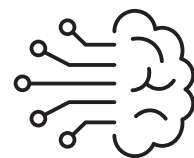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구성우

시소프트웨어학부 12학번
(前 시융합학부)

AI소프트웨어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실무 역량을 갖춘 AI 중심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본 학부는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인공지능, AI시스템의 세부 전공 4개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컴퓨팅 기술과 지능형 응용시스템이 융합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졸업생들은 IT 플랫폼 기업, 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AI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 보안 시스템 설계, 임베디드·IoT 시스템 구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운영 등 고도화된 기술 기반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AI소프트웨어학부는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미래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형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고자 한다.



【학과 인재상】

-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로 주도할 글로벌 AI인재
- 산업 수요에 기반한 실용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 효과적인 소통과 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와 기술을 연결하는 미래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프로그래밍기초1, 프로그래밍기초2, 이산수학, 기초AI수학, 창의적공학설계, 오픈소스기초설계, 인공지능입문
- 2학년** 확률 및 통계, 자료구조, 알고리즘, 머신러닝, 컴퓨터구조, 고급AI수학, 고급프로그래밍, 디지털시스템입문,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 자율주행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 3학년** 운영체제,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데이터사이언스, 딥러닝프로그래밍, 로봇프로그래밍, 암호응용, 빅데이터분석, 서버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언어, 소프트웨어분석및설계, 자연언어처리, 온디바이스AI, 클라우드AIoT, AI보안, 디지털포렌식개론, 컴파일러, 모바일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응용
- 4학년** 컴퓨터비전, AIG속기, 분산컴퓨팅,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빅데이터컴퓨팅, 소프트웨어특강1, 캡스톤디자인, 고급캡스톤디자인, 정보보호프로젝트1, 멀티모달딥러닝, 클라우드컴퓨팅, 소프트웨어특강2, 정보보호프로젝트2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 미적분, 물리학, 화학, 생물학술

진로선택 기하, 공학일반

【동아리 및 소모임】

DAI(데이터분석 공부 소모임), Solved(알고리즘 소모임), aba(농구 소모임), PopcornEnglish(영어회화 소모임), Gambit(체스 소모임), ASC(해킹보안 소모임)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세부전공 4개(복수선택가능): 소프트웨어전공, 정보보호전공, 인공지능전공, AI시스템전공
- 국제연수: 매년 다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국제연수 기회 제공
- 경진대회: 매년 SW, AI융합 경진대회 및 졸업작품 전시회 주최
- 미래인재릴레이 등 다양한 장학금: 기업체 장학금 및 취업 시 가산점 제공

【우수 학생 및 학과 성과】

- 2017년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동상 수상
- 2020년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선 3위 수상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 경진대회 준우승
- 2022년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대학생부 준우승
- 2023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 자율주행 분야
- 2024년도 국제 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ICPC) World Final 한국대표

【취득 가능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 정보보호전문가 등

【졸업 후 진로】

IT 플랫폼 기업, 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
AI 및 데이터 전문가, 시스템 및 임베디드 전문가, 보안 전문가,
소프트웨어개발자, 공공·국가기관 기술직, 연구·학문 분야

【교수 연구 분야】

인공지능, AI보안,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모바일보안, 프라이버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컴퓨터구조, 비즈니스 모델, IT정책, 자율주행, 데이터과학, 기계학습, 영상처리, 시스템 H/W, 시스템 S/W, 센서 네트워크, 차세대 메모리, 피지컬AI

【FAQ】

- Q. AI소프트웨어학부는 기존 소프트웨어학부와 AI융합학부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강점을 갖게 되나요?
- A. AI소프트웨어학부는 기존 두 학부의 장점을 통합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응용, 정보보호, 시스템 설계까지 모두 아우르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세부전공 4개(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인공지능, AI시스템)를 중심으로 전공기초-심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대규모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 개설, 산학연계, 연구 중심 교육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명탐정: 명품보다 탐나는 정보보호 인재 양성

정보보호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학과 설립	2024년
모집 인원	20명
전임 교원	7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sec.ssu.ac.kr
tel.	02-820-0962

정보보호학과는 '보물 상자'다

정보보호학과는 다양한 프로젝트, 인턴십, 최첨단 기술 습득, 현장 실습, 졸업 후 취업 보장 등 살면서 누리기 힘든 특별한 기회가 가득한 보물 상자입니다.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 전형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고, 교수님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학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

제가 송실대학교 정보보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실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LG유플러스 계약학과로,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4년 전액 장학금과 생활 지원비 등 전폭적인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실무 중심 커리큘럼, 현장 실습 기회 등 최고의 환경에서 명품보다 탐나는 정보보호 인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세상의 방패가 되어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끊임없는 학습으로 정보보호 분야 리더로 성장하길

입학 준비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보호학과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태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새로운 위협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 습득과 새로운 기술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팀워크도 중요하므로 협업과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학내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모두 송실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꿈을 이루고 유망한 정보보호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김희찬 학부생이 경험한 정보보호학과 특별함 3가지

- ✓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정보보호 콘퍼런스 참여
- ✓ 진로와 성장을 위한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 ✓ 최첨단 연구시설과 다양한 실습 기회



정보보호학과
학생회장
김희찬

정보보호학과 24학번

정보보호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송실대학교와 LG유플러스가 협력해 설립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다. LG유플러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론 교육을 넘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핵심 교과과정뿐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직접 운영하는 현장 실습을 비롯한 실무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제해킹방어대회 출전, 해외 단기연수, 산학 프로젝트, 전문가 멘토링 등의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송실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최고의 교수진이 학생들을 명품보다 탐나는 정보보호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과 인재상]

- 실용 인재: 산업 수요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보보호 인재
- 융합 인재: 전문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정보보호 인재
- 글로벌 인재: 글로벌 역량과 기본 소양을 갖춘 정보보호 인재

[주요 커리큘럼]

- 1학년** 기초프로그래밍, 컴퓨팅개념이해, 정보보호개론, 응용프로그래밍, 리눅스활용, 사이버보안윤리
- 2학년**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객체지향프로그래밍, 모바일프로그래밍, 웹해킹과 보안, 알고리즘, 컴퓨터네트워크, 어셈블리프로그래밍, 암호와 응용, 개인정보보호
- 3학년** 시스템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보안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보안, 시큐어코딩, 인공지능보안, 데이터베이스보안
- 4학년** 시스템보안, 융합보안프로젝트1·2, 정보보호특강1·2, 악성코드분석, 현장실습1·2

[선택교과 가이드]

일반선택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진로선택 기하, 공학일반

[학과 특색 프로그램]

학술대회 참여 지원

[취득 가능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 정보보호전문가(1·2급) 등

[졸업 후 진로]

LG유플러스 입사

[교수 연구 분야]

인공지능, AI보안,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모바일보안,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공개소프트웨어,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시스템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컴퓨터구조, 비즈니스 모델, IT정책

스스로의 길을 설계하며
세상과 함께하는 자유전공학부

베어드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SCHOOL OF LIBERAL STUDIES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전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입학 시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선발하고, 입학 후에는 학과 전공 진단, 전공 기초소양과정, 진로지도교수 상담 및 선배 멘토링, 전공박람회 등 다양한 전공 탐색 과정에 참여하여 원하는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담임 교수뿐만 아니라 희망 학과 교수와의 상담도 제공되어 학생들은 관심사에 맞는 전공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학과 설립	2025년
입학 정원	397명
전임 교원	4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sls.ssu.ac.kr
tel.	02-820-0968

[학과 인재상]

주도적 인재, 창의융합 인재, 실천적 인재

[주요 커리큘럼]

1학년 전공기초: 전공수학, 주제탐구세미나 I, 주제탐구세미나 II
교양선택: 진로탐색과 설계, 전공탐색과 설계, 다전공탐색과 설계



[학과 특색 프로그램]

- 전공박람회: 계열별 전공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관심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인텔스메이저: 전공박람회 이후 관심 전공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 담임교수 1:1 진로상담: 전공선택, 학사제도, 학업 및 학습법, 대학 생활 적응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

Q. 자유전공학부는 어떤 학과든 선택이 가능한가요?

A. 네, 자유전공학부(인문), 자유전공학부(자연)은 모집단계에서의 구분일 뿐, 입학 후 자유로운 학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과 스포츠학부, 선취업후진학학과, 계약학과는 불가). 자유전공학부(인문)으로 입학해도 자연계열(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IT대학 등) 전공 선택이 가능하고, 자유전공학부(자연)으로 입학해도 인문계열(인문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등)의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자유전공학부 1학년은 무엇을 배우나요?

A. 1학년은 자유전공학부 수업으로 전공탐색과 설계, 진로탐색과 설계 등의 교과목을 수강하며, 주제탐구세미나 I, II, 전공수학 등의 전공기초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는 주제전공으로 선택한 전공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2학년 때 학과에 진입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학점, 기초학습격차, 소속감 등)

A.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는 진로 및 전공탐색 교과목 뿐만 아니라, 1학년 1학기부터 전공기초교과목과 BSM(Basic Science & Mathematics) 교과목이 교양선택으로 제공됩니다. 수학, 물리, 화학, 컴퓨팅, 생물 등의 교과목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학 본부에서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AI 기반 학습지원, 튜터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학년 2학기부터 희망전공의 전공 수업을 수강할 수 있고, 각 학과의 지원체계를 통해 자유전공학부생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밀그림'이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1년 동안 전공의 제약 없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색하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의 밀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자신의 진로를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밀그림을 수정하듯, 처음에는 잘 맞다고 생각했던 전공보다 더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자유전공학부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흰 도화지에서 시작해 점차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해 나가는 시간은 앞으로 완성해 갈 인생이라는 작품 속에 소중한 발자취로 남을 것입니다.

내 길을 찾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1년

제가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탐색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도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앞으로의 진로와 전공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소 조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숭실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제공하는 '1년의 탐색 기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전공선택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이미 정해진 틀에 저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를 이끌 미래형 반도체를 향해

저는 현재 지능전자공학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형 반도체를 개발하는 반도체 소자·공정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세대 메모리와 AI 반도체에 적용될 새로운 소자를 연구하며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 학부 과정에서는 학부생 연구원으로 참여해 실험실 경험을 쌓고,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갖추고자 합니다. 나아가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에서 시대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술을 직접 개발하며 산업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 자유전공학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확고한 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학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전공학부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학문을 경계 없이 경험하며 융합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하게 된다면, 1학년 동안은 주저하지 말고 인문학부터 공학,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가는 분야를 최대한 폭넓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도전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자신만의 가슴 뛰는 목표를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도연 학부생이 경험한

자유전공학부의 특별함 3가지

- ✓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공 탐색 지원 시스템
- ✓ 전공을 직접 경험하며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 ✓ 풍부한 지원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김도연

자유전공학부
26학번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차세대반도체학과

DEPARTMENT OF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차세대반도체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차세대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갈 책임감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된 학과다. 비공학계생에게는 차세대반도체 분야 교육 기회를, 이공학계생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반도체 분야 7개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원, 교육 콘텐츠, 기자재 등의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반도체 기술 발전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수준별 모듈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희망하는 학생이 소속 대학이나 전공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육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차세대반도체 분야 다전공 교과과정만 운영하고 송실대학교의 모든 학과 학생이 참여 가능하며, 마이크로디그리(인증서) 및 부/복수/연계/융합/심화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학과 인재상]

- 반도체 소양을 갖춘 지식인
- 반도체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반도체 전문가
- 반도체 분야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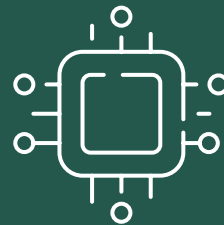
[주요 커리큘럼]

※ 2,3,4학년 대상으로 난이도별로 교과목 구성

초급 AI입문, 생활속의 반도체, 반도체 제대로 이해하기, 반도체개발프로세스 등

중급 전기회로, 전자회로, 디지털논리회로, 디지털논리설계 및 실험, 반도체공정의 이해, EDA툴을 이용한 Full-custom 설계, 반도체기술과 제품응용, 기초반도체공정화학, 컴퓨터구조 등

고급 반도체집적공정, 인공지능경망,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머신러닝, 메모리와 반도체, 디지털시스템설계, 반도체공정과 화학분석, 고급Project, 공학지식 및 실무, 컴퓨터를 활용한 리소그래피, 학부생연구인턴 등



[학과 특색 프로그램]

1) 7개 대학 컨소시엄의 혁신적인 시스템

- 7개 대학이 교원, 교육 콘텐츠, 기자재 등의 자원 공유 및 공동 활용을 통해 협력 체계 구축, 기존의 제한된 반도체 기술 교육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수준별 모듈형 교육과정 제공
- 교과목 상호 개방을 통한 타 대학 교과목 이수 지원: 송실대에서 개설되는 20여 개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7개 대학에서 총 82개 교과목 개설
- 모든 전공과목은 PBL방식(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진행되어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경험 체험
- 컨소시엄과 MOU를 맺은 기업에서 실무 현장 경험
- 혁신융합대학 교수 연구실 인턴 생활 등 비교과 과정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7개 대학: 송실대, 서울대, 강원대, 대구대, 조선이공대, 중앙대, 포항공대)

2) 비이공계생에게도 반도체 교육 기회 제공

- 수준별 모듈형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차세대반도체 관련 학위 취득 가능
- 소속 학과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디그리(인증서) 및 다전공 (부/복수/연계/융합/심화전공) 교과과정 운영 및 학생 이수 지원

3) 각종 경진대회, 비교과 프로그램 및 산업계 연계 인턴십·취업 지원

- 프로젝트 보고서 챌린지(CPC): 학기 종강 후, 전공 강의(PBL방식) 결과물을 이용하여 경진대회 참가
- 차세대반도체 경진대회: 전공강의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물 또는 비교과 결과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경진대회 참가
- Chips Master Program(CMP): 교과·비교과·현장학습 (SEDEX·CES 등)을 통해 Si반도체 활용 제품을 분석하고 설계 프로젝트 수행하여 결과물 도출 및 인증서 발급
- COSS 서포터즈: 컨소시엄 7개 대학과 연계 활동, 연구재단 주최 행사 참여 및 활동 증명서 발급
- 국내외 전시회, 학술·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가 지원
- 인턴십 프로그램 집중 운영
- 산업계 인사를 통한 다양한 취업 가이드 제공
- 장학금 제도: 성과형 장학금(성과 우수, 성적 우수) 및 근로 장학금 지원
- 단기강좌: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 위주 1~2주 강좌 프로그램 진행
- 반도체 계측장비 및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학과 전용 자율 실습실 제공

【 졸업 후 진로 】

대기업, 벤처기업, 공기업, 창업, 진학, 교육기관, 개발자 등

【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

- 시스템 반도체 및 지능형 반도체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수요 증가, 2018~2030년 동안 시장 규모가 연평균 26.5%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
- 미래 시대에 부족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정부가 교류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구축

【 FAQ 】

Q. 차세대반도체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왜 정원이 0명인가요?

A. 차세대반도체학과는 숭실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전공 학위를 수여하는 학과로, 소속 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존의 학과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입시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며, 2학기 재학생부터 다전공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과 홈페이지 FAQ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과 설립	2021년
입학 정원	0명
전임 교원	10명
교직과정 개설 여부	X
homepage	disu.ac.kr
tel.	02-829-8222~6

캠퍼스 맵

- | | | | | |
|------------|------------|------------|-------------|----------|
| 1 문화관 | 6 한경직기념관 | 11 창신관 | 16 조만식기념관 | 21 백마관 |
| 2 안익태기념관 | 7 미래관 | 12 연구관 | 17 진리관 | 22 대운동장 |
| 3 형남공학관 | 8 전산관 | 13 중앙도서관 | 18 학생회관 | 23 송덕경상관 |
| 4 베어드홀 | 9 레지던스홀 | 14 신양관 | 19 벤처중소기업센터 | 24 창의관 |
| 5 한국기독교박물관 | 10 글로벌브레인홀 | 15 웨스트민스터홀 | 20 교육관 | 25 정보과학관 |

- | | |
|-----------------------|----------------|
| A 정문 | G 송실대입구역 3번 출구 |
| B 중문 | H 송실대입구역 4번 출구 |
| C 남문 | |
| D 북문 | |
| E 조만식기념관
지하주차장 진입로 | |
| F 송덕경상관
주차장 진입로 | |



송실대
AI시대의
방향을 설계하다



SSU:NIVERSE

